

진흙냄새 물씬한 우리의 표상(表象)을 되살려야

Reviving Our Emblem - The Smell of Earth

김정동 / 목원대 건축학과 교수

by Kim Chung-Dong

LA 마저스의 박찬호와 나고야의 선동렬, 그리고 월드컵 축구 열풍에 빠져 금년은 정신없이 가버린 느낌이다. 특히 한일전은 마치 전쟁 같았다. 선수들은 백병전을 치르는 전사였다. 국가가 출렁이고 국가가 울려 퍼지고 이것이 전쟁이 아니고 무엇이었겠는가. 두 나라의 기자들 모두 종군기자같이 시시각각 전투 결과를 타전했다. 스포츠 게임이라기 보다는 총없는 현대전이었다. 그런데 만약 '건축'에서 한일전을 치른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축구같은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최근 뉴스만 봐도 안도 다다오는 도쿄대 교수가 되고 있고 이에 맞서 다카마쓰 신은 교토대 교수가 되는 판인데, 우리는 이상하게 안방 대물림할 교수 뽑기에만 여념 없는 것 아닌지. 대학교수는 도대체 그 대학 출신만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고만고만한 나이에 신분 상승만 노리는 세태가 인타깝다. 거기에 더하여 이상 입시전쟁 열풍도 불어닥치고 있으니 우리 교수들은 건축과 인기상승 붐을 즐기고 있어야만 하는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 졸업 후 머리 좋은 패잔병이나 속출하지 않을까 자례 걸이 난다. 열병 같은 미몽을 벗어나니 해탈에 휘말려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시간은 멈출 줄 몰라 멀게만 느껴졌던 '2000년'도 눈앞에 다가와 있다. 그 날은 정녕 장미빛 미래로 펼쳐질 것인가. 그 신세기에 대한 기대는 불안과 황폐한 오늘의 우리 건축현장 때문에 자꾸 어둡게만 느껴진다.

안타깝게 오늘 이 시점에도 도시환경을 개악(改惡)하는 시도는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 "호황은 기업을 낳고 불황은 고층빌딩을 낳는다"는 1920년대의 미국 풍자어가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요즈음이다.

작금은 다운타운, 신 개발지 할 것 없이 땅 값이 금이다. 그 중 몇 평을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일조차 쉬운 일이 아니다. 법적인 규제를 가하다 보면 사유재산침해가 될 수 있어 이해 당사자들은 어디선가 얄미친 듯이 높이 들고 소리지르기 일색이 된다. 그러나 보니 인위적 결과치는 자연의 역사, 도시의 역사 가리지 않고 파괴해 나가고 있다. 서울과 지방의 산야는 무의지적으로 또한 관습적으로 도장 찍는 몇몇 건축가와 도시계획가에 의해 파적(破寂)되고 있고 빈 땅은 모두 빌딩으로 환몰되어 온통 돈과 쓰레기 냄새만 진동시키고 있다. 깎여져 가는 산악과 해안 절경, 시골길을 양분하는 고층 아파트, 러브 호텔… 더해서 용산(龍山) 공원, 경희궁(慶熙宮)… 등 빈 공간은 여기 저기 할 것 없이 물(沒) 계획적으로 파헤쳐져 국민들에 내던져지고 있다. 개발의 본뜻은 토지이용의 극대화에 있는 것만은 아닐 진데 정부, 지주, 전문가 모두 착각에 빠져 있다. 구석에 붙어 사는 거미(스파이더)만도 못한 모습들이다. 거미는 최소한 생존하기 위해 먹이를 걸리게 하는 {포획선}, 거미줄 자체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건축선}, 생식을 위한 {애정선}, 먹이가 걸린 것을 알려주는 {신호선}을 갖고 그들의 성실한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

나의 여행기록에는 남의 나라 도시건축의 청찬으로 꽉 차 있다. 그 나라에서 부리웠던 것은 도시에 남겨진 기울과 뒷골목, 그리고 역사 깊은 학문의 장(場)들이었다. 특히 영국의 캠브릿지 다리에서의 상쾌함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퀸스 칼리지 브릿지 기에는 푸른 숲과 호수가 떠를 이루며 둘러쳐 있어 영국 대학인들이 여유를 갖고 그곳에서 주어진 삶을 즐기고 있었다. 그 주변에는 고고한 학문에 청량한 공기까지 더해져 신선함을 무한 증폭시키고 있었다. 캠보디아, 하노이에서도 나는 외국인이었다. 그 도시와 건축의 풍물은 현대의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가식없는 어깨를 가진 그들 건축가와 함께 하고 싶었던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단순 애국·민족주의화해 가면서도 달려를 갖고 들어와 주길 바라는 외국인 관광객, 그러니까 멀떨결에 이 땅에 온 그들에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여줄 수 있단 말인가. 이를 모를 기든과 파크들, 15층 아파트, 호화 외제장식…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들을 놀라 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 도심의 회색 숲 사이를 걸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느낄 것이 없을 것이다. 그 밀려 창에 맡비치는 쟁반같이 둑근 혹은 명석 만한 달 속에, 우리의 일그러진 초상만이 보일 것이다. 식상한 그들은 오히려 경주(慶州)에서, 부여(扶餘)에서, 그리고 공주(公州)에서나마 과거를 찾으려 할 것이다.

그러면 그것들은 도대체 누가 설계하고 있는 것인가. 누가 먼 훗날 둠풀매를 맞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모두 공범 아닌가. 나 자신 후대에게 미안해 먹고살려고 나선 이 길마저 떠려치우고 1930년대의 '허송(許崇)'처럼 시골로 들어가 버리고 싶은 마음만 간절하다.

새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래된 것에 향수를 갖는 거미 같은 생리의 보존주의자 마음은 복고주의적이고 단수적으로밖에 안 보여지지 않을 것이다. 빼거덕 거리는 건물, 냄새나는 도시는 우리의 도시 이야기거늘. 몇 년전 한 외국인이, "이 태원을 이태원으로 놔 두라"고 데모하던 일이 새삼스럽다. 내가 봄담고 있는 대학만도 그렇다. 학교가 오래되어 - 실제로는 40년밖에 되지 않았다 - 교지는 통째 팔려 나갔고 "공원으로 하라"는 소리는 한가한 자의 철없는 소리가 되었고. 건물 한 채 제대로 남기지 않은 채 파괴되어 나갈 것이다. '건물 한 채라도 뚫기자'는 소리는 역시 '뚫기는 값이 더 든다'는 소리로 되돌아 올 것이다. 물론 어떤 건축가는 땅 주인이 하라는 대로 '작품'을 할 것이고, 그 자리에는 아파트가 들어 설 차비를 할 것이다.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또 한 예들, 즉 화동(花洞)의 옛 경기중고는 그 당시의 화동적인 맥락으로 또한 정동(貞洞) 미국 대사관은 정동적 이미지로 그대로 두어야 할 것이다.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을 얼치기 이론가들이 환경평가니 여론조사니 해서 소성화(塑性化)시켜 버려서는 안될 것이다. 탄성(彈性)의 묘미는 교과서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도자기가 크면 향아리가 된다. 도자기는 자기 크기를 갖고 있어야 그 이름이 어울린다. 어떤 도시와 건축도 그것을 확대시키면 자신의 이름을 잊게 될 것이다. 그 때는 명가(名家)도 명문(名門)도 없다.

도시와 건축은 {요변(窯變)}, 즉 가마 속의 온도변화와 같다. 필나무의 열에 의해 호(壺, 향아리), 다기 등 자기(磁器)의 백미(白眉)가 나온다. 그러나 대부분의 건축가들은 이 기본적인 장인의식에 조차 접근하지 못하고 온통 부화(附和)하고 있다. 패션적인 감각에 능한 꽤 많은 건축가들은 '뇌동(雷同)건축'으로 잡지적 승부에 빠져들고 있다.

남의 말을 빌리더라도, "우리는 유리상자 형태의 건물을 너무 많이 건설하여 모두 동일한 것으로 보이게 하였으며, 모든 도시를 개성 없는 도시로 만들었다. 우리는 그런 개념에 이제 싫증이 났다"고 필립 존슨의 파트너(John Burgee)는 말한 바 있다.

용광로(Melting city)에서 뿐어 나오는 셋물은 동일 타입의 건축을 만든다. 획일적인 로봇트를 만드는 것과 같다. 이각(二脚) 구조물화한 물인간과 다를 바 없다. 컴퓨터 설계란 것도 필요한 때는 삽입(Plug-in)하고 필요 없을 때는 빼어(Plug-Out) 쓰는 쉬운 기술로만 남게 될 것이다. 2000년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축 사고는 과연 어떤 것일까.

덴마크의 한 조각가 도르발센은 "시멘트는 죽음이고 대리석은 부활이다. 그리고 진흙은 삶의 표상이다"고 말한 바 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함께 할 새 연대는 진흙같이 흙 냄새 물씬한 응력(應力)과 변형(變形)이 합쳐진 건축일 것이다. 그 꿈을 버려진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다. 물론 급변하는 이 시대에 건축만이 '열중 쉬어!' 할 수는 없다. 새로운 요구에 의한 새로운 건축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획일에 의해 모든 도시가 한 줄로 서서 동일화 되어가는 모양새일 것이다.

버크민스터 풀러(Richard Buckminster Fuller, 1895~1983)는 그의 {부론(富論)}에서 "부(富)란 물질이며 에너지의 축적이다. 그러나 가장 귀중한 부는 수천 년의 역사를 걸으며 쌓아온 인간의 정신이며 지식이다. 전자는 한계가 있으나 후자는 영원히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날 것이다."고 말한 바 있다. 그의 오래 전 말이 다시 되새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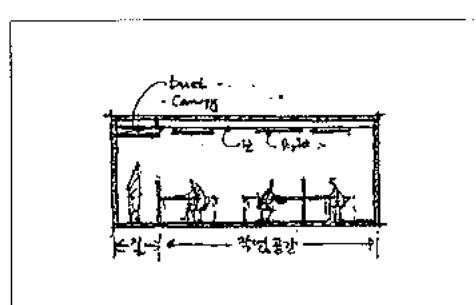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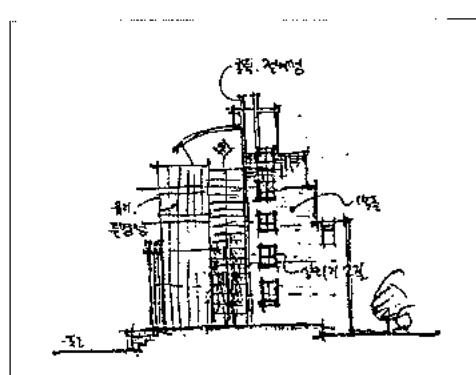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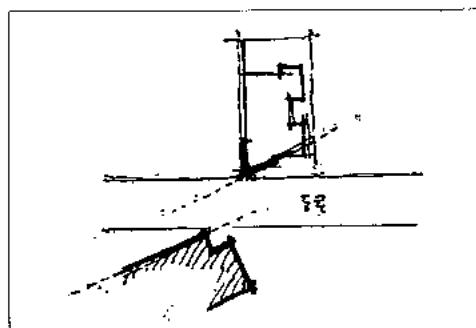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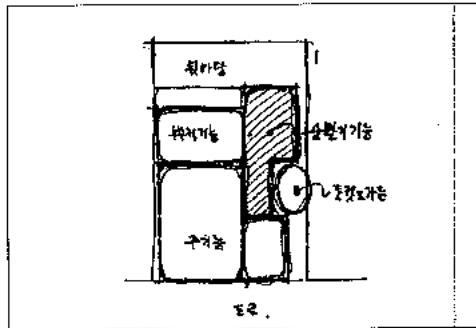
일간C&C 사옥

작품리뷰

review

II-Kun C & C Building

최관영 / 일간 C&C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Choi Kwan-Young



이 시옥의 대지는 전면(남쪽)에 10m도로 너머로 교육대학의 운동장이 있어 시원하게 오픈스페이스를 가진 것을 제외하면 별로 좋은 조건을 가진 것이 없다. 특히 법규적으로는 배치계획과 Mass계획에 크게 자유스러움을 제약받고 있다. 하지만 전면의 Open Space는 도시속에서 생활해야 하는 형편에 비추어 크나큰 이점이라 할 수 있다. 일을 하다가도 잠시 고개를 돌리면 시원히 트인 공간을 통해서 근경, 중경, 그리고 원경까지가 시야에 들어 오게 되어 있다.

결국 이 강점이 이 대지를 구입하는데 결정적 요인이 되었고 설계방향도 그 이점을 최대로 살리는 것에 역점을 두었다. 필요한 스페이스를 얻기 위해서는 법규상 건물의 위치는 저절로 정해져 공지를 뒤(북쪽)에 가질 수밖에 없고 주차장 문제를 최선으로 해결하기 위해 두개의 Access Level을 가진다. 한 출입구는 통상적으로 쓰고 다른 출입구는 근무시간 외에 쓰게 된다. 본 목적적 기능을 하는 part와 순환기 기능을 하는 part로 나누어 생각하고 본 목적적 기능도 다시 회의실, computer실, 자료실 등 부수적 기능들로 세분되어 각기 적절한 위치를 접하게 하는 것은 선행된 큰 틀, 즉 순환기기능을 동쪽으로, 사무적 기능을 전면으로, 보조적 기능을 북쪽으로 하는 위치결정에 구체적으로 부합시켰다.

따라서 앞부분은 부드러움과 투명함, 그리고 섬세한 금속성 라인들과 예리한 채양탄 등으로 하여 표피를 형성하고 뒷부분은 좀 자연적 재료라 할 수 있는 벽돌류로 둘러싸고 최소한의 시창과 더불어 천정창을 포함한 표피로 이루어지게 했다. 두가지 다른 표피에 의한 연속상의 문제를 해결하다보니 양측면의 Facade는 중성적이며 전이적 매개적 표피로 표현된다. Elevator사프트나 굴뚝 등이 그러한 요소로 사용되었다. 전면의 서쪽부분에 주Mass와 평행하지 않게 돌출된 부분은 마주하게 되는 교육대학의 별동이 도로와 평행하지 않게 되어 있어 이것과 평행한 면을 가지게 하므로써 도시적으로 부차적 질서를 만들었고 자체로는 Mass의 다양성을 추구했다. 또 서측면으로 이어지는 연속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전이적 요소로 쓰여졌다.

동쪽에는 최대한으로 확보한 3.6mx4.2m정도의 포켓을 만들어 작은 공간이지만 이것으로부터 내부 계단 홀로 공간을 확장하고 계단홀로 부터는 이것까지 내부 공간을 확장하는 효과를 기대했고 이 공간을 통하여 외부로 투시될 수 있는 엘리베이터와 건너편 회의실의 구석 창, 그리고 계단실, 마당과 서로 Communication이 이루어지게 했고 투명한 유리들을 통해서 외부나 내부의 구분없이 모든 Activity들을 보여지게 하므로써 Vitality를 느끼려 했다. 그리고 건물속의 수직 수평적 길의 패적함을 얻기 위해 구성된 평면은 평소 자신이 추구해 온 바 건축에 있어서 중요한 관점 중의 하나이다.

표피와 자료의 다양함으로 인하여 색채와 질감도 다양해 질 수 밖에 없었고 이것들의 상호Coordination을 위해 많은 실험과 노력이 필요했었다. 최상부 곡면자붕과 매스는 Shape의 다양성을 더해주고 스카이라인의 정리 및 내부적으로 높은 천정의 공간을 얻기 위함이었다.

2.7m밖에 되지 않는 층고로 인하여 Ceiling을 따로하지 않고 2.1m간격의 콘크리트보와 슬라브를 그대로 마감으로 끝냈다. 따라서 Aircondition을 위한 Duct는 건물내의 Canopy와 같은 요소로 통로위에 만들어 실내디자인의 요소로써 쓰여지면서 가능한 높은 천정고를 확보하게 되었다. 설계 의도는 매우 정확한 시공에 의하여 얻어지는 세련미를 추구하려는 것이었으나 현실적으로 기능공들의 정확성이 불충분한 점이 매우 섭섭한 일이었다.



The site of this office is rather poor, with the exception of a broad view that is given by the field of Education College located opposite across a 10m-wide-road. It is heavily under the restriction of building codes that limit its layout and mass composition. But the resulting open space on the front side is precious gift in the urban context. The employee of the building, with the simple turn of his/her head, can enjoy the various depths of landscape in a single view.

This point was decisive in our choice for the site, and the following design was also carefully arranged to preserve and enhance this view. The need for maximum working space, under the building code, has automatically set the building's location within the site at the northern end. The efficient use of parking spaces called for two access levels: One for ordinary use, the other for use at after hours.

The whole was divided into a part of functional programs and a part for circulations. The former was further classified into conference room, computer room and a data storage. These were positioned and connected by the circulation system in the east. The office area composed the front, and additional functions were placed on the north.

The front portion was warm and transparent, with subtle metal linings, whereas the rear part was more natural covered with red bricks. These two different facades were then mediated by neutral exteriors in between. Elevator shafts, chimneys were elements with the same purposes. The western part of the facade, that is projected from the main body, is not parallel to the road but is parallel to the College across the street, thus simultaneously fragmenting its bulk and forming a secondary order in the urban context. The western part mediated the problem of continuity along the surf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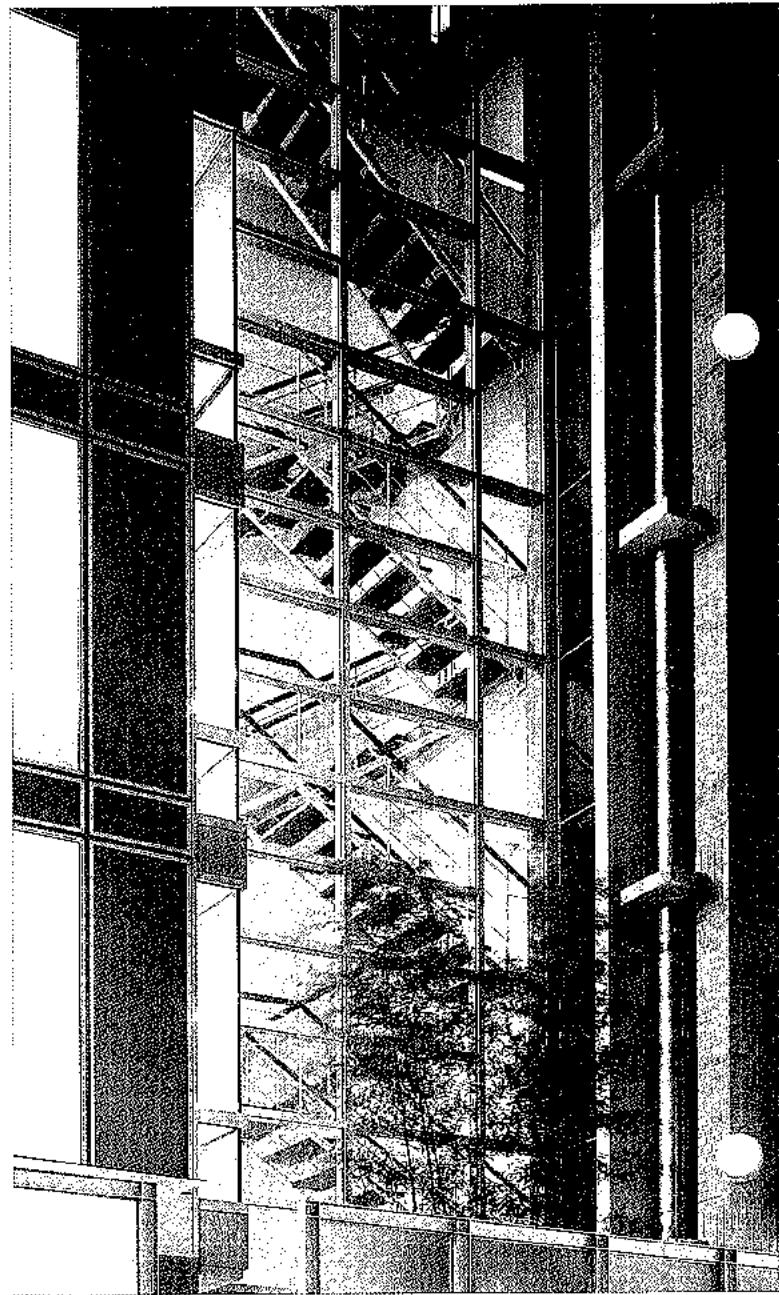
In the east, a pocket of 3.6m by 4.2m was set. Indeed it was small in area, but hopefully we wanted it to be expanded by the vertical staircase, connecting it with the stairway hall. This space could enable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 glass elevator and window of the conference room on the opposite side, as well as that between the stairway and the garden. Transparent glasses could overcome the separation of interior and exterior, show all the diverse activities, and present a sense of vitality. The plan to undclose along the vertical, horizontal circulation has always been one of my main objectives.

The diversity of surfaces and material also yielded the diversity in color and texture, which called for more experiments in their coordination. The waving roof punctuates the variety of its overall shape, and answers to the skyline of the context. Also, it internally raised the height on its top fl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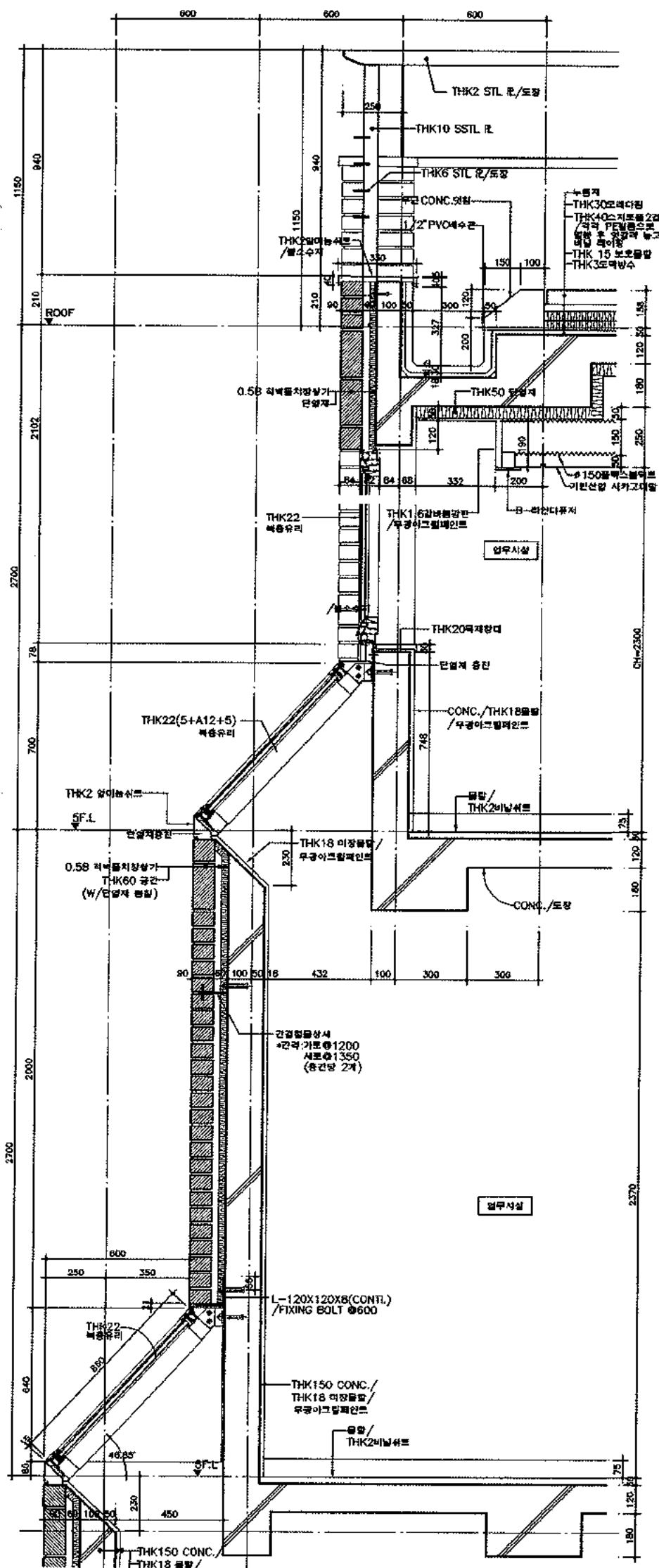
The height of each floors were only 2.7m, so no additional ceiling system was applied. The concrete girders and slabs were exposed, and so were the ducts for air-conditioning installments. They were an indoor canopy, functioning as an important element in the interior design. My original plans called for tightly controlled, correct to-the-millimeter construction skills, but I had to compromise with the current reality of the worker's methods.



전면 상부디테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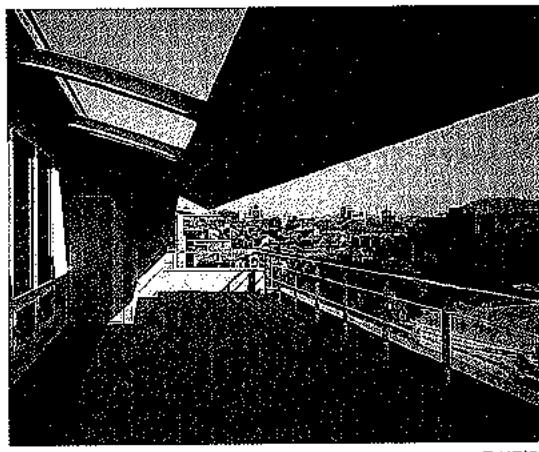


동측 계단실 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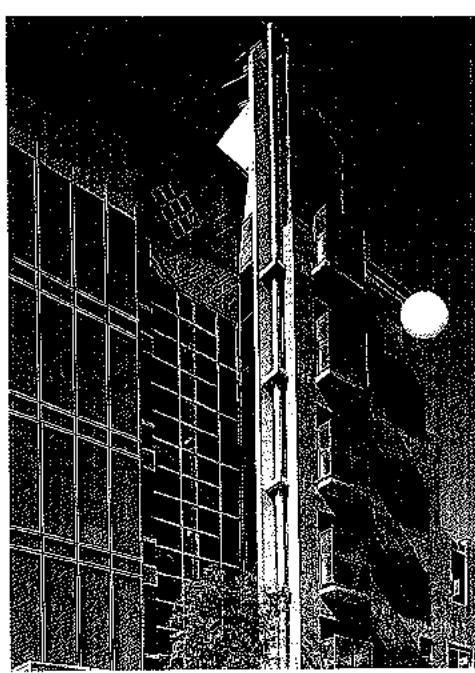




주출입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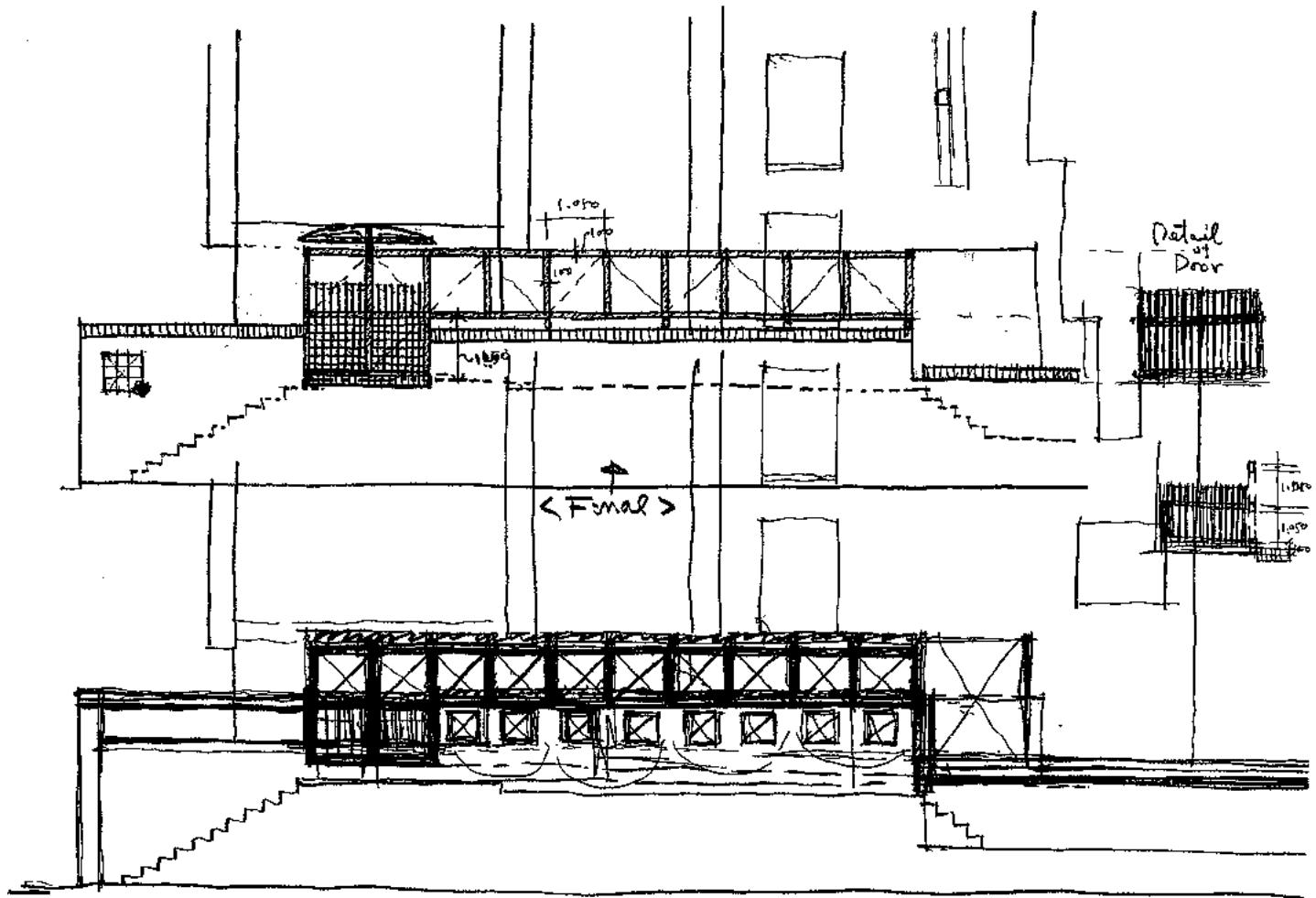
옥상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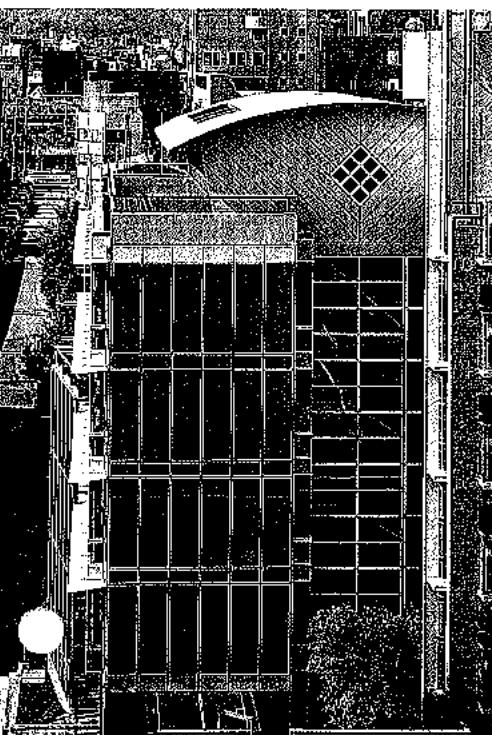
동측면 코아 디테일

남측정면 주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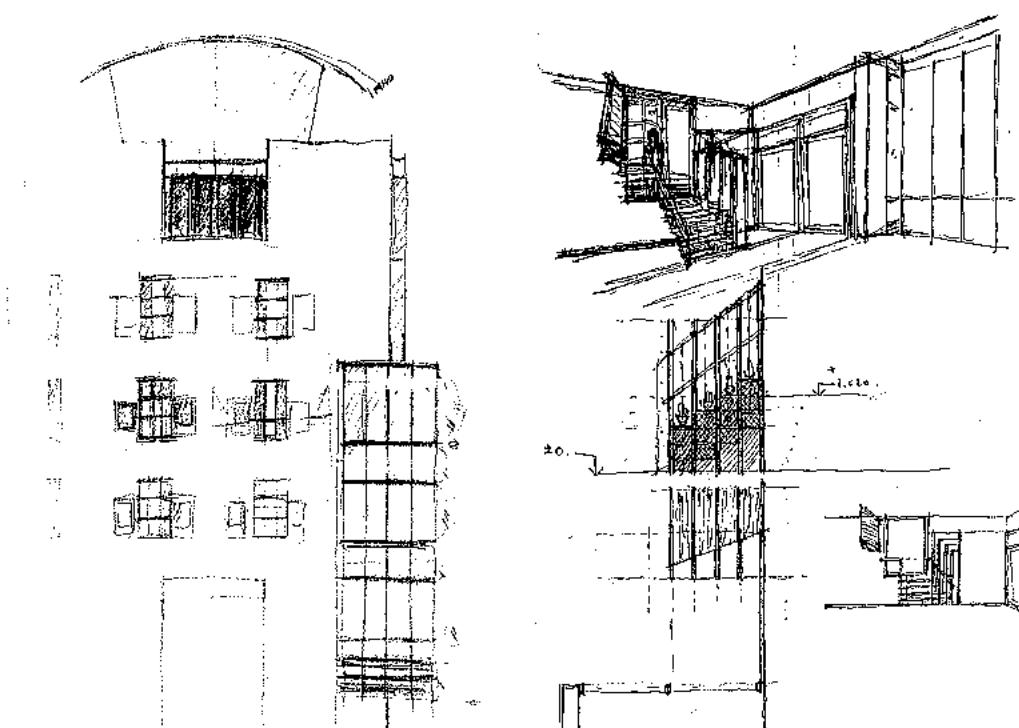




입면계획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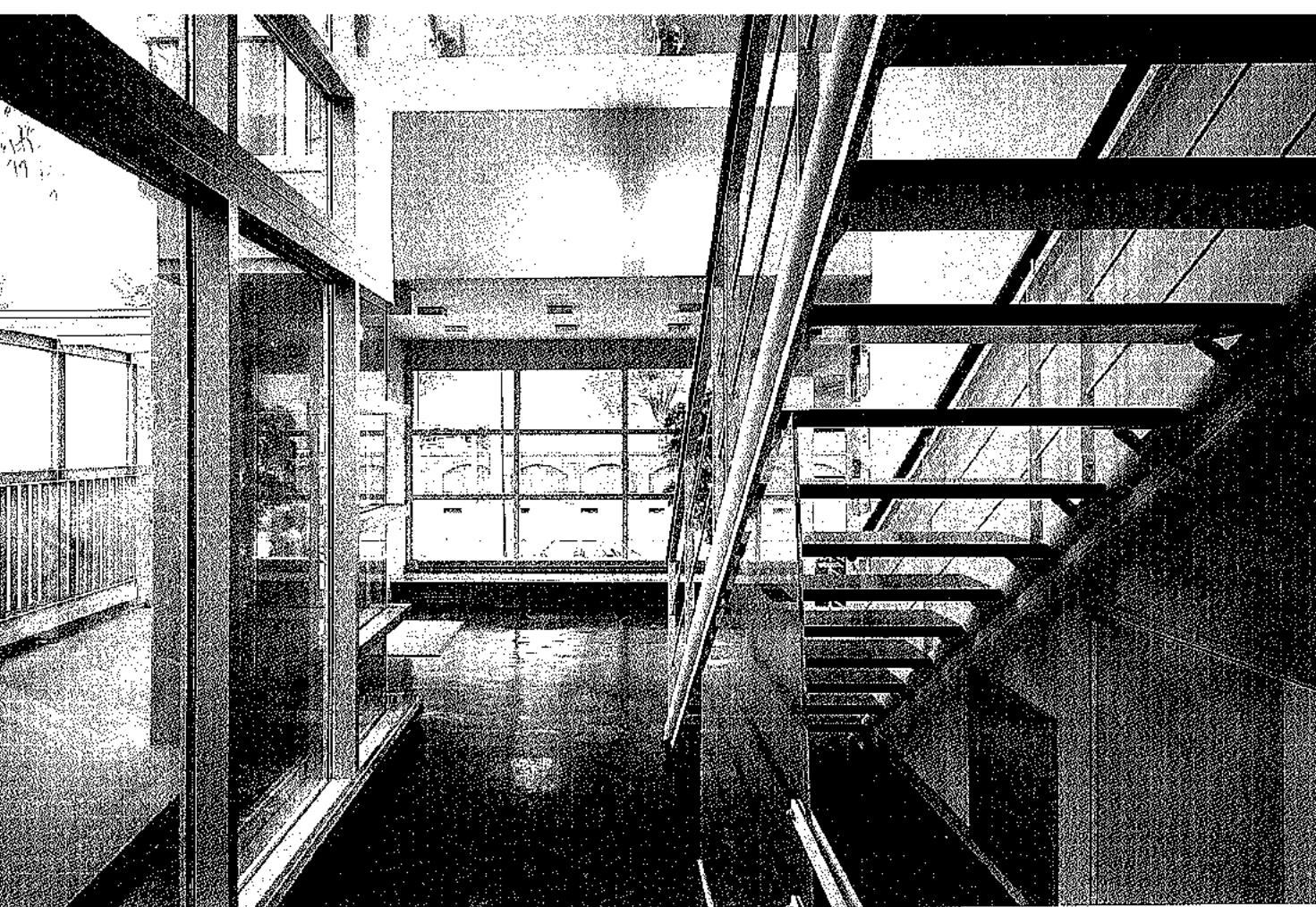


동측면 디테일



입면계획 스케치

1층계단 계획 스케치



1층 출



남측 창밖에서 본 실내이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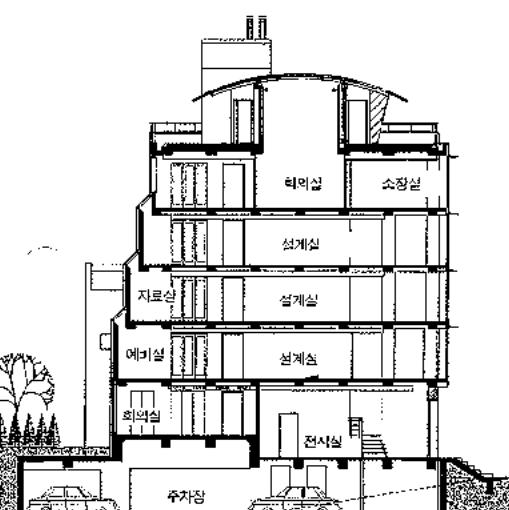
북측 정원에서 본 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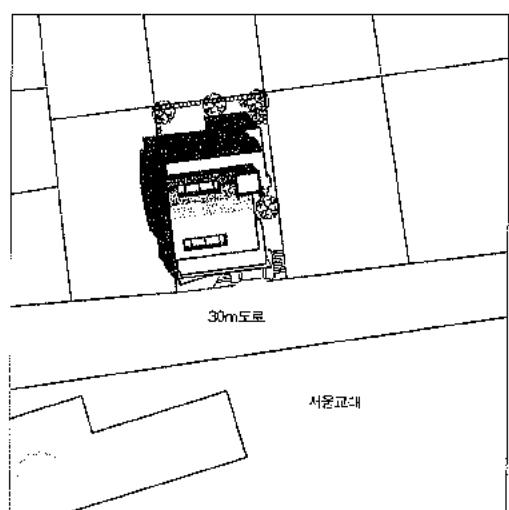
5층 회의실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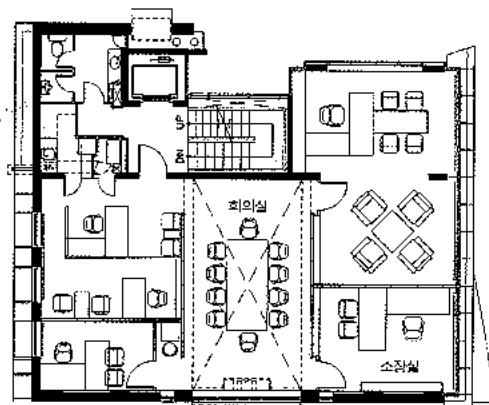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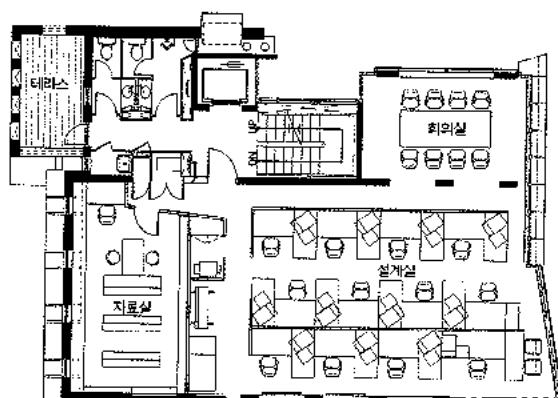


0 5 10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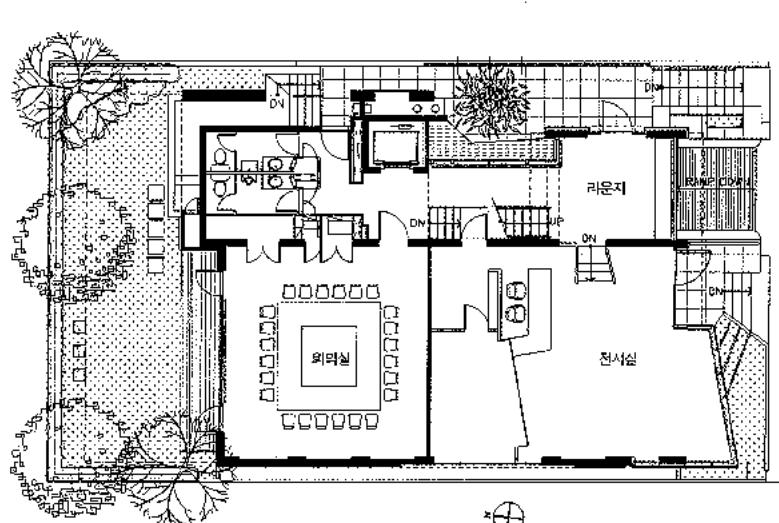
배치도



5층 평면도



3층 평면도



0 1 2 4 8

1층 평면도

건축적 엄밀함과 명료성
Architectural Precision and Clarity

대담자 / 정인하(한양대 건축학과 교수)
설계자 / 최관영(일간C&C건축사사무소)
Chung In-Ha & Choi Kwan-Young
일 시 / 1997. 10. 17. 19:00
장 소 / 일간C&C건축사사무소



대담환경(좌:정인하, 우:최관영)

정인하_____ 지금까지 계속해 온 작품들을 보면, 건물의 설계방법이 주로 매스의 다양한 분질과 세련된 입면분할, 그리고 강렬한 색채의 사용으로 특징지워지는 것 같은데, 스스로 생각하시는 주요 디자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관영_____ 첫번째 질문은 저의 모든 것을 묻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만 어떻게 이 모든것을 간추려서 잘 얘기해야할지 어렵군요. 의도적으로 그랬던것은 아닙니다만 객관적으로 그렇게 특징지어 진다고 보인다면 그렇다고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간으로서 한 개인의 내재된 생각이나 욕망, 또는 표출되는 표정이나 행위들이 단순하게 한가지로 표현되기 어려운 것처럼 하나의 건물도 본질적으로 다양한 요청에 의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외부적 요청들 또한 복합적인 경우가 통상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순응하는 플랜(Plan)을 자연스럽게 해 온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색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명쾌하고 단순한 매스(Mass)속에 다양한 요청들을 해결한 좋은 건축작품들에 대해서 깊이 감탄한 경우가 많고 매력을 느낀 적도 있습니다만, 제 취향과의 연관이 없진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수학에서도 다수로부터 추출되는 콤

비네이션(combination)을 찾아내는 작업이 좀 더 흥미롭고, 연주에서도 솔리스트(solist)의 연주보다는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더 좋아하고 오케스트라의 편성중에서도 좀 더 다양한 악기들로 편성되어 연주되는 음악, 즉 좀 더 컬러풀(colorful)한 음악을 좋아하는 것이 제 취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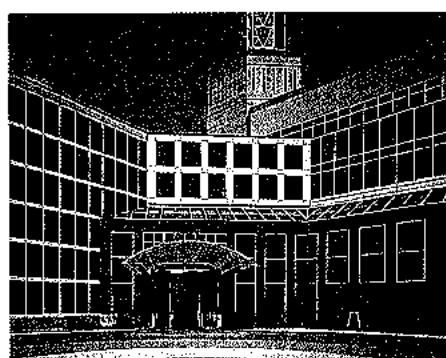
두세개의 매스들이나 두세가지의 컬러를 코디네이트(Coordinate)하는 것 보다는 여러개의 매스들이나 여러 가지의 컬러들을 코디네이트하는 것이 좀 더 어렵고, 그에 따른 성공적 결과가 더 큰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계를 할 때 본질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파악하려 하고 그것으로부터 나타나는 모든 사상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조화롭게 잘 코디네이트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저의 디자인 방법인데, 매스들과의 상호관계나 컬러들끼리의 조화는 모델이나 실험을 통해서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경험과 상상력에 크게 의존합니다.

정인하_____ 여기서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설계하시는 데 프로그램에 따른 설계유형을 가지고 계십니까?

최관영_____ 프로그램은 한정해서 이야기 하자면 설계상의 리콰이어먼트(Requirement)를 의미하는데,



일간사옥



설계 MBC



설계 MBC

기령 미술관의 예를 들면 건물 한 채가 미술관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다른 기능들과 함께 설계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경우 설계는 다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인하_____ 지금까지 설계한 건물 가운데 방송국이라는 특정한 프로그램을 많이 설계하신 것 같은데.

최관영_____ 그렇죠. 방송국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스튜디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오피스죠. 스튜디오는 창이 없고, 음향시설 등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이 따르고, 오피스는 일반적인 오피스 설계와 같죠. 그래서 방송국을 설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덩어리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표현하다 보면, 저절로 매스와 파사드가 결정되죠. 투명성이 더욱 강조될 부분은 더욱 강조되고, 그런 의미에서 프로그램을 이야기한 겁니다.

정인하_____ 여러 가지 것들을 코디네이트(Coordinate)한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래도 실제로 설계과정에서는 결정상의 위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관영_____ 그것은 설계과정에서 저절로 세워지죠. 위계는 크게 시각적인 것과 기능적인 것이 있는데, 결국 이들은 평면 구성에서 저절로 포괄되죠.

정인하_____ 최근에 설계한 대전 엑스포 국제관이나 SBS방송센터,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일간시사록에서 하이테크 건축의 영향이 깊게 나타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건축에서 테크놀러지는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관영_____ 저는 대전 EXPO 국제관이나 제 사옥에 하이테크의 영향이 나타났다고 말하기 보다는 건축에 응용될 수 있는 기술들을 폭넓게 고려해 본 결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사옥의 경우 하이테크라고 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대전EXPO의 경우는 EXPO 종료 후 철거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서, 짧은 기간에 완성할 수 있고 시공비도 저렴하고 나중에 철거하기가 용이한 구조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단지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하나의 박스(Box) 속에 포괄하여 묻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노출시켜서 디자인 요소들 중 하나로써 조직하고 조립하였던 것이 또 다른 실질적인 면에서의 유리한 점들이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느끼게 했던 것 같군요. 앞에서 약간 언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건축에 있어 기술이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디자인을 구사하는데 있어 생각의 폭을 한층 넓혀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인하_____ 하이테크 건축의 영향이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리처드 로저스와 협동하면서 나름대로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

최관영_____ 리처드 로저스를 파트너로 선택한 것은 사실 하이테크적이다 혹은 아니다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의 건축이 나에게 매력적이었던 것은 형태를 만드는 것이 상당히 명쾌하기 때문입니다. 부재들이 상당히 명료하게 분절되어 있죠. 그런 점들이 우리의 SBS 프로젝트와 잘 맞았다는 것이죠.

정인하_____ 테크놀러지가 생각의 폭을 넓혀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넓혀 줍니까?

최관영_____ 많이 넓혀 주죠. EXPO 국제관을 설계하는데 만일 내가 천막구조를 몰랐던지 아니면 그런 기술이 없었다면 아예 그런 종류의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캐노피를 설치할 때도 와이어에 텐션을 주어 만드는 기술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디자인의 방향을 설정하거나



EXPO 롯데관



EXPO 롯데관

나 형태를 구사하는데 선택의 폭이 다르죠. 그래서 기술을 안다는 것은 마치 단어를 많이 아는 사람과 조금밖에 모르는 사람이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정인하_____ 그렇다면 디자인하면서 기술적인 문제를 특별히 형태로 표현하려는 생각은 없겠군요?

최관영_____ 특별히 그런 생각을 가지지는 않고, 저절로 나타나는 거죠. 저절로 형태로 표현되는 거죠.

정인하_____ 사옥부지를 물색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존재했을 것 같은데, 굳이 이곳을 선택한 이유와 대지를 둘러싼 주변 여건이 건축설계에 미친 영향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최관영_____ 일년여 기간동안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았습니다만 적은 돈으로 가능한 마음에 드는 땅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지금의 대지를 보게 되었는데 남쪽으로 교대 운동장을 오픈스페이스로 접할 수 있는 조건이 마음에 들어 즉시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로변이 아니고 세컨더리로드(Secondary Road)에 접해 있어서 지기가 낫으면서도 전철환승역이 가까워 앞으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기에 편리한 점이 좋았지요.

그리고 대지의 주변 여건이 디자인(Design)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면의 오픈스페이스, 그리고 양측면은 조만간 새로운 건물이 지어질 것으로 예측되었고 뒤쪽으로는 주변이 주로 붉은 벽돌집으로 둘러싸여 있었던 것들이 공간구성과 표피의 질감, 색상 등의 개념화에 바로 영향을 준 것입니다.

정인하_____ 설계를 처음 시작하면서 특별히 생각했던 개념이나, 혹은 작품에 대한 영감 혹은 이미지는?

최관영_____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내적 요청들, 즉 건축설계사무소의 기능이란 너무나 절실히 알고 있는 바이며 주변 여건은 명백했기 때문에 전혀 번거로운 생각없이 처음 생각이 그대로 발전되어 지금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설정된 디자인 요소들을 적절히 결합하면서 내적 요청에 대한 만족도를 극대화하려니 디자인을 발전시키는데는 많은 어려움을 느꼈던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떠오른 어휘들은 스튜디오(Studio)와 오피스(Office)의 공존, 자연적 재료미와 인공적 재료미의 혼재, 막힘과 투명함, 계단·엘리베이터 등 체적한 수직 방향의 길, 연속과 결합에 따라 필요한 적절한 전이 매개체의 추출, 최대의 효율 등이었으며 이런 어휘들이 모두 포함되면서 상호 적절히 교류된 근사한 완결체를 상상했지요.

그리고 이 건물이 오랫동안 건축가의 작업장으로 존속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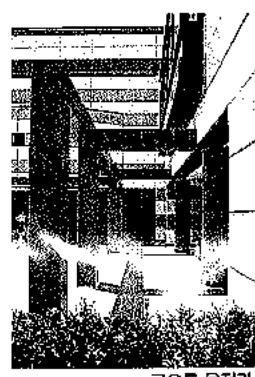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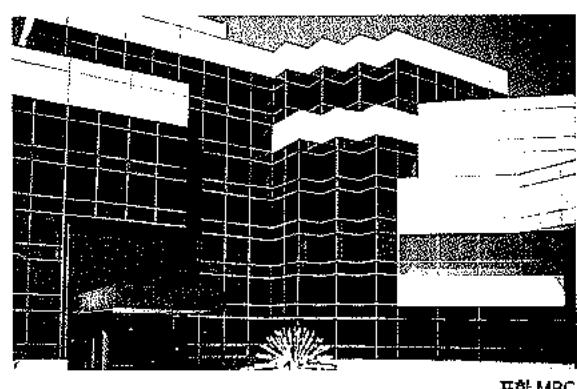
정인하_____ 건축가 자신의 사옥설계라 특별한 느낌을 가지고 이 작품에 임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설계나 시공과정에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몇 개 소개해 주십시오.

최관영_____ 특별한 느낌이 없을 수가 없지요. 이미 50대 후반에 들어선, 그리고 지금까지 약 30년간 건축설계활동을 한 건축가로서 자신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 대단한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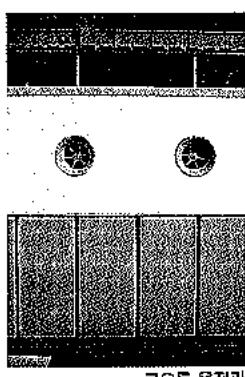
좋은 건축 작품이 마음먹는다고 반드시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자신의 손으로 설계한 자신의 집이 부끄럽지 않은 결과는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도 좀 있고 사건도 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코오롱 무정관



코오롱 우정관

절실히 체험했습니다. 지난번 사무실 환경이 워낙 열악했습니
다. 스페이스(Space)도 너무 모자랐으며 이웃 건물에까지 분
산되어 있었지요. 그 고충이 너무 커고 극도에 달해 있었기 때
문에 땅을 구입하자마자 하루라도 빨리 옮겨가고 싶어서 서둘
렀지요. 그래서 계획설계만 가지고 구조계산을 해서 하기를 받
고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골조는 빨리 몰라가고 있는데 실시
설계가 따라가지를 못하게 된것이지요. 할 수 없이 공사를 석달
동안 중단시키고 설계를 완성한 후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물론
아주 세밀함을 요하는 미감 상세들은 완공 때까지도 계속되었
습니다.

사무실 형편상 많은 사람을 투입할 수 도 없었
고 디자인의 결정이 늦어지니까 많은 사람을 투입할 필요도 없
었습니다. 둘봐야 할 다른 일들을 하며 혼자서 디자인 하려니
그렇게 되더군요. 그러나 그 뒤로는 공사가 잘 될것으로 기대했
는데 오히려 공사의 진척이 지지부진이었습니다. 모든 디테일
이 까다로워 현장에서는 늘 말썽이었으며 결국 만 2년이나 걸
려 완공되었습니다만 완공전에 옮겨와서 아직 보따리를 다 풀
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정인하 _____건축가가 자신의 사옥을 설계
할 경우, 설계 혹은 시공과정에서 자주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작품의 완성도를 높히려는 건축가
의 욕심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건물을 설계하면서 처음 가
정했던 프로그램이나 수용인원, 실의 기능이 나중에 와서 변경
되지는 않았습니까?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바뀌었습니
까?

최관영 이 경우는 조금 달랐다고 생각
됩니다. 완성도 때문에 설계변경을 한 경우보다는 주로 시공이
따라와 주질 못한 경우, 또는 골조의 부정확함 때문에 할 수 없
이 후속적으로 설계변경을 한 것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스케치해서 그려진 상세가 사실은 외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고 마음먹고 하면 안될것이 아닌데도 기능인들이
못해줍니다. 주로 정확성의 문제, 근본적으로 건축을 이해하지
않고 쉽게만 처리하려고 하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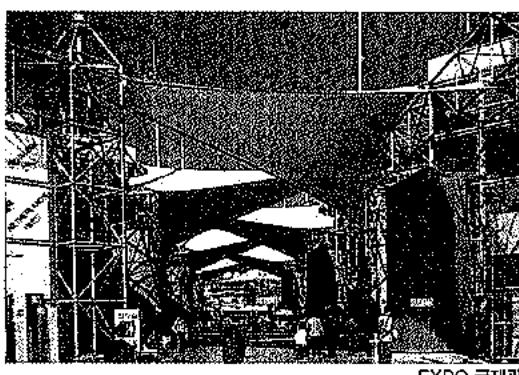
이 경우가 18년전 나 자신의 주택을 지어본 이
래 두번째인데, 정말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프로그램의 변경으
로 생긴 설계변경은 1층의 일부를 임대할 생각을 했다가 완성
된 후 다시 벽체를 헐게된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한개의 출입
문이면 되는것이 두개의 출입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출입문은 아간에만 쓰는 것으로 하고 헬(Hall) 스페이스는 주간
에는 라운지로 활용할 작정입니다.

정인하 _____건물재료가 벽돌과 철, 유리라
는 이질적인 재료로 구성되어 있어서 디자인하기가 쉽지 않았
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같은 선택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
까? 그리고 이를 재료들이 한 곳에서 만날 때 시각적으로 어색
해질 가능성이 많은데, 이것에 대한 디자인상의 특별한 대책은
없었습니까?

최관영 _____앞에서 이미 언급한거나 마찬
가지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만나는 점이 많을 수록
디자인이나 디테일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설정된 개념이
비범직하다면 애써 연구해서 해결하는 수 밖에 없지요.

정인하 _____엘레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각 층의 내부가 엘레베이터 내부에서 바라보여서 기분이
좋습니다. 엘레베이터실에 창을 낸 것은 물론 백화점이나 대형
오피스에서는 흔하지만 소형 사무실건물에서는 드문 예라고 생
각합니다. 이렇게 설계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최관영 _____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엘리베
이터속에서 외부를 내다볼 수 있고 밖에서도 들여다 볼 수 있다
는 것은 모두 활동상의 시각적 경험을 풍부하게 할 뿐 아니라
수직 방향의 길도 쾌적하게 하고 싶었던 것이며 저는 가능하면



EXPO 국제관



평형동 주택

다른 경우도 이렇게 설계하고자 합니다. 사실 엘리베이터가 콘크리트 박스 속에서 움직인다는 것은 고정 관념이 아닐까요?

정인하_____ 도로에서 건물입구로 올라가면 좁은 공간에 대나무와 연못으로 된 정원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조경계획을 하면서 특별히 의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최관영_____ 대지의 법적 조건을 보면 전면 도로에서의 사선제한과 북쪽으로의 일조권에 대한 사선제한 때문에 미당이 북쪽 즉, 뒤에만 생기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부와 수직동선 주변에 최소한의 외부 공간을 만들어 수직동선과 접하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대나무를 심은 것은 자연물의 도입 의도이며 작은 넓이에 높이 둘린 공간이기 때문에 적절한 수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인하_____ 건물 뒤쪽에서 보면 건물마스 가 층이 높아질수록 건물안쪽으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법규적용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또한 이쪽 벽에 디자인된 창의 형태도 특이합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서 뒷쪽 벽면의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최관영_____ 이것은 바로 일조권에 관한 법 규 때문입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만, 법을 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의해서 디자인 아이디어를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천정창을 만들어 내부의 북쪽 부분의 채광을 효과적으로 했고 그 천정창과 최소한의 벽면 시창을 결합하다 보니 이런 창 패턴이 된 것입니다.

정인하_____ 최선생님의 건축에는 원색들이 대담하게 사용되었습니다. 1986년에 설계한 코오롱 우정관, 1990년대 초에 지은 해천빌딩과 조일빌딩 그리고 지방에 지은

다수의 방송국건물이 특히 그랬습니다. 우선 건축물에서의 색채의 사용에 대한 최선생님의 견해를 파악해 주시고, 이 작품에서 다양한 색채를 사용하시면서 특별히 고려했던 점은 무엇입니까?

최관영_____ 건물의 색채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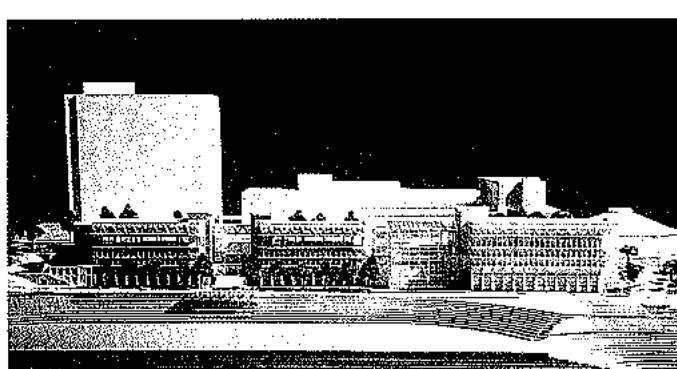
건물의 색채가 반드시 어여해야 한다는 규정 같은 것은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흔히들 건물은 중성적 색상어야 하는 것처럼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가지 색이 든 혹은 원색이든 간에 그 상황에 적합하여 건물자체내의 상호 컬러 코디네이션(Color Coordination)만 잘 되어 결과적으로 아름답게만 보여진다면 어떤 색상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건물도 이 세상에 놓여있는 하나의 물체에 불과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색상끼리의 코디네이션이란 이론적 원칙이 있고 거기에 더하여 경험과 실험을 통해서 구사능력을 키울 수 밖에 없지요.

정인하_____ 제가 생각하기에는 색채를 사용하는데 도시적 맥락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건축가들은 너무 자기 건물의 색채만 강조하여 도시의 분위기를 망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관영_____ 물론이죠. 색채를 사용하는데 도시적 맥락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죠. 그렇지만 이 건물의 경우 도시적 맥락이라고 그러면 너무 범위가 크고, 적어도 이 근처 주변 그 정도는 고려를 해야 하죠. 그렇지만 구미에 지은 코오롱 우정관의 경우 그것은 오히려 내가 도전적으로 한 것이죠. 당시 건물 주변은 전부 슬레이트 지붕으로 해서 오히려 이 건물을 통해 강한 색채를 넣어서 주변을 밝게 해 주었으면 했죠. 또 그 건물이 공단의 초입에 위치해서 그래서 의도적으로 주위와 조화하기보다는 원색을 집어 넣었죠.



신월(진행동)



국민대(진행중)

정인하_____ 건물의 최상부층은 그 형태, 공간, 디테일 처리에 있어서 매우 특이합니다. 먼저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된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의 외벽에 쓰인 디테일에서 어떤 효과를 기대했습니까? 또 소장실과 비서실 사이에 공간은 폭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처리되었는데, 여기에는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까?

최관영_____ 법규적으로 면적은 제한되어 있었으나, 사선제한의 범위 내에서 불륨을 취한 것은 가능했기 때문에 높은 고장을 통한 채광이 가능한 흘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흘에서 높은 벽은 화면을 비출 수 있는 스크린으로 대용할 수 있어 프리젠테이션 룸으로 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형태적인 측면에서는 전체 매스의 최상부를 적절하고 자연스럽게 마무리짓는 구성의 부분으로 디자인했는데, 행여 이질적이고 유리된 부분으로 보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배제하기 위하여 재료나 패턴, 컬러 등에 대해서 신경을 썼습니다. 특히 스테인레스 조인트의 사용은 하부의 금속성 요소들에서 느껴지는 질감의 연속성을 위해 고려된 디테일입니다.

정인하_____ 이것은 작품하고는 관계없는 데요. 사무실 직원이 20~30명 되나요?

최관영_____ 45명 내외입니다.

정인하_____ 규모가 좀 어중간한 것 같은데요.

최관영_____ 지금 인원이 한계에 온 것 같아요. 나는 군대를 ROTC로 갔다 왔는데, 거기서 최소단위 조직이 분대인원으로 10여명 되고, 그 위에 중간단계로 반이라고 하는 20명 단위의 조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소대가 있죠. 한 사람이 직접 지휘할 수 있는 인원이 그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한계에 왔다는 것은 정동영 소장과 내가 한 번씩 맡았을

때 지금의 인원이라는 것이죠. 만일 사무실 규모를 키우려면 정소장과 같은 역할을 맡을 사람이 영입이 되던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승진이 되던지 해야겠지요.

정인하_____ 현재 사무실에서 디자인 결정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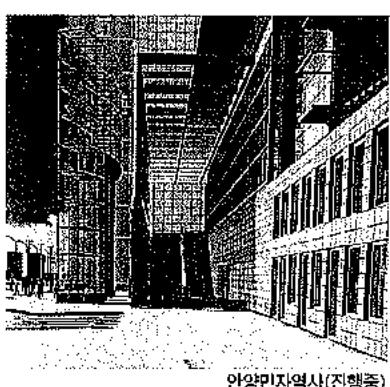
최관영_____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방향을 잡기 힘들거나 특수한 프로젝트는 아예 내가 대충 컨셉을 만들어서 그것을 풀어오라고 해요. 그 과정에서 대화를 하면서 점점 발전시키죠. 또 다른 하나는 쉬운 것은 그냥 실무자들에게 말기고, 시간이 지난 후 그것을 가지고 오면 내가 칼질을 하고 방향이 잘못되었으면 다시 하도록 하죠.

정인하_____ 이 건물은 그러면 어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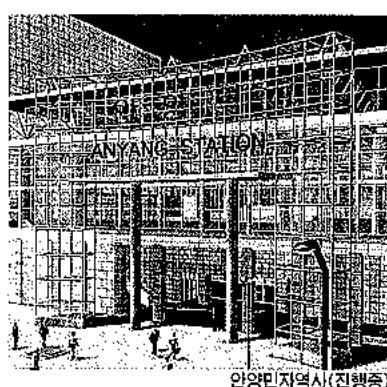
최관영_____ 이 건물은 내가 직접 했죠. 잠에서 남는 시간에 했죠. 사무실에서는 너무 많은 로드가 걸리니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디자인 과정이 저녁에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직원들은 그냥 내가 스케치한 것을 도면화 시켰죠.

정인하_____ 끝으로 이 작품이 지금까지의 작품활동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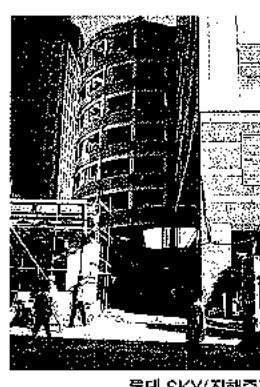
최관영_____ 다른 데서도 여러가지 실험을 했지만 여기서도 크고 작은 새로운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성공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새롭게 적용할 생각입니다.



안양민자역사(진행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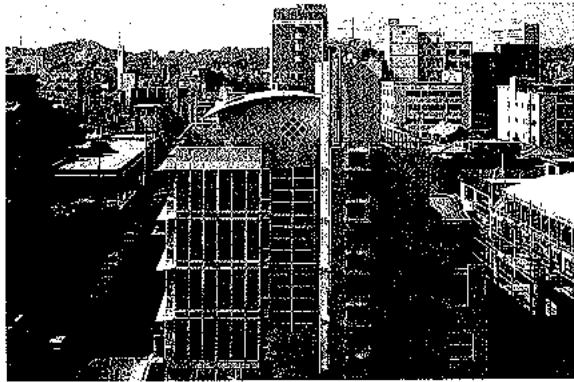
안양민자역사(진행중)



롯데 SKY(진행중)

피질(皮質)

The Cortices

박길룡 / 국민대 건축학과 교수
by Park Kil-Yong

일건사옥 전경

한 건축가가 자신의 전용 사무소 빌딩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이 된다. 그것은 마치 건축주가 구겨서 건네주는 것이 아닌, 순백의 종이 한 장을 작가가 마련하고 스스로 그리기 시작하는 일이다. 거기에는 건축주의 물이 해도, 커뮤니케이션의 한계도 벗어나는 아주 자유로운 임의성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거기에서 작가의 자의성을 좀더 여유 있게 읽으려 하는 것도 그러하다. 비록 투자에 대한 압박은 여기에서도 불가피할지 모르나, 그의 건축경제를 듣게 될지 모른다. 거기에서 그 건축가의 건축생산에 대한 이해를 아는 것도 엔지니어링이 건축 생산 문제까지도 스스로 장악하여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은 한 건축가가 사고하고, 말하여 온 개념의 아주 신빙성이 깊은 현현(顯現)을 볼 수 있게 할 것이다. 최관영은 한국 건축계에서도 자기 개념을 말할 수 있는 많지 않은 작가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그는 실무에서 뿐만 아니라, 건축교육에도 출강하며, 한국건축기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역할과 언로도 넓은 건축가이다. 그래서 이 사옥의 크리틱은 그의 생각부터 읽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다.

50대 중반의 건축가로서 최관영 역시 초기에는 모더니즘에 경도되어 있으며 표현보다도 현실적 합리성에 젖어 있었다. 그의 조형은 후기에 들어 점차 억양이 강하여지고, 정서를 깊이 개입시켰다. 그러한 특질을 모든 건축에 통하는 일관성으로 읽기는 어렵지만, 아마 이 사옥은 가장 적확한 그의 건축 개념의 단면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집체적인 구조에 있는 사무소에서 생산되는 디자인 경향이 모호하기 쉬운 개연성에 의해 (일건 C&C)의 디자인은 그 나름대로 개별성이 비교적 분명하다. 그것은 아마 적절한 조직 규모와 대표 건축가의 성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 대표 건축가의 카리스마가 사무소의 디자인을 지배하기도 하지만, (일건 C&C)의 디자인을 이끄는 최관영과 정동명의 듀오 체계도 이 독자성의 이해에 유효할 것이다. 기술적 해결과 미세(微細) 디자인을 놓치지 않고 결부시키는 능력도 (일건 C&C) 디자인의 질량을 높이는 주요한 인자

가 된다. (일건 C&C)의 건축은 금속성의 감성만큼이나 차가운 큰길 타워(1993), 서울방송(SBS) 등촌동 공기홀(1993)이 있었으며, 신정동 여성의원(1996)에서는 밝고도 풍부한 정서도 보았다. 사실상 그 동안 일건건축의 디자인은 어떤 향성(恒性)으로 기능하기 어렵다. 대신 장소와 조건에 충실했던 경우마다의 의사가 더 중요할 것이다.

이 사옥은 비슷한 시기에 설계된 신정동 여성의원과 비슷한 플롯으로 보인다. 전체의 스케일에서 대지가 비슷하며, 조형의 구문법도 그러하다. 다만 의원건축이 작은 셀 단위들이 구축된 결과인데 비해, 이 사무소 건축의 공간은 덜 활발하다. 이 건축이 있는 동네는 새 서울의 일상성이다. 주택지로 도시계획된 서초동은 점차 소형 사무소와 도시의 서비스 기능으로 전이되어 간다. 아직도 몇 척의 주택이 버티고 있지만 그의 존립은 오래지 못할 것이다. ‘불법 주차 견인’의 경고가 보이며 벌써 재건축이 벌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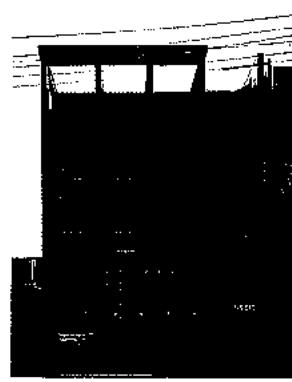
대지가 갖는 아주 큰 행운은 그 전면을 건너 학교 운동장으로 경관을 트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전면의 트임은 앞으로 주변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꾀 지속가능한 요인이다. 대지의 폭을 14m로 하는 제한된 전면 폭에 대해 깊이가 있는 대지이다. 정면은 햇빛이 밝은 남향이다. 이 정면에는 지하 주차장의 램프와 그의 머리 높이를 해결하기 위해 슬레브가 들어올려져야 하고, 현관과 점포의 레벨이 몇 개의 계단 위에 설정됨을 불가피하게 한다. 아니 이러한 지반층 전면의 복잡한 요소들은 불가피한 것이기보다는 지하 공간의 체적 효용을 위한 것이다. 지반층에 상업이 들게 될 것이고, 그 이상 층의 사무소 공간과 최상층의 임원실로 구성되는, 비교적 단순한 프로그램이다. 사실상 사용자인 설계 종사자의 공간은 생산성뿐만 아니라 프라이드를 위한 기대가 투영될 수 있다. 설계사무소의 공간은 그 프로그램 자체가 일반 사무실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은 공공 영역에서보다도 거주 영역에서 특화를 의도한다. 특히 한 조직이 갖는 내·외의 지적 교류와 보유하고 싶은 생활문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이 이 사옥의 건강한 프로그



큰길타워



SBS 등촌동 공개홀



신정동 여성의원

램이다.

좁은 측면의 접근로를 따라 들어가면 대나무 가 있는 포켓이 형성된다. 비록 이 공간의 체적은 충분한 것이 아니지만, 투명한 계단실과 엘리베이터가 위요하는 형국이므로 정감이 있는 공간이다. 이 투명성의 효용은 상층부까지 계 속되며, 밤에도 아름다운 집을 만든다. 전체적으로 공간 체적 이 당장 긴박한 파제가 되면서, 한 건축사무소의 공간적 실험 이 벌어지리라는 기대는 접어두어야 한다. 접근공간과 공용공 간은 일반적인 빌딩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인색한 정도이다. 소규모 빌딩의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공적 영역의 스트레스는 더욱 심하다. 특히 이 건축은 전용 사무소의 용도이기 때문에 공공의 접속을 크게 기대하지 않는 이유로 이해된다.

간접의 내역에 비해 이 건축은 외관의 수사 (修辭)가 매우 활발하다. 외관을 이루는 구성에서 두 개의 측 면은 내부의 내용과 안전 대지의 관계 때문에 개연적으로 달라 진다. 사선제한의 조건에 따라 뒷마당이 생기며 점층적으로 삭 감되는 후면이 접어 올라간다. 그리고 아주 밝은 투명성으로 파사드의 개별성이 강조된다. 그리고 그것은 재료의 혼성과 함께 조형되므로 훨씬 구성적이게 되었다. 파사드 마저 다른 두 가지 색조의 유리가 구사된다. 후면의 재료는 배후의 건축들이 벽돌조의 주변 주택의 색조와 동조하기 위한 것이라 하지만, 어차피 그 주택들은 앞으로 오래 지속 가능한 것들이 아니다. 오히려 전면의 명징한 금속과 유리에 대립적 효과로 보인다. 여기에 (일간 C&C) 디자인의 요체가 있다. 그들은 건축의 요 인들을 가급적 처음부터 나눠 놓고 다시 모은다. 차기운 명징 성과 축축한 질감, 최대한 가볍고 싶은 내·외부의 디테일들과 메시, 날카롭지만 이완적 요인을 함께 둔다. 하나의 중요한 단 서가 있어서 이것이 어떤 일관성을 따라 변용 되는 것은 아 니다. 어눌한 조형의 슴씨로서는 효과있게 결과될 수 없는 것이며, 요소마다의 정성이 필요하다. 파사드에서도 기준층의 평면 적 내용으로 보면 하나로 통합될 수 있던 구성을 크게 3분하고 있다. 그 분할은, 작기는 공간의 방향을 틀기 위한 의도로 말하

지만, 어떤 원칙으로써 보다도 미적 쾌감을 위한 구성적 구도 이다. 이러한 혼성은 자칫 수다스럽다고 보여지기도 한다. 이 렇게 건축적 수사에 깊이 집착하는 것은 몇 가지 관점에 연유 된다. 우선은 표제(表題)로써 분명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위 해서이다. 한 건축의 독특한 수사는 그 동네에 활기를 북돋게 할 것임을 의식한다. 특히 주변이 어눌할 경우 더욱 빛난다.

도시의 파사드는 가로의 장치일 수도 있고, 여 백을 포함한 공간일 수도 있다. 마침 이 건축이 있는 가로는 간 선을 벗어나 있어, 그렇게 강력한 도시성을 요구하는 위치는 아니다. 대신 6층의 높이는 그렇게 만만한 높이는 아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파사드의 분할법은 시각적으로 유효하다.

건축의 조형을 이루는 것은 여전히 구법, 공간, 형상이다. 언제부터인가 현대건축은 이들 요인을 분해하기 시작하였다. 다시 말해 구조는 조형자체보다도 공간적 체적을 위한 수단으로 물려선다. 공간과 형태의 일의성을 기대하기 보다는 그 양자가 내연성과 외연성을 따로 책임지기 때문에 독립 적이다. 자연히 형태는 수사에 기울어진다. 이러한 문화의 현 상이, 의사를 다채롭게 하는 가치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 도시의 경관을 피질(皮質)의 연속으로 만들기도 한다. 전체의 조형에서 분리되어 덧대어진 파사드는 확실히 조형의 일의성을 보장하게 한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피질이다.

디자인이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로 이해하고자 하면 요소들의 비통합적 수단이 더 확실하여진다. 우선 평면의 조닝이 구조를 따르게 하였을 것이고, 입체화된 건물의 윤곽을 얻는다. 이 윤곽에 옷을 입히는데, 그것은 달거나 걸치는 것이다. 재료의 선택이 훨씬 자유로워지는 것은 더 이상 재료가 구 법이나 공간법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유로움 이란 사실상 르꼬르뷔지에의 도미노 스클론 이후 큰 전전은 아니다. 그리고 보면 모더니즘 이후 건축은 단지 수사만이 좀 더 화려하여 졌을 뿐이다. 그것이 고딕과 르네상스 이후에 더 진화된 것인가.

어차피 도시건축의 개체들이 도시의 연속적

파사드를 이룬다. 건강한 도시문화의 표지이면서, 환경적으로 주변이 주목할만한 동기를 주는 것이 도시건축의 사회성이다. 이 건축이 있을 동네는 어떤 건축적 캔택스트의 단서도 찾기

It is intriguing to see an office building designed by an architect for his own use. There are no pack of requests from the client; it is a condition of tabula rasa completely left to the choices of the architect himself. It can avoid the tiresome process of communication with the owner. Instead, he is left with enormous amount of freedom. This is why it is correct to comprehend an architect through the work where he is himself the client. Economical concerns still exist, only to provide a chance to understand the architect's strategy on the economics and production of architecture. It could be said that it is a work where the architect's thoughts and concepts are most correctly reified.

Choi Kwan-Young is one of those few Korean architects who has a voice and a concept of his own. As an active practicing architect also participating in architecture education and various social events of the Korean Institute of Architects, he is well considered an architect of depth. This essay on the Il-Gun C&C Office begins with the insight on architect Choi's concepts and ideas.

Choi, now in his mid 50s, from his early days, just like everyone else, was preoccupied in Modernism and valued realistic logics over personal expressions. But later he put more and more emphasis on forms which mirrored his need to express himself. This cannot be seen as a constant feature of his complete works, but this office, where he is the client, clearly shows a section of his current architectural thoughts.

Whereas the usual design works from architectural firms show ambiguities and scant probabilities, the ones by Il-Gun C&C relatively present crisp individual qualities. This may be due to the proper size of the firm's organization and the character of the head architect. In some firms, the charismatic taste of the head architect rules over the whole work; However, the two executives of Il-Gun C&C - Choi Kwan-Young and Chung Dong-Myung do not. This, along with their technological approach and

어려운 무조의 경관 속에 있다. 그래서 동네는 이 건축을 가질 수 있었던 행운을 알며, 건축이 주변에 파급시킬 도시건축 조형의 빛나는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

the specific care for details, form the overall quality of the firm's works and projects. The metal cold KunGil Tower(1993) and SBS DungChon Open Hall(1993), the bright and endearing ShinJung Woman's Clinic(1996) are results of their faithful design in accordance with specific site condi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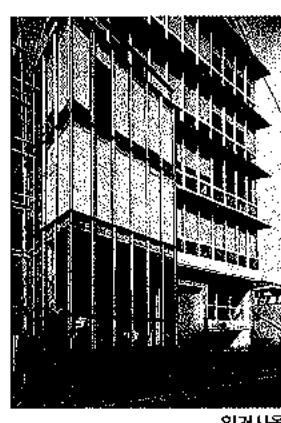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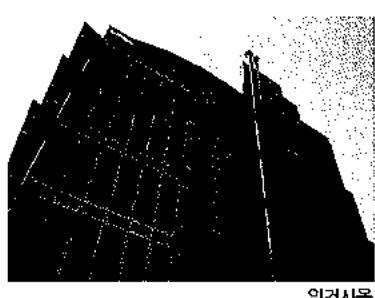
The Il-Gun C&C Office contains a similar plot to the ShinJung Woman's Clinic, which was design in almost the same period. The overall scale, the site, the architectural vocabularies all share resemblance in them. But whereas the Clinic is composed of little shell units, the spaces of this Office are more dynamic. The site is where the banality of the new Seoul can be found. Initially conceived as a housing area, it gradually made accommodations for small offices and urban service facilities. A few existing housings will soon be replaced by these non-housing functions.

The site is gifted with the view towards the field of a nearby college that is unlikely to be ruined by any redevelopments. The site is narrow and long, 14 meters in width, with its front, connected to the road, directly facing the south.

This front contains the ramp going down to the underground parking spaces, the slab that has to be uplifted for the automobiles to pass under, and the entrance to the building and the ground floor's shop. This enables the efficient use of the underground spaces.

The program is rather simple: The ground floor stores a shop, and the above are the offices spaces, with the exception of the top floor which is reserved as the closet for firm employees. The spaces for the employees do not merely concern function; they are reflections of their self-esteem. This is especially true in the private spaces, since every collective has an intellectual way of communication and a living culture of their own. These are the 'healthy' parts of the office.

A narrow approaching road to the office links to a pocket of bamboos. This area is far from



spacious, but enclosed by the transparent staircase and the elevator, it presents a certain warmth. This transparency connects itself all the way to the top, and it glamourizes the building especially at night.

For an office, any kind of office, the primary concern is to acquire as much office space as possible. It is not an area where experimental plays of spaces can be expected. The entrance and the public spaces are truly scanty. Since it is a small office building, constraints fall even harder upon the composition of spaces.

These shortage of public spaces is compensated by the ornate rhetorics of the exterior. The two sides of the exterior inevitably differs from each other owing to their diverse content and the neighboring site condition. The limitations from the road forms a garden at the rear and derives the set-back of volumes on the top of the building. A bright transparency emphasizes the individuality of the facades. They are all the more compositional since its effect is further enhanced by the different uses of materials. Two distinct colors of windows also separate the parts of the facade.

The materials used on the rear side could be interpreted as corresponding to the adjacent red-brick housings, but one should think further that the housings will not be there for long. It is rather to present a sharp contrast with the front's steel and glass. This is where the striking characteristic of the design of the Il-Gun C&C can be found. They fragmentize the elements of architecture from the beginning, and then reconstruct them. Cold lucidity, damp materiality, the detailing and masses deprived of weight as they possibly can are all coexisting in their works. This requires specific care for each elements. Any unskilled attempts to order these diversities are bound to end up in an uneasy design.

Looking at the main plans, the facade could have been one big plane. Instead, they are devide into three parts. This breakup can be read as the architects intention to rotate the orientation of spaces, but it is actually aims for aesthetic ends. These mixture, to one's disappointment, sometimes fall into incongruousness.

These obsessive attachment to rhetorics can be viewed from a few stance. First of all, it is a gesture to form its own sense of identity. A characteristic rhetorics

of an architecture can cheer up the whole neighboring town, especially the ones with a dark atmosphere.

The facades of the city are either instruments of the boulevards or blank spaces.

The site of this offices is slightly distanced from the main road, so it is not where a strong urbanic context is required. But the total floor of 6 are not a small scale of a building. The divided facade is effective in this sense. The form of architecture are composed of structure, space, and figure.

Contemporary architecture has begun fragmentizing these elements. In other words, strucuture has retreated from actively composing a form to simply building spatial volumes. Space and form do not meld into a single entity. They separately reify the connotations and denotations of architecture. The form, as a result, relies on rhetorics. These fragmentation can bear fruit in the layering of meanings, but ultimately convert the facade of the city into a succession of cort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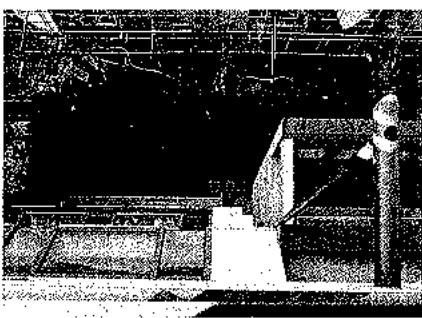
The 'attached' layer of facade can provide enormous freedom in its composition, but, at the end, nothing but a cortex.

If we understand the process of designing, the ununified method of fragmentizing becomes more evident. The zoning of plan sets the structure, which in turn forms the three dimensional volume of the building. The clothing of this volume follows. It is clothing: To add, to cover. The freedom of choice in materials comes from its independance from structure and sp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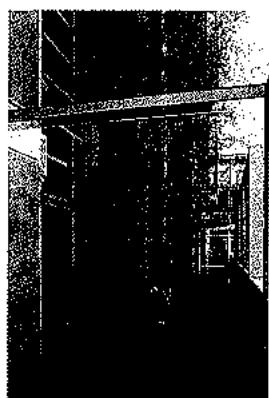
This so-called freedom is not so much different from that stated by Le Corbusier, with his Dom-Ino skeleton, at the early 20th century. Architecture after Modernism, has only been furnished with a more graceful rhetoric. Can it be affirmed, without doubt, that this is an advance from the Gothic and Renaissance architecture?

The individual buildings collectively form the facade of the city. They present the healthy culture of the city. It is socially active as it provides a focal point to its surrounding environment.

The office of Il-Gun C&C is located in the absence of any architectural context. The town is fortunate to have such an architecture. May it mark the beginning of the town's transition to a beautiful form of urban architecture.



일건사옥



일건사옥



일건사옥

진리의 등대 - 성복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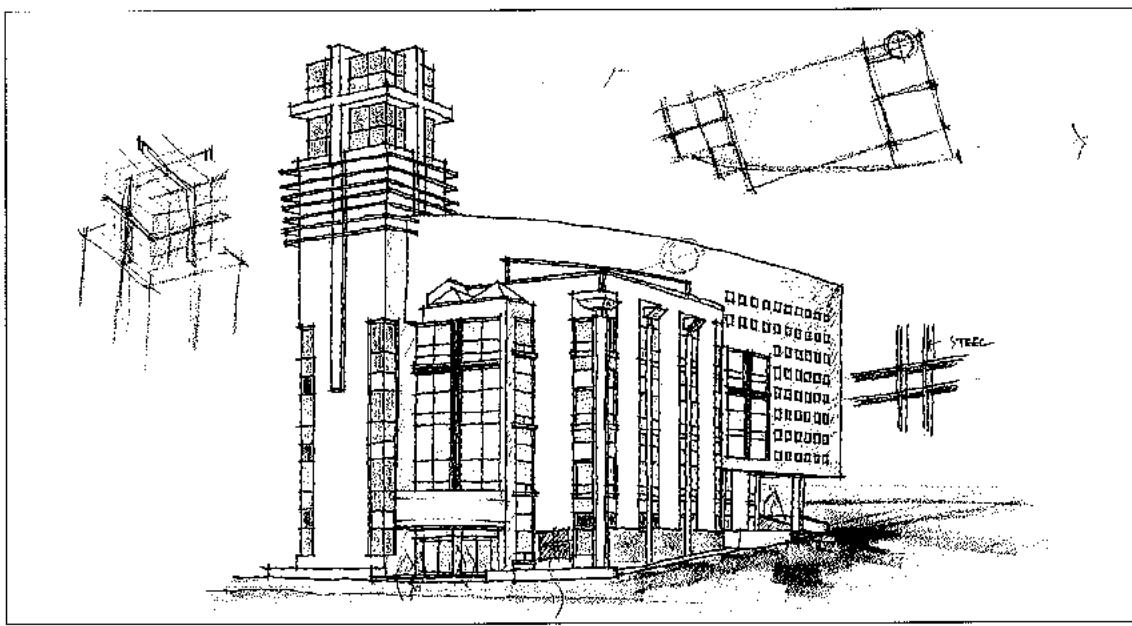
Lighthouse of Truth - Sungbok Church

이성인 / (주)삼익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by Yi Sung-In

성복교회는 필자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예배당이다. 약 15년전에 지어진 현재의 낡은 건물을 헐어내고 주변의 부지를 추가매입하여 현재의 프로젝트를 계획하기로 결정하였다. 예배당 건축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기계화되고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서 좀더 자연과 친화되고, 부드럽고, 전원적인 예배공간을 늘 생각하고 있었지만 적절한 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현재 위치에 그대로 건축키로 결정되었다. 사실 필자는 이 프로젝트를 맡지 않으려고 평소 노력(?)했었다. 그 이유는 나 자신이 디자인한 작품속에서 내가 생활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자신감 없게 하

고 두렵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언제나 최선을 다해 작업을 하지만 그 작품이 완성되고 나면 늘 후회스럽고 창피하게 생각되고 자신의 부족함을 원망하게 되는 나의 버릇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도 그 어느 것 하나 내 작품이라고 자신있게 소개하지 못한다.

성복교회를 디자인 하기로 결심하고 새로 건축될 이 프로젝트에 대한 교회지도자들의 생각을 물어보았을 때 필자의 생각과는 너무나 이질된 고정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들이 추천하는 경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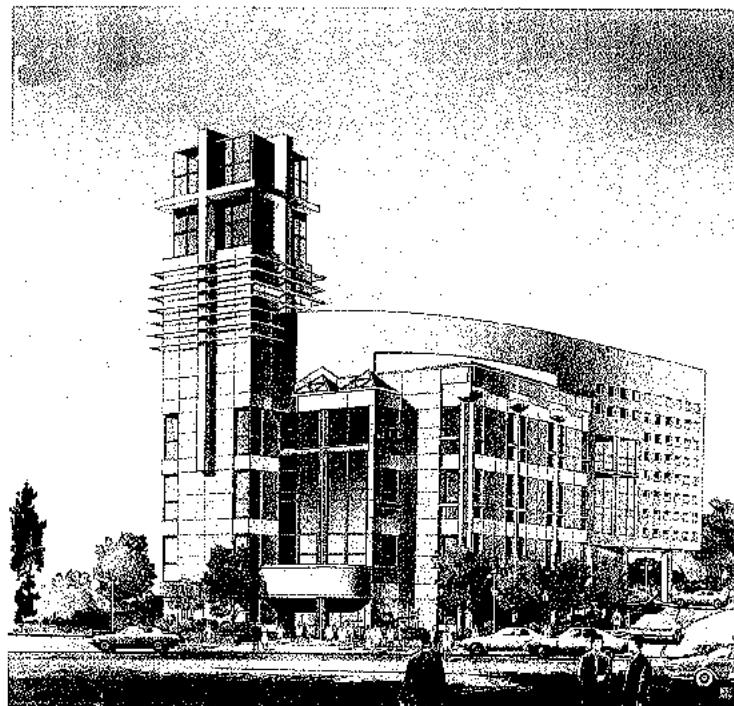
스케치

○○시에 있는 신축 모 교회당을 답사해 보았을 때 나는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다. 온통 외장은 대리석을 갈기로 뒤덮여 번들거리고 있었고 디자인 개념은 찾아 볼 수도 없는 웅장하고, 뾰족 지붕과 장식적인 삼각형 조각물로 뒤덮인, 엄청난 시공비를 자랑하는 전형적인 변종된 한국형 고딕스티일(?) 그 자체였다. 교회는 높게 지어야 하고 종탑은 뾰족지붕으로 그 위에는 붉은 네온 십자가가 빛나야 하며, 창문은 아치(Arch)창문으로 대리석이나 붉은 벽돌로 외장을 꾸며 자태를 뽐내며 기단한 자나 억눌린 자들에게는 쳐다보기도 힘든 그런 모습들이 한국교회의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의 기대를 보기 좋게 짓밟고 있었다.

교회지도자들의 이런 생각들을 비꾸기 위해 무척 긴 시간 동안 노력해야 했다. 교회건축에 관한 책자들을 구입하여 선물하고, 외국의 사례들을 잔뜩 들고가 소개하고, 국내의 의식있는 건축가들의 작품을 보여주면서 조금씩 조금씩 투쟁(?) 해 나갔다.

이 프로젝트 건축주의 요구조건은 몇가지로 대별되었다. 작은 부지지만 대예배실은 450석 이상 계획되어야 하며 각 그룹별 집회장소가 충분히 계획되어야 하고 친교실, 식당, 주방, 소예배실 등 각종 예배와 친교를 위한 공간이 필요하며, 충분히 옥외 주차공간을 확보하되 기계식 주차장은 지양한다는 것. 소규모 교회지만 면적활용에 최대한의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는 것 등 꽤나 어려운 요구사항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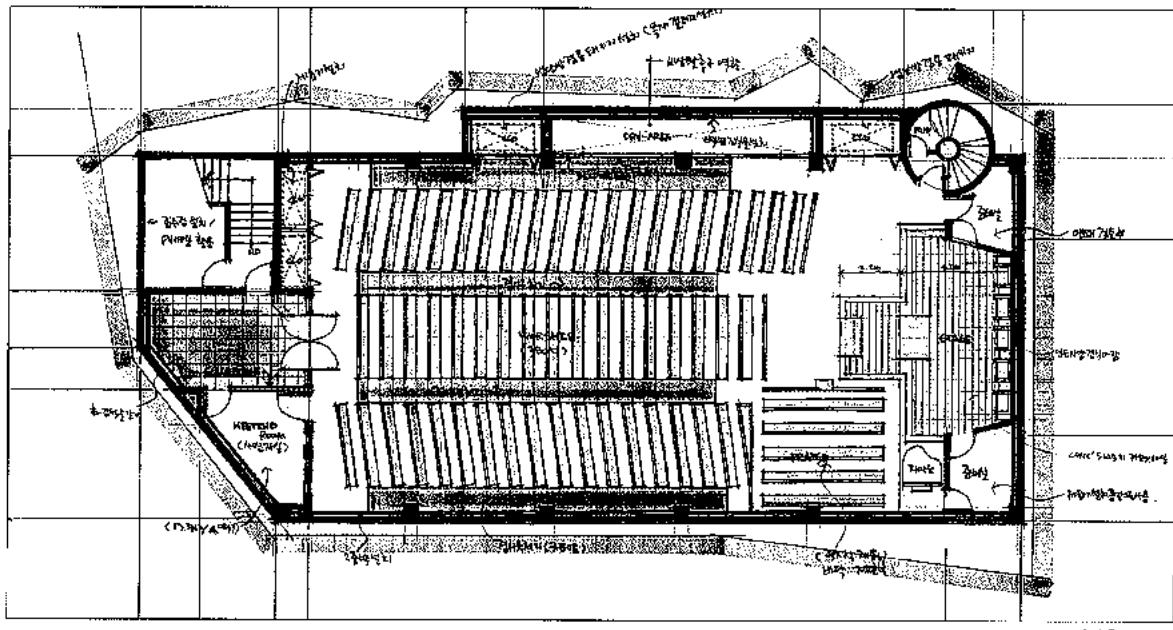
작은 부지에 450석 이상의 대예배실을 계획하기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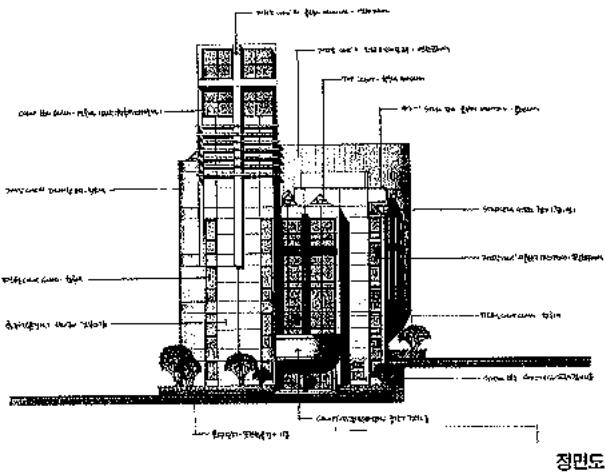
무시도

서는 지하층 예배실을 구성하여 중층 형식의 예배실을 계획해야만 했다. 고대 로마시대의 카타콤을 생각하면서 지하예배당의 문제점인 습기문제, 환기, 체광, 지하로서의 침울한 분위기 등을 해결하려 노력했다. 그래서 체광을 위해 전체 층고를 8.4m로 하여 중층을 지상1층으로 계획하여 주출입구에서 바로 중층으로 진입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이나 장애자들을 위한 좌석으로 구성하고 체광, 환기 등도 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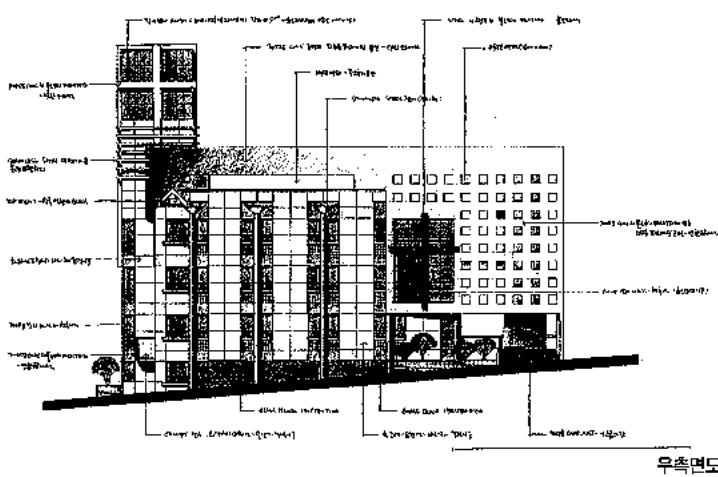
지하층 드라이 에리어(Dry-Area)를 크고 넓게 구성하되 지하층 바닥까지 거대한 유리로 처리하여 지하층으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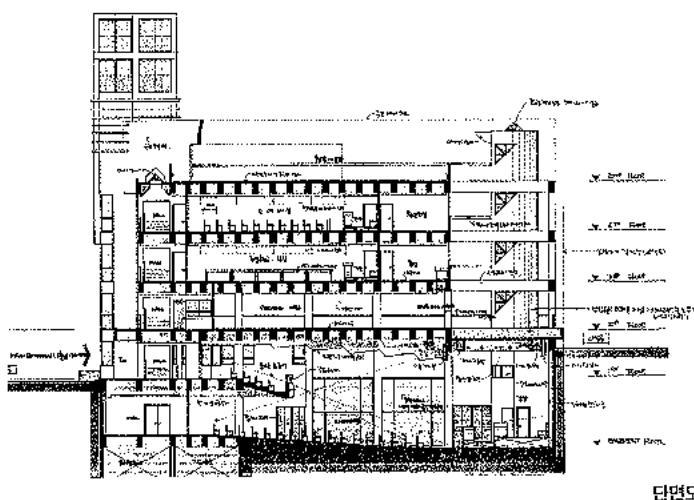
지하층 예배실



정면도



우측면도



단면도

연체광되며 빗물도 그 바닥까지 떨어지도록 하므로써 지하층의 이미지를 바꾸려 했다. 특히 그 창문내부 드라이에리어 벽면에 대형 벽면 장식물을 설치하여 종교적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지상2층은 대지의 경사를 이용하여 가장 높은 도로면에서 진입하는 주차공간을 형성하므로써 2층 바닥과 옥외 마당공간을 일체화하여 전체를 주차장으로 계획하였다. 3, 4층은 식당, 교육시설, 소예배실, 각종 소그룹실 등을 계획하고 옥상은 조경시설과 함께 옥외예배공간, 휴게공간 등으로 사용도록 했다.

예배를 인도하는 설교자, 기도자, 찬양대의 동선과 신도들의 출입동선을 구분하여 강단옆에 원형 오픈(Open) 계단으로 예배인도자 통선을 유도하여 그 계단으로 진입하는 예배인도자들을 예배를 준비하는 신도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외관은 단순하고 명쾌하면서도 상징성을 부여하려 했다.

최대한의 면적활용을 위해 사각형의 평면을 구상하면서 큰 원의 평면요소를 도입하여 서로 결합되는 구성을 시도했다. 특히 종탑 부분은 등대의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인생의 어두운 항해 속에서 교회는 등대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표현하려 했다. 그래서 4개의 십자가가 서로 결속된 형태의 여백부분을 유리(Glass)로 처리하여 밤에는 십자가 주변의 유리에 불이 밝혀지므로써 십자가 형상이 네가티브(Negative)로 표현되도록 하였다.

예배당은 소박해야 한다. 그리고 겸손해야 한다. 그러면 서도 종교적인 엄숙함, 경건함이깃들어 있어야 한다. 이 프로젝트를 계획하면서 건축가 '안도 다다오'의 몇 개의 교회작품이 자꾸 떠올랐다. 돌마루공소도 자꾸 나의 머리속에 맴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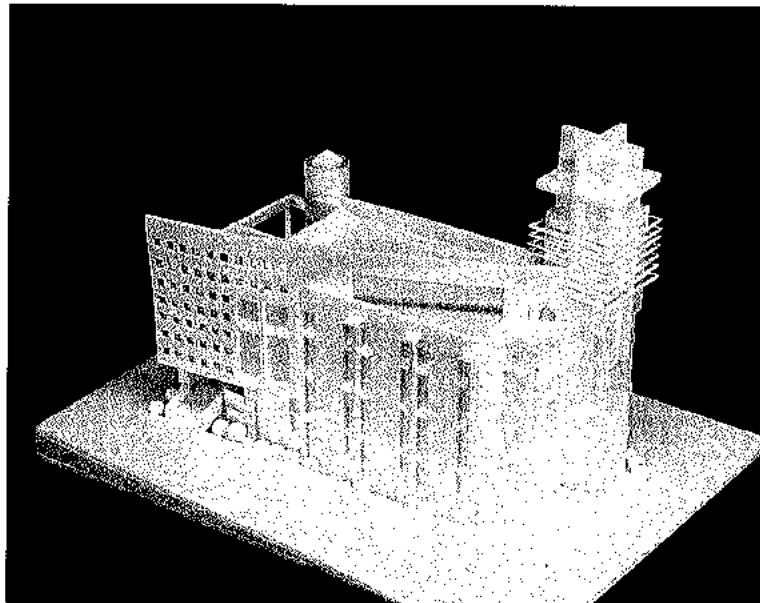
긴 시간동안 건축주를 달래고 자료도 제공하고, 설명하고, 공감(?)도 치고, 고집도 부리면서 의식 바꾸기에 노력하면서 현재의 프로젝트를 완성하게 되었다.

현재의 프로젝트가 완공되고나면 나는 또한번 의식 바꾸기에 시간을 투자하려 한다. 그것은 다른아닌 이 교회를 지역사회,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자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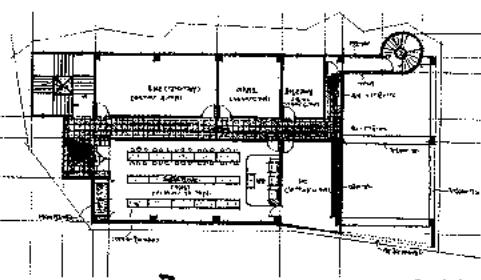
평일의 주차장 개방, 무료 결혼식장소 대여, 언극·영화공연, 노인대학 개설, 주민 휴식공간 제공 등을 고집해 보려한다.

그것들이 현대교회가 해야 할 진정한 선교사업이고 교회를 건축하는 이유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건축가는 먼저 인간을 사랑하는 휴머니스트가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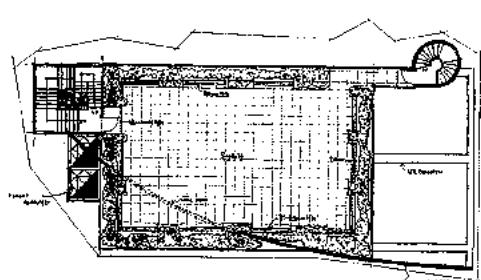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진구 당감동 663-5번지 일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553.39m ² (167.4평)
건축면적	320.67m ² (97.0평)
연 면 적	1,539.06m ² (465.57평)
건 폐 율	57.9%
용 적 률	199.96%
구 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층 수	지하2층, 지상4층
최고높이	29.0m
외부마감	화강석(문경석) 벼너구이 + 드라이비트(연한 갈색) + 컬러복층유리(청록색) + 유리블록
내부마감	드라이비트 + 짙은 벽돌 + 목재리브판 + 석고 보드 위 파라이팅
설계담당	김성래, 홍협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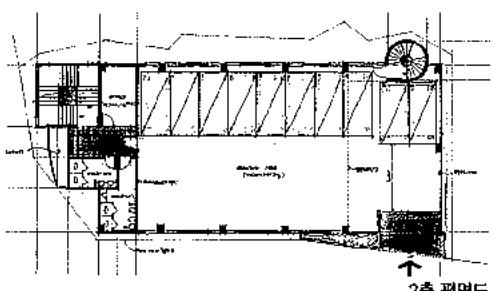
모형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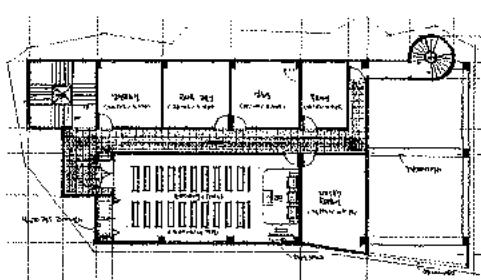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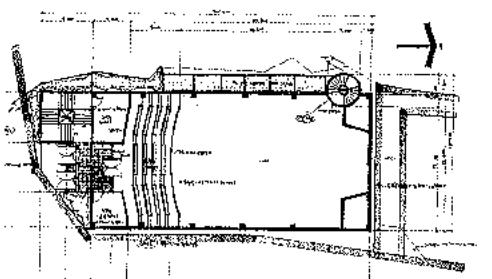
지붕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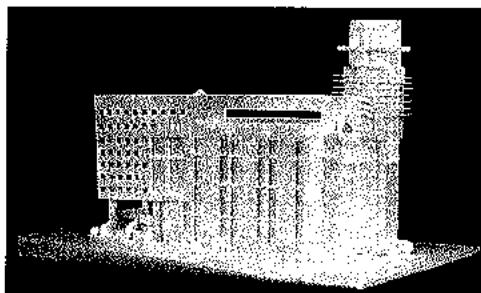
2층 평면도



4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모형도 2

한국의 건축가 10 – 배기형(2)

Korean Architect, Bae Gi-Hyeong

그의 작품세계(1)

원정수 / 인하대 건축학과 교수

한국근대건축역사 자료로서 정확하고 객관성있는 사실을 기록하기 위하여 증인들의 체험담을 토대로 정리하였다. 특히, 배기형 선생의 초기 활동 내용과 건축가상은 함성권(전 한양대 교수), 장기수(현 부산동인건축)씨와 신건축문화연구소 시절부터 10년간 재직한 김철서(현 협회건축)소장, 그리고 함성권 교수의 구조담당 조수로서 배기형의 건축작품활동상을 기끼이 서 지켜본 주경재(현 건국대)교수, 실습생으로 신건축문화연구소 시절과 1959년 군제대후 구조사 복직 근무한 최영규(현 인하대) 교수의 생생한 증언을 토대로 정리하였다.

후기의 활동상은 현 구조사 대표 윤홍갑 소장과 그 당시 근무했던 이종배(현 인하대)교수, 이문섭(현 인하대)교수가, 그리고 1970년대 구조사를 윤소장에 물려주고 난 뒤의 활동상은 김석철(현 아기반), 방수일(현 범일건축)소장의 증언을 토대로 하였다. 보다 객관성있는 기록을 위해서 각 증인들은 자신의 기억이 불투명한 경우 당시에 관련되었던 또 다른 증인을 찾아서 확 인하는 성의를 보여주는 등 사실에 충실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었다. (필자 주)

시대적 상황

◇ 연재 목 차 ◇

(제재월)

1. 이희태 (9503~9505)
2. 김정수 (9506~9508)
3. 김수근 (9509~9512)
4. 정인국 (9601~9605)
5. 박길룡 (9607~9608)
6. 박동진 (9609)
7. 강 윤 (9610~9612)
8. 이천승 (9701~9702)
9. 김중업 (9703~9707)
10. 배기형 (9710~9801)

1. 건축가 배기형에 관한 기록과 자료
2. 그의 작품세계(1)
3. 그의 작품세계(2)
4. 증인들의 증언



한국건축가협회 제1회 정기총회를 마치고(1966. 2. 15. 앞줄 모른쪽에서 세 번째가 배기형선생, 6대회장 역임(68~'70))

피난갔던 수도가 서울로 환도하면서 처참했던 전쟁의 상처로 잿더미가 된 전국의 도시와 마을, 그리고 공장과 도로등 각종 건설이 시작되면서부터로 이시기부터 건축가들의 일손이 바빠지게 된다.

특히, 건축가 배기형의 건축설계 활동이 활기를 띠게되면서 그가 많은 이들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공장건설에 기본이 되는 철골구조물의 설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에 가장 두드러졌기 때문이었다.

이는 마치 영국의 처칠 수상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시 국가 위기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이를 극복해내는 정치적 역할을 발휘했던 것처럼 또, 19세기 유럽에서 일어났던 산업혁명으로 인한 근대건축의 새로운 구조와 공간을 역사상 최초로 대형 철골 구조로 해결했던 영국의 건축가 조 팩스턴(1851년 런던 수정궁 설계)과 파리의 에펠(1889년 에펠탑 설계)처럼, 배기형의 건축설계의 내용은 한국 최초로 해결되어지는 건축구조와 건축기술문제가 특이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것은 바로 한국 근대건축의 역사적 상황과 배기형의 건축이 서로 시기적절히 맞아 떨어지는 가운데 그의 기량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었고, 건축가의 창작 및 연구심의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역사적 상황이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되는 시점과 6.25전쟁의 상처가 전국토를 파괴하여, 마치 전국토가 건설용지의 빈 택지가 되어진 셈이었으며, 근대건축역사의 핵심이었던 철과 시멘트와 유리로 설계되어지는 공업중심의 건축과 도시를 만들어야 하는 절박한 역사가 펼쳐진 때 배기형의 건축이 등장하면서 국가 경제기반인 산업시설이 원활히 움직이는데 크게 기여하게 된다.

작품 활동의 진화과정

• 구조사 건축기술연구소 창립

그의 건축인생을 청년, 장년, 노년기로 나누어 말



동료건축가와 함께(앞줄 오른쪽에서 첫번째가 배기형 선생)

할 수 있듯이 그의 건축작품이 성장, 진화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의 이력에 나와있듯이 1953년 인천의 대한중공업 공장을 설계할 당시는 건축가 배기형이 한국건축계에 등장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전환점이라고 보아야 한다.

1953년을 기점으로하여 그 이전을 건축교육 및 건축전문 기량을 다지는 수련, 성장과정이라 했을 때 이시기는 사회 활동의 기반을 다지는 도약단계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초기 전반에 활동했던 그의 건축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구하기는 불가능해, 그의 구체적인 건축활동을 재조명하고 돌아켜 볼 수가 없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다만 부산공업고등학교의 후배이며, 문하생인 장기수(부산 동인건축) 소장이 소장하고 있는 도면 가운데, 해방전 일본의 나시지마 건축사무소에서 그렸던, 만주 인산 제철소를 출장다니면서 설계한 광식 싸이로 구조의 설계도를 보고 크게 감명받았던 기억을 생생하게 전해준다.

해방후 일본에서 귀국하였으나, 설계활동의 여건이 어려웠던 시기여서 1946년 구조사건축기술연구소를 개설하고 도 설계에 전념할 수 만은 없었고, 당시 교우관계로 인연이 되어 건설사업을 겸한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정도였으며, 부산의 자갈치 시장이 있는 곳에 부산대학교 임시 교사를 설계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 인천 대한중공업 공장 설계

본격적인 건축설계 활동이 시작되는 것은 1953년 인천의 대한중공업 공장을 설계하면서 본격적으로 전개되는데 이 과정을 함성권 교수의 정년기념 논문집, 회고문(p.32)에서 인용하여 본다.

“(전략)… 인천 제철의 전신인 대한중공업공사의 평로공장건물의 설계는 당초 건축가 김태식 선생이 엄덕문씨의 구조계산으로 설계가 일단 완료된 것인데 뒤에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어 당시 당시 전무였던 아금학과(冶金學科)출신의 대학동창의 요청으로 본인(함교수)이 당시의 족탁으로 임명받고 설계도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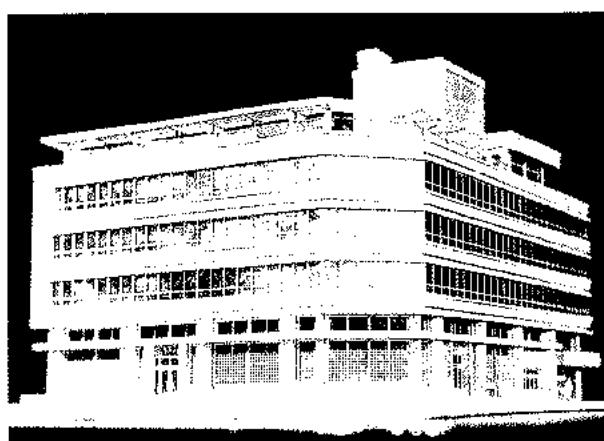
설계실에서 사무소원과 함께

시하기로 되었습니다. …(중략)… 이 공장건물 자체가 80톤, 50톤, 20톤의 2단 천정 주행 크레인을 가진 높이 25m의 단층 중구조물이리라는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중략)… 우리나라의 이 방면의 인력을 규합하여 설계를 진행하기로하고 설립하지 않게 전 설계관계자도 새로운 설계에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아래의 설계멤버는 구조담당의 본인과 김창집 교수외에 고 정인국 대학선배를 비롯하여 배기형, 김태식, 엄덕문의 제시였으며, 서로가 진력한 끝에 설계가 원만히 끝나고 …(중략)… 무사히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멤버들은 이 설계를 계기로 종로 1가의 장안빌딩에 신건축문화연구소라는 합동설계실을 마련하여 그후 많은 작품활동을 하였고, 당시 오늘날의 협회건축의 김창서씨와 본인의 사위 주경재 교수, 인하대의 원정수 교수 등의 내조의 공이 컸습니다. …(후략)

위의 함성권 교수 회고록 증언에서 밝혀졌듯이 배기형은 우수한 건축설계 기량이 부각되면서 많은 공장건축설계를 의뢰받게 되는데, 그 가운데 삼성이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한 기폭제가 된 부산의 제일제당 공장과 대구의 제일모직 공장의 종합계획과 설계를 성공적으로 완성하므로써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의 굳은 신임을 받게되어 탄탄한 설계활동 기반을 다지게 된다.

제일제당 공장설계의 성공적인 실적으로 1955년 동양제당, 용산공장 설계의 요청을 받는 기회가 열리게 되는데, 당시 주먹구구식의 설계도로 건설하던 제당 공장 구조와 생산시설들이 서로 맞지않아 어려움을 겪던중, 배기형의 재설계로 완공되어지게 된다.

당시 설계비의 보상조건은 먼저 임터리로 건설했던 건축비와 재설계로 건설된 건축비가 절약된 차액만큼을 설계비로 보상받기로 하였던 바 그 차액이 실제로 일반 설계비 산정 비율 액수보다 고액이어서 동양제과측은 정당한 건축설계에 대한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된 것은 물론 건축가 배기형의 건축설계에 대한 신뢰가 두터워지게 되어 심지어 개집까지 설계를 의뢰 받는 웃지 않을 수 없는 일까지도 있었다.



현대은행을 지도지점 초기모형(사진속의 외관과는 달리 현재는 개조 변형되었다.)

• 신건축 문화연구소

인천의 대한중공업 공장 설계로 인하여 탄생되어진 건축가 김회춘, 정인국, 엄덕문, 배기형, 김창집, 함성권 등 여섯명이 모여 1954년 종로 1가 장안빌딩 3층(건물현존)에 자리잡는다.

사무실은 제도판 10여개를 놓고 소파와 사무경리 책상을 겨우 들어놓을 정도로 비좁은 공간이었으며, 주로 김회춘, 정인국, 엄덕문, 배기형 등 네명의 건축가의 제도판과 상임설계 요원인 이재영, 김창서(현 협회건축), 김진균(재 캐나다) 그리고 각대학 건축과 실습생들의 제도판으로 채워진 곳에서 여러 가지 설계작업이 진행되었다.

그중 대학교수를 겸직하지 않고 언제나 제도판에 몰두하고 있는 건축가는 배기형뿐이어서 실제로 신건축문화연구소 합동설계실은 배기형과 김창서, 김진균 그리고 필자로 구성된 구조사 기구의 설계업무가 주류를 이루는 분위기였다고 생각된다.

삼성계열의 공장설계로부터 주택에 이르는 거래, 업무 그리고 단성사 김인득(후 한국건업회장)사장의 거래로 주류를 이루며, 바쁜시간에 끊기는 설계작업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당시 여러 건축가가 모여었던 장안빌딩 3층 사무실은 기라성 같은 건축가들의 발길이 찾아 한국 건축계의 판도와 움직임을 가늠해 볼 수 있을 정도였다.

모임은 밤늦게까지 밤문화를 꽂피게하고, 건축가들의 낭만이 넘쳤다.

건축가의 꿈을 안고, 작도에 몰두하는 나의 귀청에는 원로건축가들의 밤문화 무용담을 엿듣는 수련까지 겸할 수 있었던 것이 큰 수확이었다고 느낀다.

여기서 한국건축가협회가 태동하는 발기 토론도 있었고, 한국건축발전을 위한 접담과 대화가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이런 분위기에 휘말리는 배기형의 건축세계는 철골 구조의 기술과 설계의 탄탄한 실력 뿐만 아니라 건축가의 저력을 첨가하게 되는 건축문화와 사회를 이끌어갈 힘을 갖게 되는 기회였다고 본다.

• 구조사 명의로 환원

1956년 장안빌딩 화재로 말미암아 합동사무실은 해산하여 구조사의 명칭으로 환원되어 을지로, 종무로 사무실 등으로 옮기면서 종로, 영보빌딩으로 자리잡게 된다.

구조사가 의뢰받는 설계프로젝트의 주류는 공장과 철골구조물이어서 많은 경험과 우수한 설계 실력을 지닌 배기형이 건축계획과 설계를 거의 독자적으로 구상하였고 설계도 역시 직접 완성하였다.

그러나 건축가 배기형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도시

문화 기능의 빌딩, 은행, 극장, 교육시설, 주택 등 새로운 건축창작 품을 창출하여 경쟁을 벌이는 현상설계에까지 참여하는 건축사무소로 발전되었다.

필자는 실습생의 능력으로 기성건축가의 대역을 하며, 계획잡무를 처리하다 공군시설장교로 일대하여 공군본부에 적을 두게 되었는데 이 때도 간접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계획설계 작업에 참여하였다.

충주비료 사택단지 현상설계가 공고되었을 때 건축가 염덕문의 합작 제안에 따라 구조사 최초로 현상설계에 참여하게 된다. 계획은 필자가, 투시도는 이윤형(재 캐나다)이 작성하여 제출한 결과 당선된다. 그러나 점차 건축계획을 담당할 상임 건축 파트너가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필자가 군복무하는 동안 대역으로 구조사 일원이 된 지 순(현 간삼건축)에게 배기형의 지도하에 건축계획을 맡기고, 간접적으로 구조사 프로젝트를 관여하는 기회가 얼마간 이어졌는데 이 당시는 중앙극장 증축, 반도극장(현 피카디리극장), 을지극장 등의 극장설계가 계속되던 때이다.

그 뒤 지 순도 주택공사로 자리를 옮기고, 필자도 구조사와 협력하는 기회가 어려워지게 되어갔다. 이때 한양대학을 휴직하던 박학재 교수가 1958년 구조사 을지로 사무실에 파트너로서 배기형의 건축계획을 담당하게 되어 한일은행 제주지점이 설계된다. 그러나 박교수와 배기형은 협력관계와 주종관계의 조화가 어려워 보였으며, 서로 헤어지게 된다.

• 독자설계방식에서 설계조직으로

구조사는 명성과 함께 설계업무가 늘어나면서 빠르게 성장해 갔다.

그 당시 종로 영보빌딩에서 눈부신 활동을 보였던 종합건축연구소의 이천승과 김정수가 서로 헤어지는 변혁이 일어난다.

김정수는 연세대학의 전임교수로 떠나고, 이천승은 일부 멤버를 이끌고 배기형 구조사에 합류하였으나, 그 가운데에서 이최영(작고)만이 구조사에 잔류하였고 구조사의 조직과 분위기는 점차 기업형, 설계사무소 조직으로 변모하면서 규모가 확대된다.

배기형의 분신같은 설계실력을 갖춘 김창서는 오로지 설계 해결의 연구와 설계도의 질적 내실을 만들어 나가는 책임감에 몰두하고 이최영은 사무실 멤버들을 이끌어나가는 대부분 역할을 맡는 사무실 체제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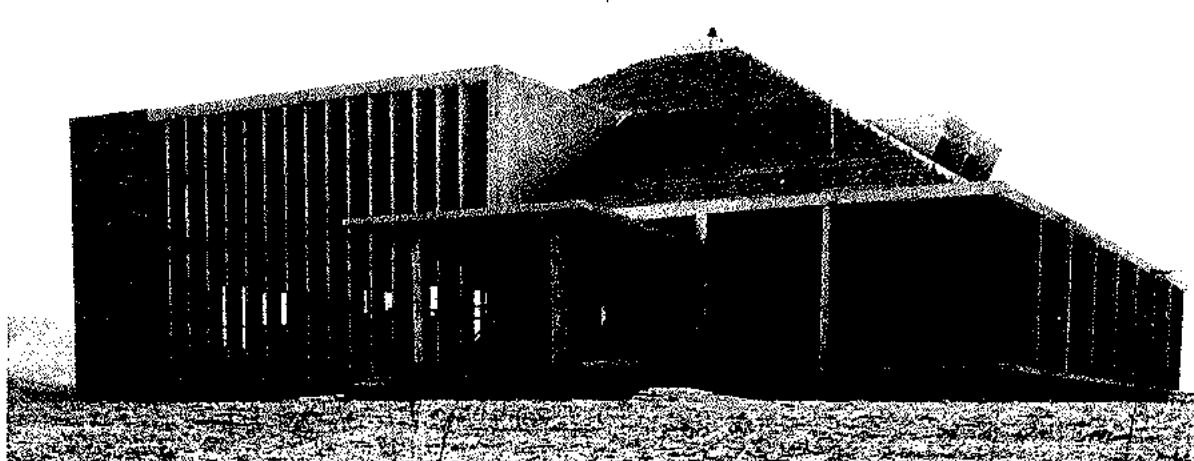
건축 디자인 담당 인력은 최장운, 김현석(작고)을 주축으로 한 젊은층이 주류를 이뤄 참신하고 의욕이 넘치는 창작 분위기가 정착돼 갔다.

1959년 군에서 전역해 복직한 구조담당, 최영규(현 인하대교수)는 구조역학 해석에서 설계도에 이르기까지 능숙한 설계 경력으로 합류하여 구조사 설계팀은 정상급의 인력을 갖춘다.

장종율(작고, 건우사 개업)을 중심으로 계획설계를 담당하여, 호남비료, 독신자 숙소현상 당선작을 계획 설계하고 이어서 삼성그룹이 관여하는 한일은행의 전국지방 지점 건축계획과 건축 디자인의 새로운 기술 해결을 위한 건축상세에 많은 관심과 연구를 하게 된다. 배기형의 건축설계는 직접 독자적으로 제도판을 마주 앉아 생각하고, 연구하고, 작도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방식으로 일관되어 왔으나, 수십명의 인력을 관리해야 하는 설계조직에서는 직접 관여하는 설계생활방식의 어려움을 체험하게 된다.

많은 프로젝트를 처리하고 대형화, 대규모화되는 건축 규모를 모두다 꼼꼼히 관여해야만 하는 성품이었으며 재래식 독자적 설계방식에 익숙했던 마음에 건축적 내실 및 질적 저하가 우려되는 갈등이 커져가는 것도 느낄수가 있었다. 그러나 이때가 중요한 작품이 많이 나왔던 시기였다고 본다.

공군사관학교 도서관, 체육관, 조흥은행 남대문



서울 대방동에 위치했던 구 공군사관학교 도서관

지점, 유네스코 회관, 공군기지의 격납고, 제일모직 대구공장의 철근콘크리트 쉘구조, 그리고 한국전력, 영월발전소, 서소문의 중앙일보사옥 등 왕성한 설계활동의 전성기를 보내는 시기였음을 알 수 있다.

1967년 건축사법이 발효되어 건축사자격을 획득한 건축사무소 멤버들이 독자적인 건축설계 활동을 위해 건축사무소를 개설하면서 종전의 기성 건축가 중심의 설계사무실에 인력누수 현상이 일어난다. 이때 배기형의 건축 작품세계를 앞서서 펼쳐나갔던 그의 분신인 김창서가 구조사를 떠나게 되는데 이것은 배기형의 건축활동 행보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이를 구조사 역사의 전·후반 분기점이 되는 시기로 본다.

• 구조사를 벗어나며

1968년에는 건축기협회 회장이 되면서, 한국건축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관심사가 커지고 활동 역시 열의가 높아진다. 따라서 설계에 전념하면서도 다양한 건축사회 문제에 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건축계 지도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노력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구조사의 운영과 설계에 관여하는 비중을 덜고 지금의 구조사 책임자인 윤홍갑에게 위임하면서 1970년에는 김인득 회장의 권유로 한국건업의 연구소를 창설하여 중동건설 진출을 위한 건설기술개발과 량산주택 개발연구에 다시 몰두하는 열의를 보이면서 구조사로 가는 발길이 뜻해진다.

1960년대는 민간기업의 다양한 프로젝트에서부터 군관계의 특수시설에 이르기까지 건축가 배기형에게 설계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높은 신뢰와 지명도로 말미암아 그에게 있어 이 시기는 한국건축계에서 확고한 지위를 굳힌 전성기였다.

이에 비하면 1970년대는 설계를 둘러싼 경영,

운영에 관한 문제로 다소 회의를 보이던 시기로 사무실에서 박력 있고, 열의에 찬 모습으로 건축작품에 몰두하던 건축가 배기형에게는 그다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못되었다. 오랜기간 몸담아온 구조사에서 건축의 세계를 마음껏 뛰고 싶었던 건축가에게는 부담스러운 마음의 짐이 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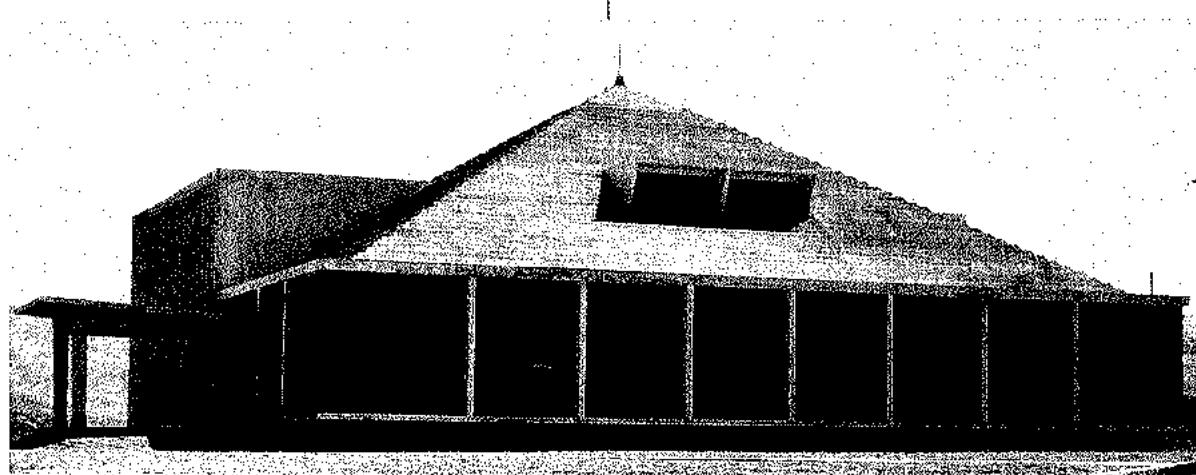
그러나 이미 배기형은 구조사와 무관하게 김석철(아기반)팀과 교우하며 협상설계를 협력하였고 개인적으로 마음껏 건축대회를 교감하며 작품생활을 갈망하였다. 그러한 그의 모습이 마치 야인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건축가는 작품을 구상하고 창작 생활에 몰두할 때 항상 건강한 모습을 유지한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러나 건축가의 질병과 가정불화, 건축의 정도를 벗어난 건축의 부정요소로 인해 마음의 고통을 느낄 때 건강 역시 무너지기 쉽다.

마음의 건강이 흔들리면, 몸의 건강을 잃은 것처럼 병원에서 커다란 치료를 받았다.

배기형은 실제로 건축을 포기하고 남은 여생을 위하는 듯한 모습으로 옥인동의 주택과 자영으로 유지되는 공동육장을 겸한 생활터전으로 옮겨가게 된다.

그리고 그 뒤 치료를 받으면서 일시적으로 건강이 회복되는 듯 하였다. 그러나 건강을 되찾은 기쁨으로 또다시 동해풀프로젝트에 몰두하다 과로로 쓰러지게 되고, 결국 병이 재발되어 건축가 배기형은 어렵게도 60세를 갓 넘긴채 일생을 마치게 된다.



서울 대방동 보라매공원 자리에 위치했던 구 공군사관학교 도서관

서강대학교 도서관 제3관

The 3rd Library of Seogang University

부대진 / (주)진마건축 · 도시종합건축사무소

Designed by Bou Dae-Jin

좌·우측에 기존 도서관과 사회 과학대학(디산관)이 위치한 균린공원(노고산)의 중턱 대지에 자리잡은 이 설계안은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열람실과 개가식 서고, 정보화 시대에 발맞춘 컴퓨터 열람을 수용하면서 균린공원 수립대 훼손을 최소화하는 계획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좌·우의 두 건물과 산으로 둘러싸여 더욱 협소하게 느껴지는 대지에서 건물의 규모에 맞는 적정한 영역성을 확보하고, 뒷면의 산으로 이어지는 경사면의 경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기능을 갖추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했다.

두 건물의 측벽으로 둘러싸인 주 진입 공간은 경사를 이용하여 만든 계단과 화단으로 이루어진 경쾌한 분위기의 광장을 계획하여 협소한 느낌을 줄이고 폐적한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세 건물이 모인 삼각 공간에 위치한 이 광장은 학생 동선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집중시키며 Pocket Park를 중심으로 또 다른 형태의 옥외활동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두 건물의 후면과 마주보게 되는 이 건물의 정면은 화강석으로 마무리된 벽을 두 건물과 평행하게 세워 적정한 영역성을 확보하고 두 건물의 재료로 쓰인 적벽돌, 콘크리트, 유리 등과 대비시켰으며, 건물을 구성하는 각 공간들은 지형에 따라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통해 수직으로 분산시켜 각 기능들의 이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옥상의 천장을 통해 자연채광을 유입시켜 환경을 갖춘 4, 5층의 열람실은 노고산과 마주보도록 건물 후면에 배치시키고 벽면 전체의 투명 유리를 통해 노고산의 자연경관을 차용하여 학습으로 지친 머리와 가슴에 자연의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또한 각 층의 전면 외부공간에 발코니를 두어 휴식과 친교의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며, 전면의 주 진입광장으로 시각적 영역이 확장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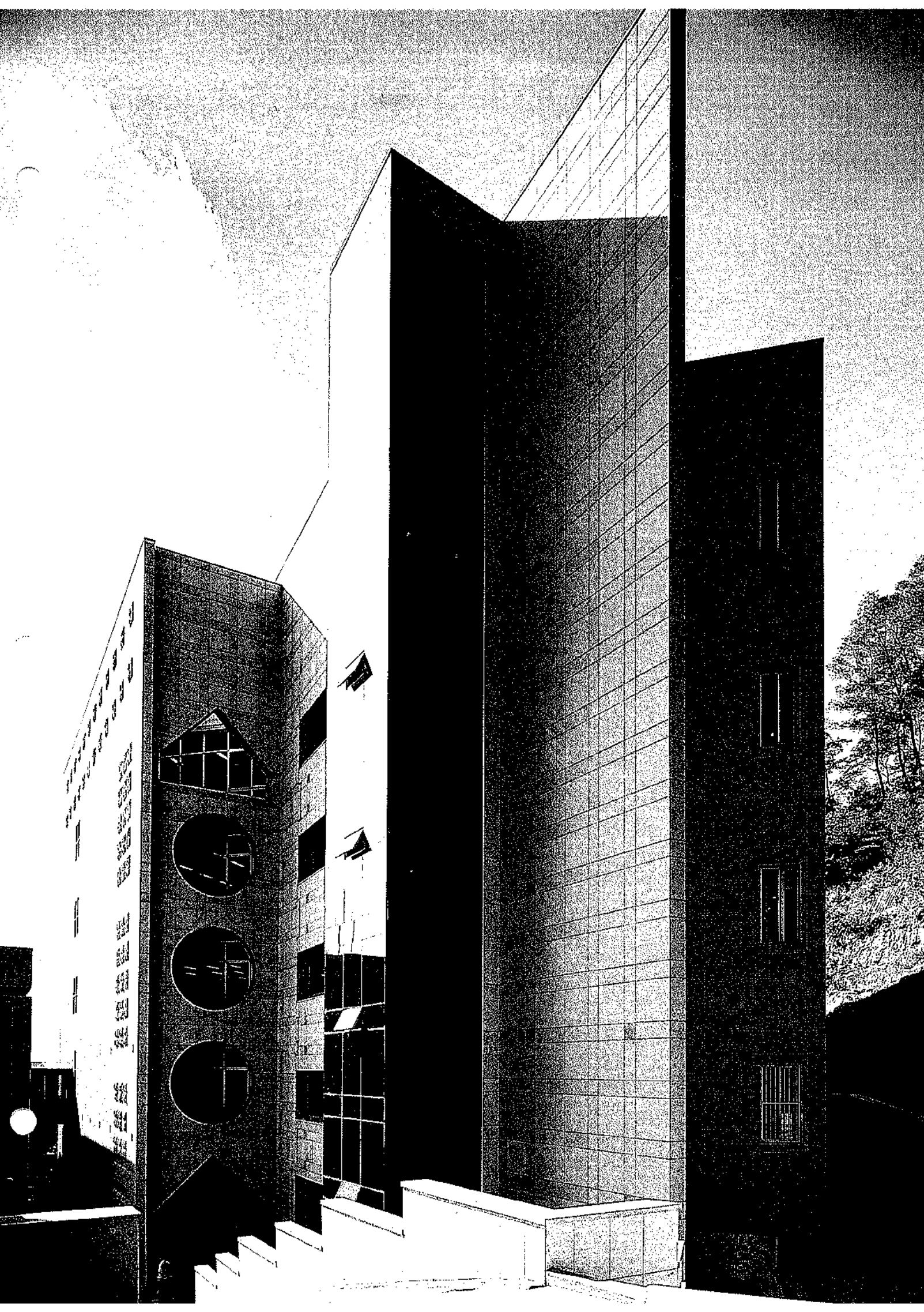
명문사학 서강대학교에 세워진 이 도서관이 21세기 첨단 정보화, 산업화 시대에 첨병이 되길 바라마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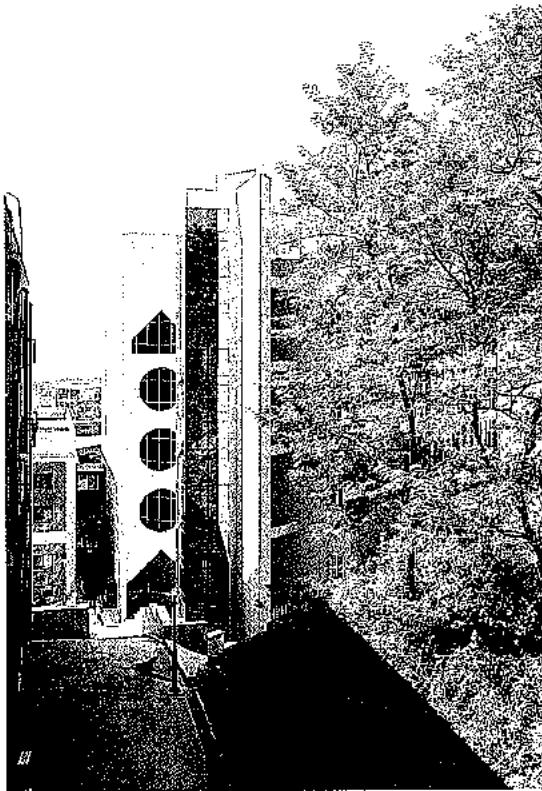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1-1번지외 25필지
대지면적	205,507m ²
건축면적	901.54m ²
연 면 적	3,735.24m ²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일부 2.4종 미관지구 일부풍치지구 학교용지
총 수	지상 5층
주차대수	480대(법정 253대)
조경면적	51,164m ² (법정 23,653.20m ²)
외장재료	알미늄 복합페널, T18파스텔복층유리
건 폐 율	16.00%
용 적 률	55.21%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설비시설	중앙집중식
용 도	서가, 열람실
최고높이	34.43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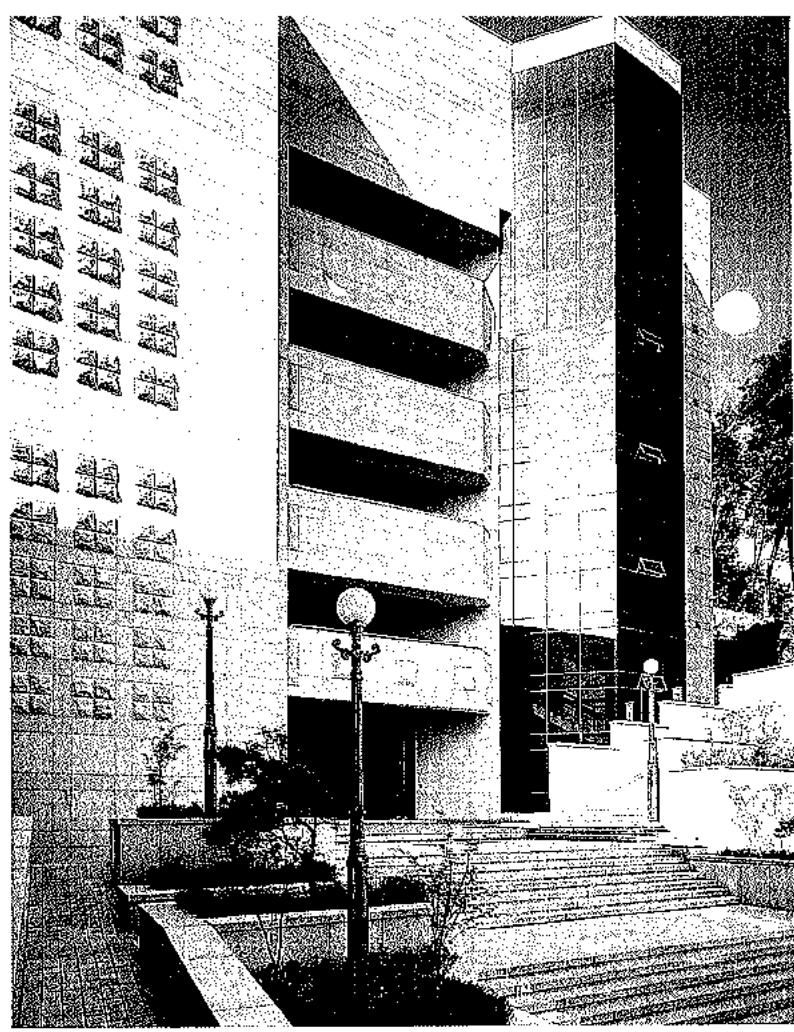


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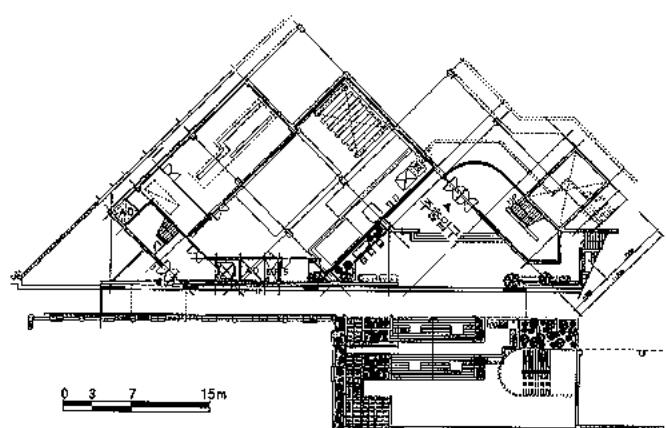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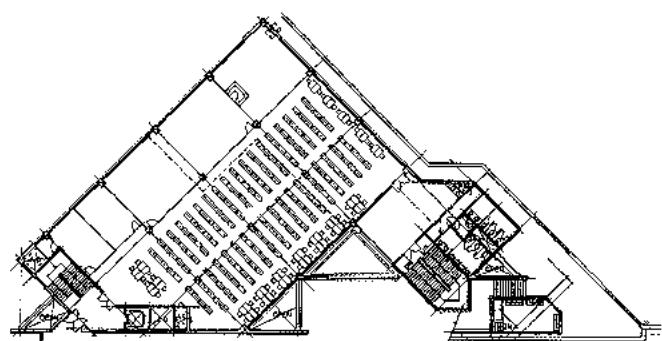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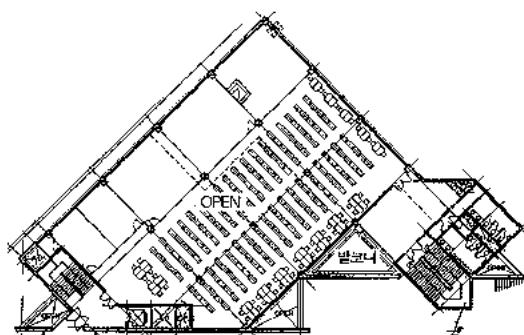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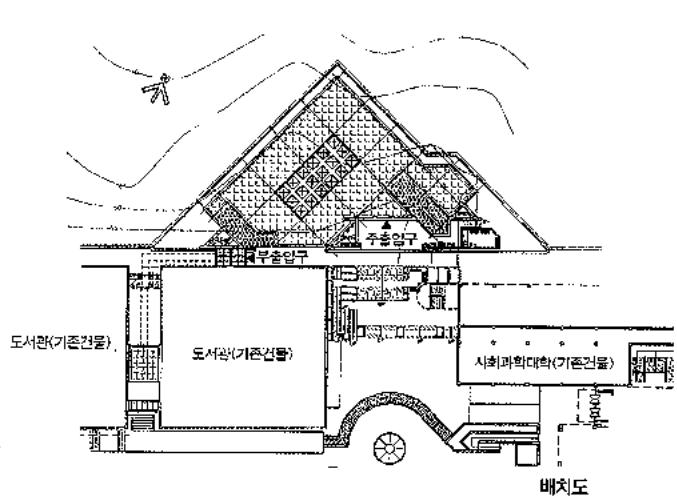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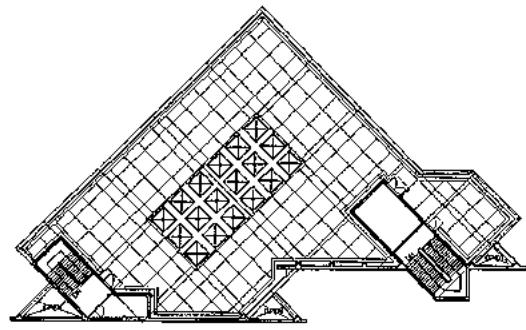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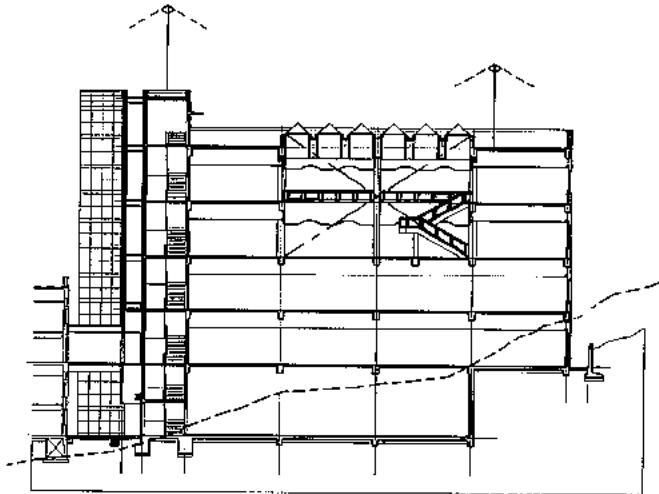
북동측 전경



주출입구 전경

오픈된 4, 5층 열람실





성락교회 교육관

Education Hall of Sungnak Church

합인선 /민우 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Ham In-Sun

주어진 프로그램은 가능한 넓은 접회공간을 가지는 업무시설을 만들라는 것이었다. 당연히 접회장은 건폐율의 제한을 피할 수 있는 지하로 보내게 되고 상부로부터 내려오는 기동을 지하에서 어떻게 없앨 것인가가 과제가 되었다.

횡전달구조(Transfer System)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무시 못할 구조깊이가 문제가 된다. 그리하여 6개층의 바닥을 Overhanging하기로 하였다. 디자인된 Portal Frame은 횡좌굴, 비틀림 등에 저항할 수 있도록 3차원적인 부피를 가지면서도 최소부재를 이루도록 한 것이다. 지진 등의 힘은 R.C.BOX로 된 코아가 담당한다.

이 건물은 성락교회 단지의 남동측 모서리를 이루는 대지에 위치한다. 여러 의미로 단지 내 건물군의 Corner Stone이 된다. 단지 동측 도로로부터 시작되어 남측 도로로 진행 중인 일련의 가로건축군의 시간적, 공간적 절점인 셈이다. 이미 완성된 건물의 맥락에 부응하면서도 이 단지의 생장에 대한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랐다.

93년 완성된 본당 건물에서도 기능적 요구에 의해 노출되게 된 구조, 설비를 오히려 입면요소로 쓰면서 내세운 논리는 고딕건축의 당대기술에 대한 태도를 담자는 것이었는 바, 그

논리는 이 건물에서도 역시 유효하다. 즉 구별된 공간은 구별된 기술(특히 구조)에 의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며, 정직하고 건전한 건물이라면 자신(공간)을 존재하게 해주는 구조를 감추거나 장식하거나 왜곡하여 보여주지 않아야 한다는 믿음이다.

건축에서의 공간과 구조와의 관계는 인간에서의 정신과 육체의 관계와 아주 흡사하다. 육체는 정신을 가두는 감옥이라는 식의 '육체비하 - 정신우월' 주의는 근래의 메트로폴리나 미쉘푸코 등의 반성이 있기까지 서양의 제분야를 지배해 온 생각이었으며 건축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그러나 최근의 '몸학'이 밝혀주듯이 그 둘은 분리될 수 있는 것도, 어떤 것이 우월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같은 맥락으로 건축에서도 구조는 공간을 이루기 위한 부차적 요소라고만 여겨져온 형이상학 선호는 교정되어야 할 시각이라 본다.

성락교회는 기성교회들이 교리와 신학에 중점을 두는데 반해 체험, 신유 등의 현실적인 신앙을 매개로 하여 급성장한 교회 중 하나이다. 이 시대에는 관념과 제도를 통해서 보다는 몸을 통해서 신앙이 확인되고 있다는 증좌이기도 하며 이러한 입장이 건축에서의 '몸' 제자리찾기를 추구하는 내가 지속적으로 이 교회의 일을 하게 되는 이유일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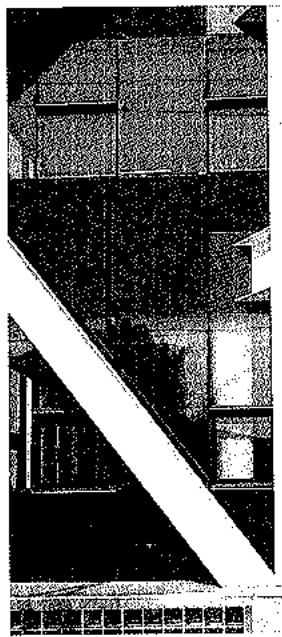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355-209	주차대수	29대
지역지구	일반주거 - 주차장 정비, 4종 미관	조경면적	126.68㎡
대지면적	773㎡	승강기	11인승 1대
건축면적	388.07㎡	정화조	유림환경 - 접촉산화방식 700인조
연면적	4,313.93㎡	전기설비	삼화설비
건폐율	50.20%	구조설계	민우구조
용적률	245.19%	토목설계	평원엔지니어링
용도	종교시설, 업무시설	시공	삼희산업
규모	지하4층, 지상5층	기간	'93. 3 ~ '97. 10
구조	철골조 + 철근콘크리트조	설계	천선종, 이돈석, 황세열
외장재료	30㎜화강석, 16㎜컬러 복층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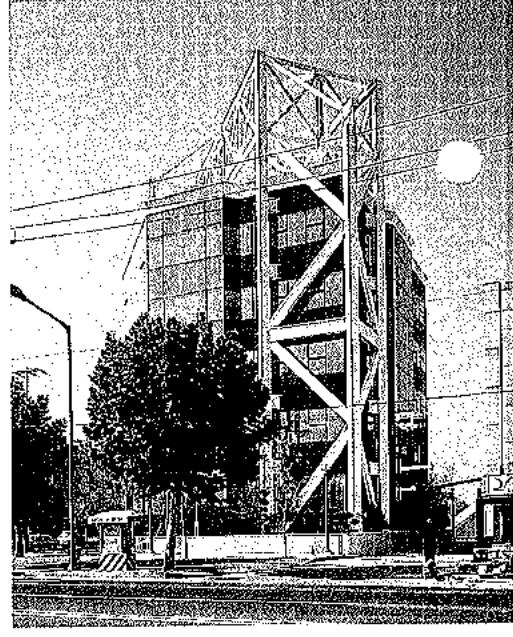




동측 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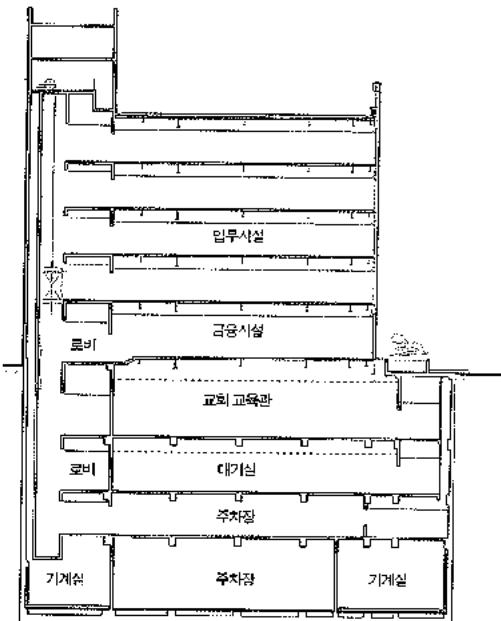
남측 벽면 상세(횡자굴, 비틀림 등에 저항할 수 있는 portal fra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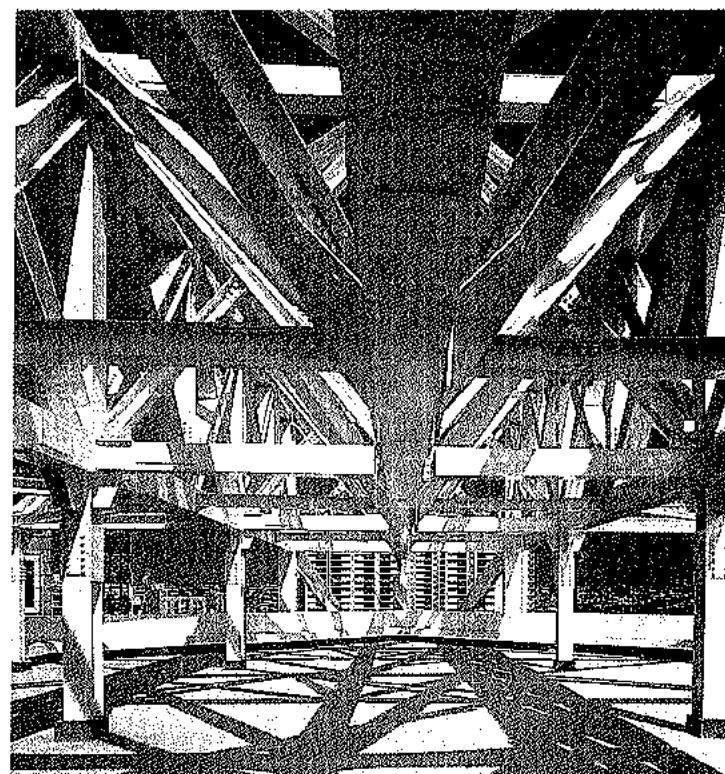
북측 전경

남동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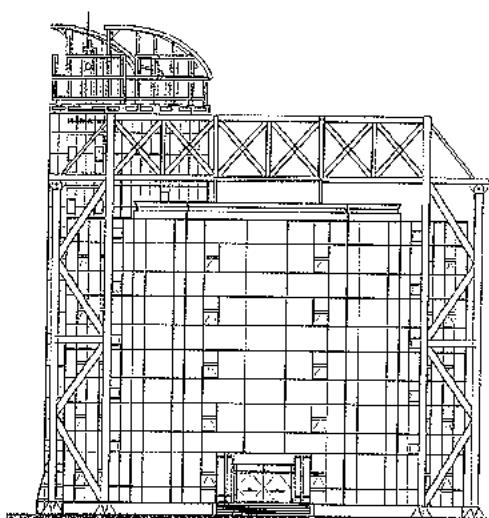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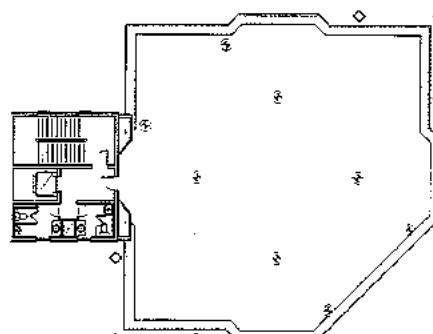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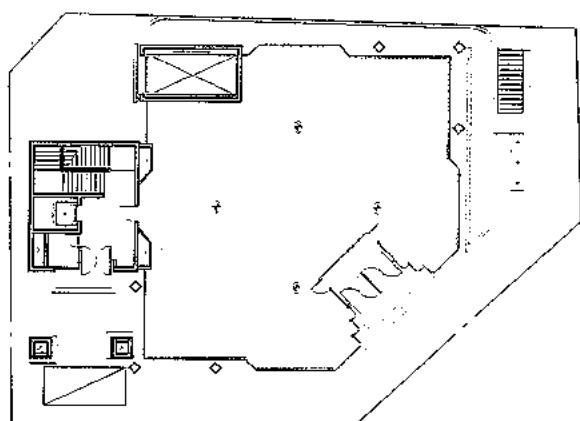
옥탑 portal frame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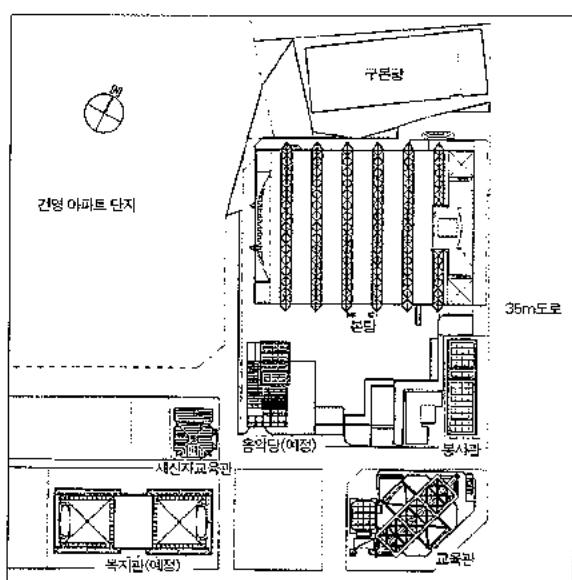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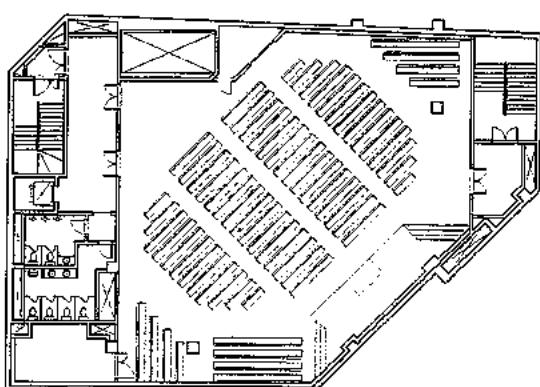
3~5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배치도



지하1층 평면도

한국가스공사사옥

Korea GAS Corporation

(주)정림건축
Designed by Junglim Architecture

공공청사의 새로운 건축형 제시

액화천연가스(LNG)의 장기 도입 계획에 따라 정부 투자 기업으로 설립된 「한국가스공사」의 사옥 신축을 위한 현상 설계 지명을 받은 것은 92년 5월 중순이었다. 새로운 사옥을 위한 건축 주제의 설계 지침은 첫째, 가스 개발 및 비축 사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스 회관」 기능, 둘째, 가스 개발 정보의 조사 분석 관리를 위한 「종합 가스 정보 센터」 기능, 그리고 셋째, 국내외 가스 개발 사업의 협력을 위한 회의·연구의 장소로서 「첨단 연구 센터」의 기능 등이었다. 당시 우리가 현상 설계를 시작하면서 지향했던 목표는 정부 투자 기관으로서의 가스공사 신사옥을 공공청사의 실용성과 상징성, 즉 업무 기능의 OA화에 조화를 이루면서 독자적인 아이덴티티를 갖는 새로운 건축형으로 만들자는 것이었고, 이러한 컨셉을 바탕으로 디자인을 진행하였다.

배치 및 옥외 공간 계획

현상 설계 발표 이후 정림안이 당선되면서 무엇보다도 배치 계획이 탁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금은 타 사무소의 소장들이 되었지만 당시 한팀이 되어 일했던 서민원, 조남호씨의 도움이 커으며 사내 디자인 심의를 거쳐 기본안(Scheme)이 정해질 수 있었다. 대지는 동서를 장축으로 남향을 바라보며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적절한 조건을 고루 갖추고 있었으며 이러한 부지의 특성은 우리에게 「자연환경과의 조화」라는 큰 주제를 대하게 하였다. 자연환경과의 조화는 건축 형태상의 단순한 조화가 아닌 자연과 친화할 수 있는 공간, 더 나아가서는 건축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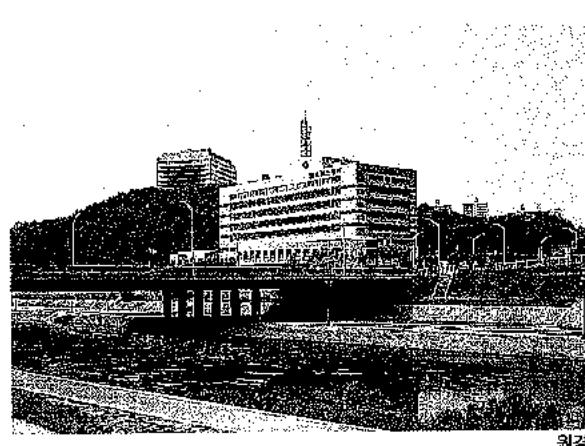
용자의 「자연동화」라는 출거리로 이어진다. 즉, 자연을 많이 접하고 느끼며 사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자연에 순응하고 최대한 조망을 유지하며 충분한 자연채광을 위하여 건물의 장축 배치를 택하였으며 전면의 탄천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옥외 조경 공간에 자연적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는데 마침 대지가 비교적 여유 있는 편이어서 모처럼 다양한 조경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특히 내외부 공간의 관입을 추구하는 선큰기든, 옥상정원, 중정과 터널형 파고라, 옥외 휴게 공간과 시냇물, 온실 등의 디자인은 조경부서의 하성한 팀장과 이수성 대리가 수고해 주었고 건축과 조경이 상호 보완하여 조화를 이루게 되었다. 이곳은 근무자들과 방문자들에게도 다양한 옥외 휴게 공간을 제공하여 향후 사랑받는 장소가 될 것이다.

대지에 건물을 장축으로 배치하면서 도로에서의 진입 방향과 건물의 정면성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생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로에서 가까운 장소에 보행자를 위한 기능적인 출입구를 두어 이곳에 인지도와 흡인력을 갖도록 시각적인 장식 기둥과 반원형 선큰기든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건물의 정면성을 갖는 중심부에는 차량동선을 고려하여 상징적인 출입구를 만들었으며 특별히 캐노피를 조형화하여 주출입구로서의 상징성과 품위를 갖도록 하였다. 또한 정문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Access)를 큰 곡면의 매스로 유도하여, 진입하면서 건물에 대하여 부드러운 이미지를 갖도록 연출하였다.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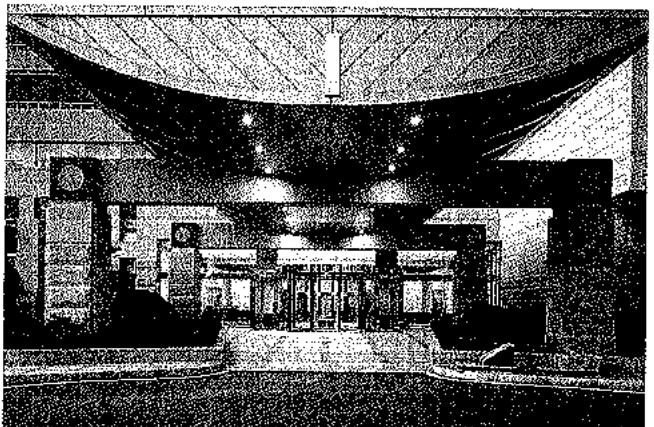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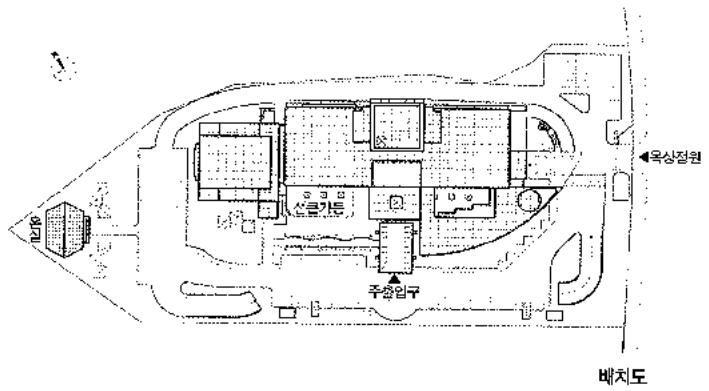
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대지 면적	16,738.3m ²
지역 지구	상업지역, 도시 설계 구역(업무용지)
건축 면적	4,332.91m ²
연면적	35,089.01m ²
건폐율	25.9%
용적률	123.9%
규모	지하 2층, 지상 8층
주요 용도	업무시설
외부 마감	THK30 화강석 바나나이, 물갈기, THK24 컬러복층 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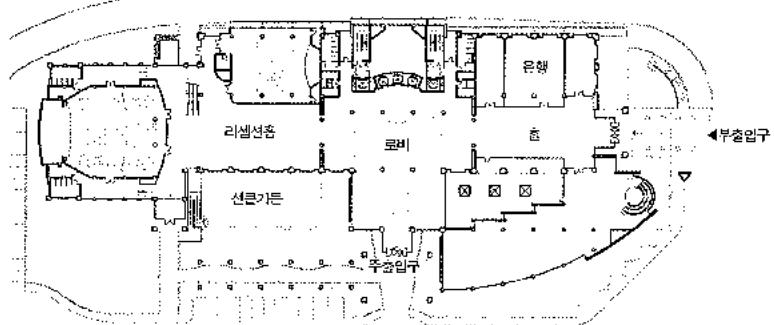
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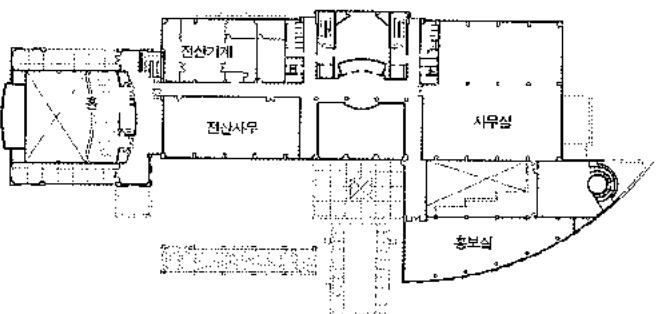
선근가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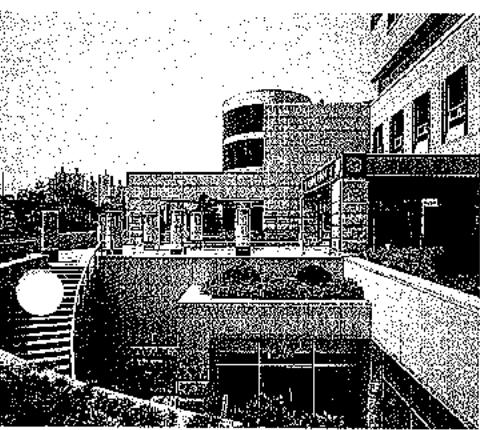
주차입구 전경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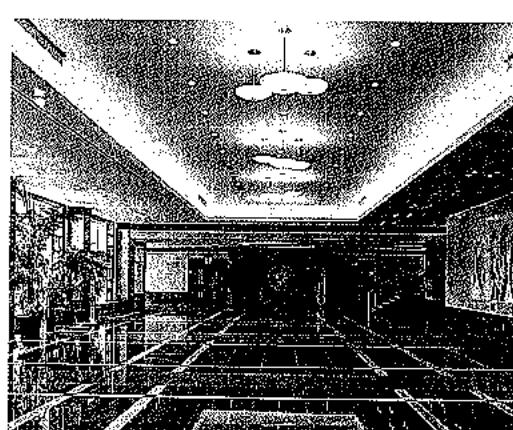
2층 평면도



보행자 출입구 및 반원형 선근가든



임원층 엘리베이터 홀



리셉션 툴

솟대 家

'Soht Dae' House

최동호 / 예전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Choi Dong-Ho

이 집은 솟대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솟대 家"라고 부른다. 옛날에 동네 어귀에 세워진 솟대는 마을의 안녕을 빌며 공동의 에너지를 갖는 전통적인 우리네의 소중한 상징물이 되었다.

이 집의 맥락과 주요 개념은 '도시 속의 전통적인 이미지'를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두기로 했으며, 그것은 "동네어귀에서 - 골목길 - 풍경소리 - 쌔리나무 - 솟대 - 마당 - 하늘"로 이어지는 설계개념의 구조를 갖게 되었다.

첫째, 풍경소리 — 동네어귀에서 골목길을 걸어 들어오면 풍경을 만나게 된다. 이 동네는 흥대 앞이라는 특수한 지역성으로 대학문화가 형성되면서 그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청년의 동네이다. 젊은이의 흐름이 그 주체를 이루고 있으며 매우 성격이 강한 지성의 문화를 만들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곳에 골목이 있다는 것은 이 집이 갖는 큰 장점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골목을 따라 원편의 담을 끼고 들어오면서 만나는 곳이 솟대가 보이기 전, 먼저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그것은 이 집에서 사실상 맨 처음 만난게 되는 곳이며, 그 풍경은 이 집의 내용을 전해주는 "집소리"를 담고 있다. 도시 속에서 풍경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슴이 뭉디는 것은 우리의 정서가 풍경 소리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곳을 다니는 사람들에게 도시 속에서 잃어가고 있는 애마른 감정을 되찾게 해준다. 風聲소리는 바람을 타고 파진다.

둘째, 쌔리나무 — 옛날에는 쌔리나무로서 담을 치면서 어떤 경계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처럼 확실한 대지 경계에다 튼튼한 철담을 치는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저 어렵잖은 울타리로서의 낮고 친근한 담일 뿐이었다. 쌔리나무의 형상을 만들어 난간에 설치하고 현대적으로 이미지화 시켰다. 옛날의 쌔리

나무 사이는 뚫어져 있어서 옆집의 생활을 엿보는 재미도 있었으며, 또한 그 사이로 바람소리가 날 때는 제법 그멋이 더 있었을 것이다.

셋째, 솟대 — 솟대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그 마을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네 입구에 세워진다. 솟대는 마을에서 신이 되며 그 중심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희망을 전해주고 있었다. 솟대는 우리의 전통적인 삶의 미학으로 자리잡아 왔다. 솟대는 하늘을 지향하고 있어야 하며, 땅으로부터 위로 상승하는 의미로서 그 상징성을 갖는다.

이 집을 "솟대家"라 하는 것은 이렇게 이 조형물을 통하여 이 동네의 안녕은 물론이고 이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항상 좋은 일이 생겼으면 하는 뜻을 담고 싶기 때문이다. 이 집의 솟대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리고 솟대는 풍경 옆에 있다. 솟대와 풍경의 전통 이미지는 함께 어울려져 도시의 새로운 이미지로서 현대적인 상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솟대는 이집과 함께 오래도록 함께 살아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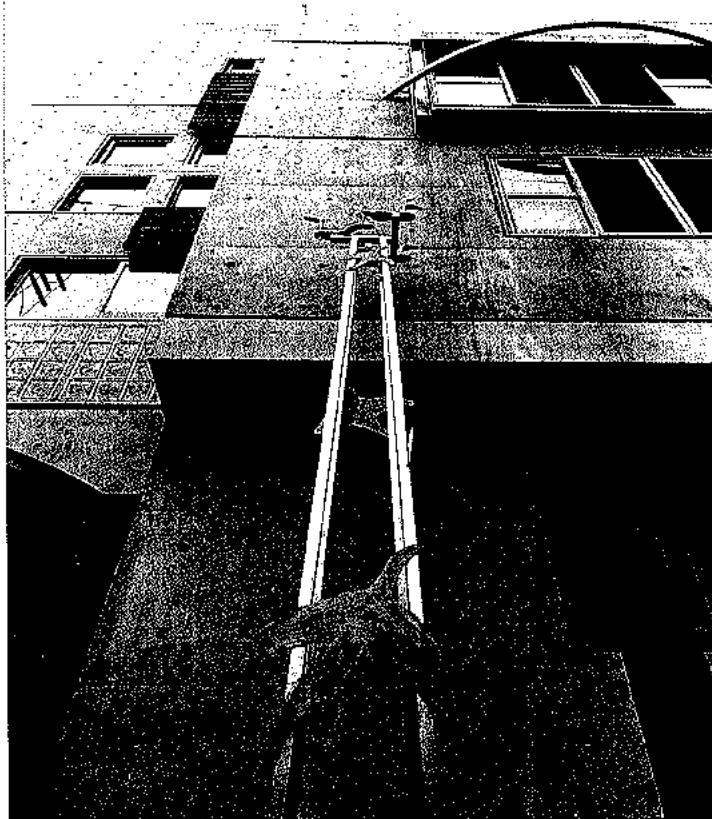
넷째, 마당과 하늘 — 현대 도시에서 마당은 사라진지 이미 오래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안마당은 그 마당 자체가 인생을 담고 있었다. 이러한 마당을 지금에 와서는 협소한 도시의 대지로서는 그려 내기가 힘들다. 그러나 향단이 갖는 10자 정도의 안마당의 크기로서도 커다란 감동을 주기에 충분하듯이 작지만 마당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이다. 그것은 작은 공간이 더욱 아름다울 수 있다는 전통 미당으로부터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지혜일 것이다. 작은 현관 앞에 작은 (안)마당을 두었다. 바로 누마루 앞이다. 이곳이 이집의 작은 마당이다.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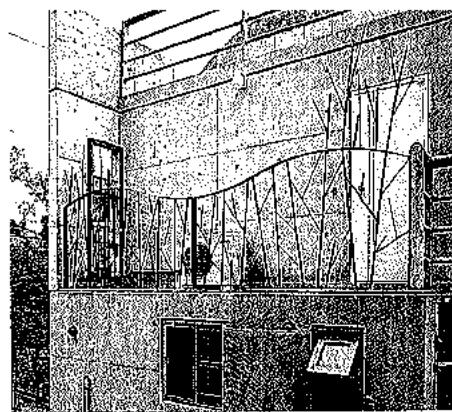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64-20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주차장 정비지구
대지면적	213.63m ²
건축면적	127.93m ²
연 면 적	469.37m ²
건 폐 율	59.88%
용 적 률	167.02%
규 모	지하1층, 지상3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최고높이	10.20m

주요용도	다가구 주택
외부마감	벽, 지붕 - 노출 콘크리트
내부마감	바닥 - 비닐계수트, 온돌용 마루 벽 - 고급벽지, 안티스타코, 천정 - 고급천정지
주차대수	4대
금속공예	장태영('누드' 디자인)
구조설계	최근철
시 공	(주)제원산업
설계기간	1996. 11~1997. 2
공사기간	1997. 2~1997.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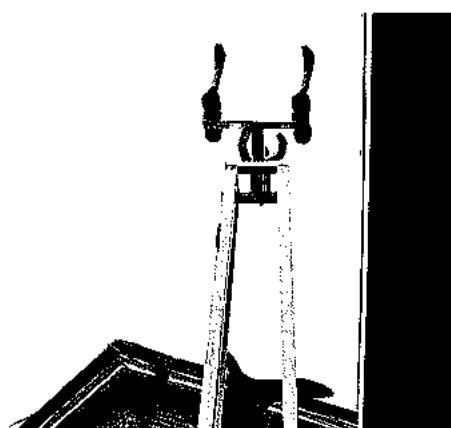




솟대는 하늘을 향해 열려 있다



난간에 용용된 싸리나무는 바람소리를 맞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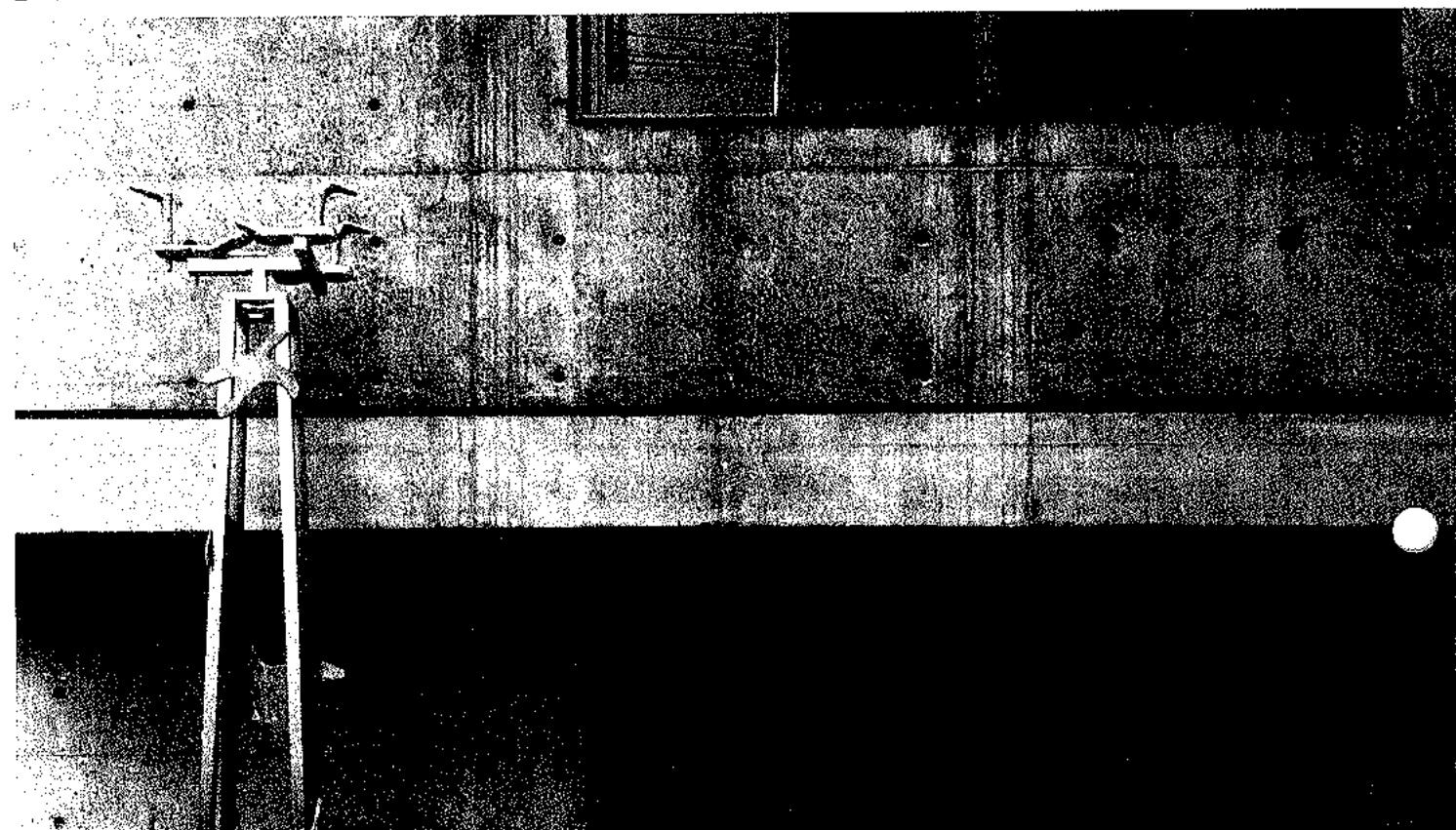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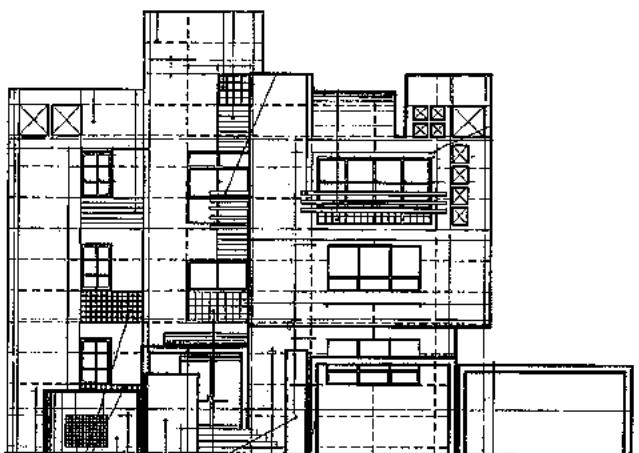
솟대 디테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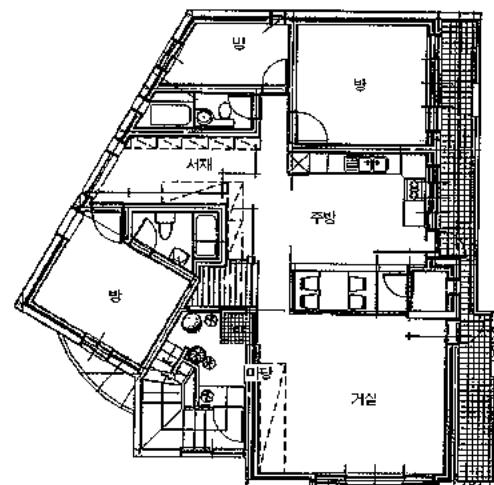
종경 디테일

집소리를 들어보자 - 솟대는 하늘소리를. 풍경은 풍경(風聲)소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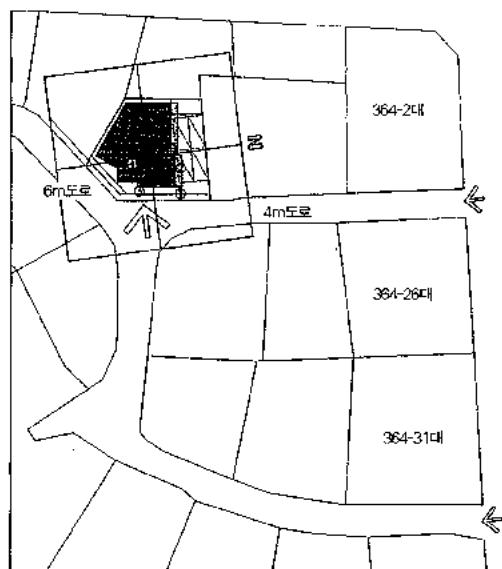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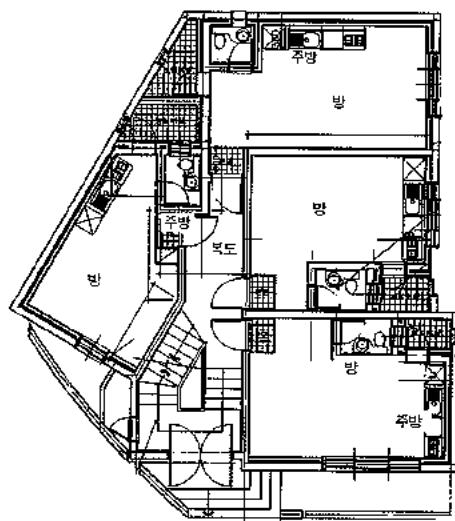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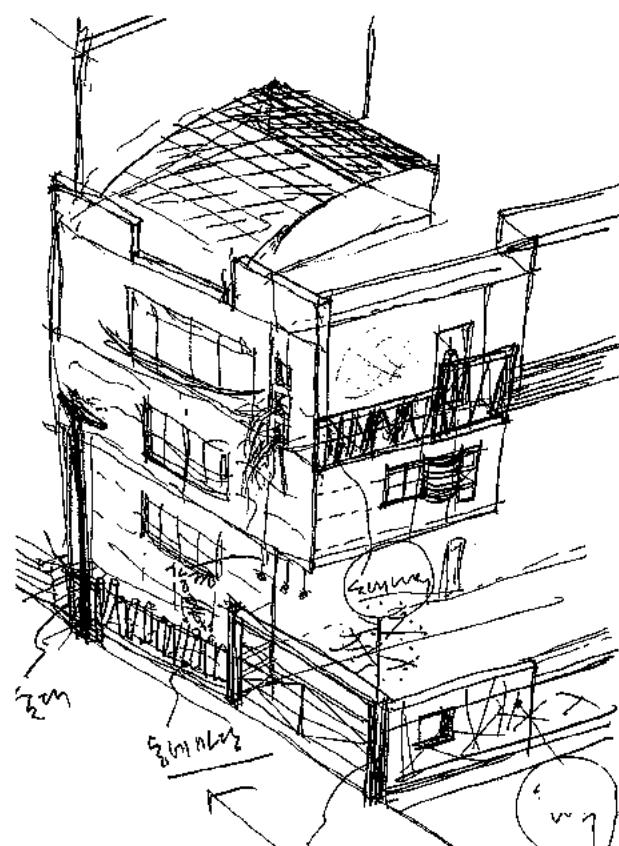
3층 평면도



배치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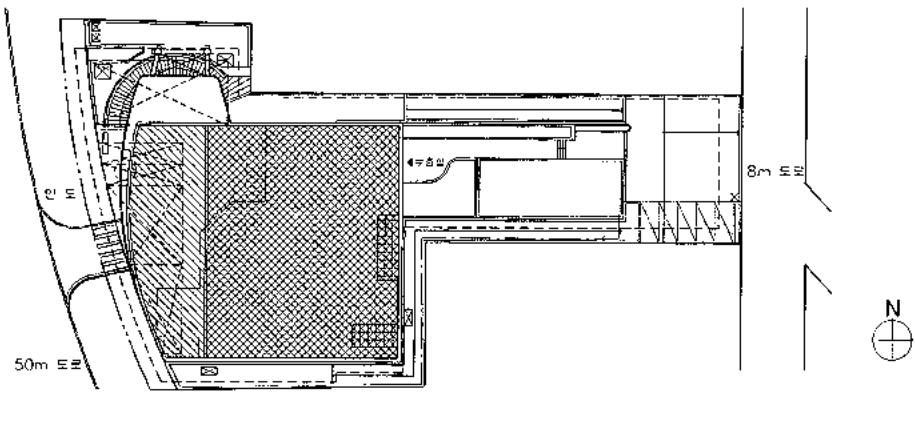
대한교원공제회 대구회관

Korean Teacher's Mutual Fund Taegu Center

지 순 / (주)간·삼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Chi Soon





북서측 전경

대한 교원공제회 대구 회관은 대구의 신도심 중심업무 시설로서 독창적인 인지성을 토대로 주변 가로의 활성화를 주도하고, 또한 기존의 시가지와 기능적으로 연계되도록 계획되었으며, 체적한 사무 영역 형성과 새로운 업무 시설의 중추로서 공연하도록 설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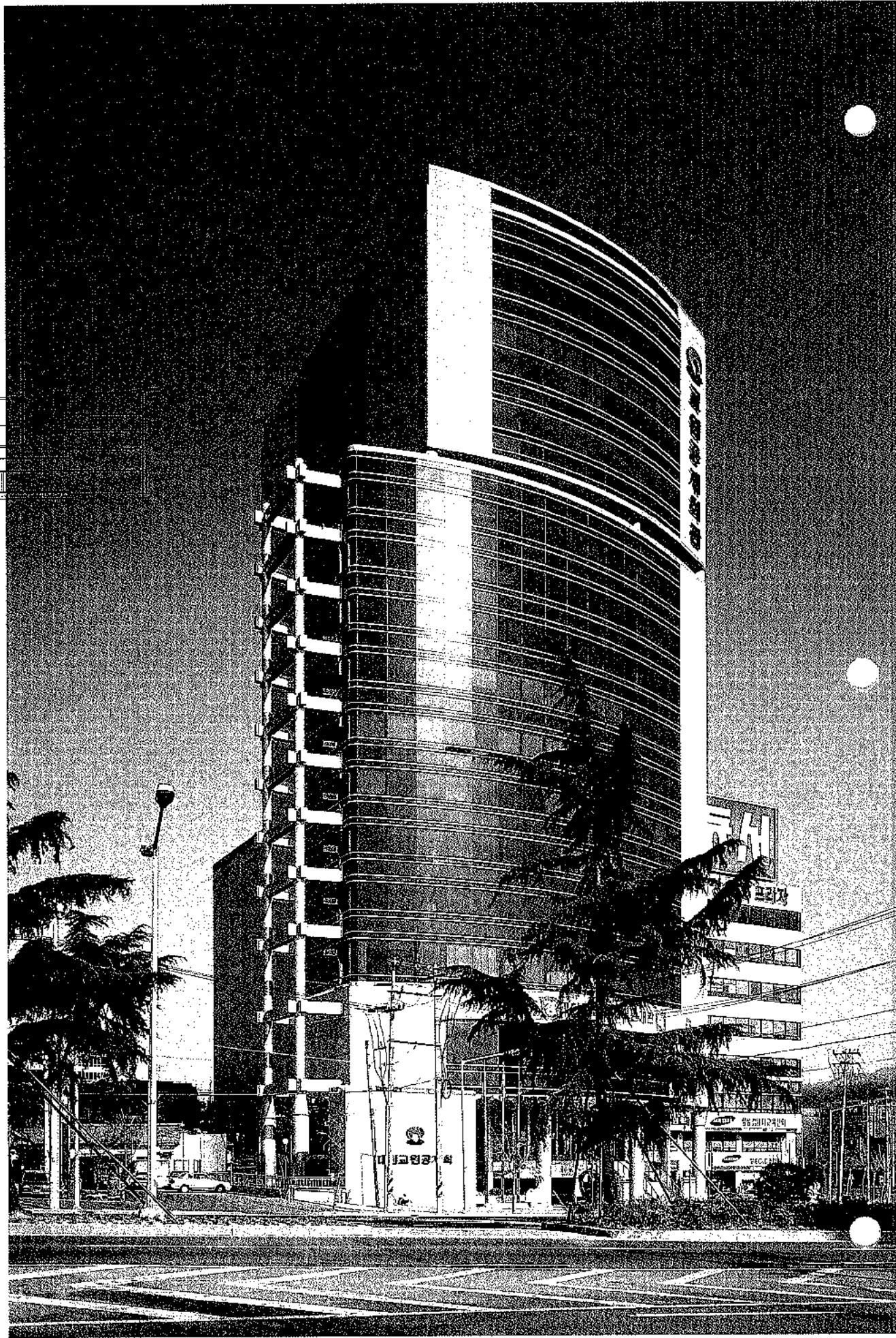
기하학적 조형 개념으로 출발한 이 건물은 저층부의 개방성과 Glass Curtain Wall의 투명성을 추구하여, 미래지향적인 대구의 Image와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함께 High-Tech건축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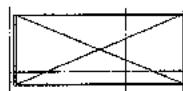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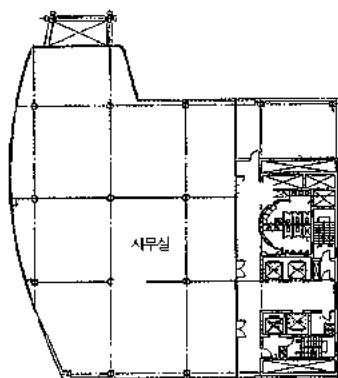
대지위치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7-4, 5	
용 도	업무시설, 접객시설, 근린생활시설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주차장 정비, 미판1종, 업무, 최저고도지역	
대지면적	2,411.60㎡	건축면적 1,187.64㎡
연 면 적	24,263.55㎡	용적률 653.35%
건 폐율	49.25%	구조 SRC조
총 수	지하5층, 지상16층	
주차대수	293대	
조경면적	404.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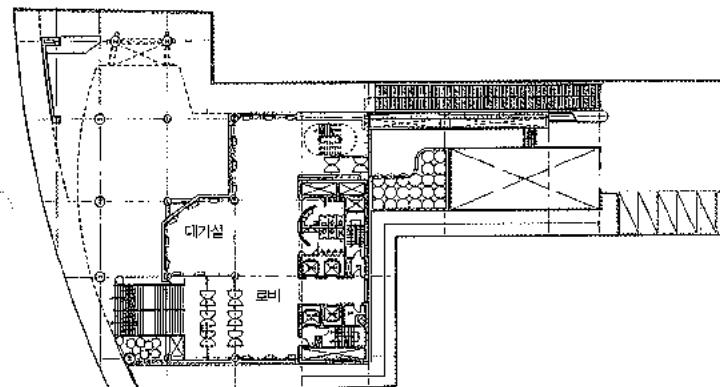
올려다 본 북동측 밖면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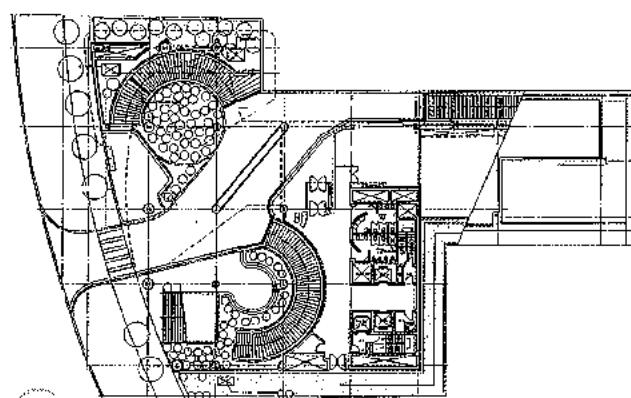
서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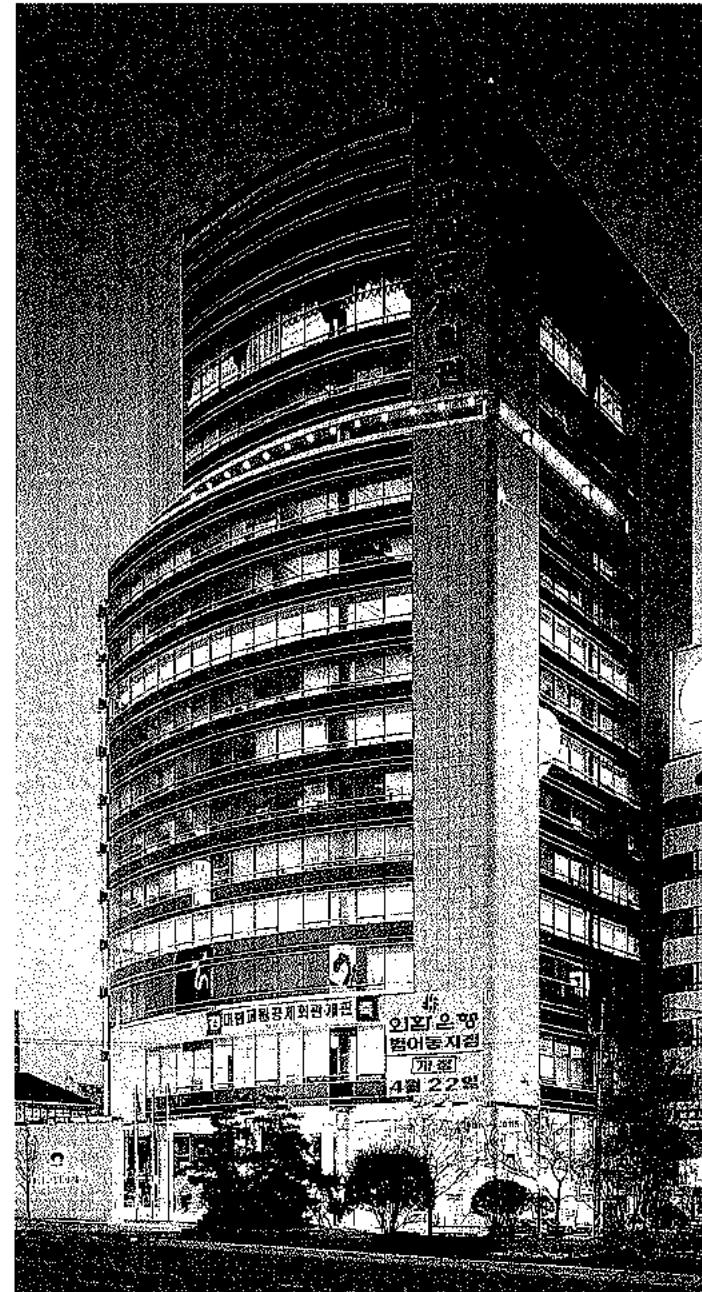
기준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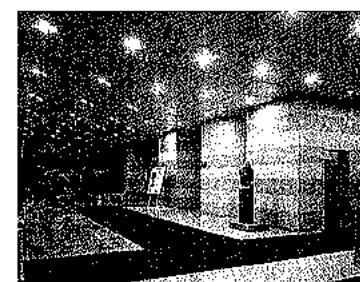
1층 평면도



남서측 야경



피로티



로비

옥솔프라자

Oksol Plaza

오정원 / 예일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Oh Jung-Won

강북의 국민 관광단지로서의 장흥은 서울도심에서 승용차로 1시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 곳에 각종 레저시설들이 있어서 도시생활에 짜든 사람들이 쉽게 접하여 하루를 즐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주위의 산에는 오래된 밤나무들로 숲이 울창하며 경관이 수려하기 이를데 없고, 특별히 가을의 장흥은 설악의 단풍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아름답다.

이 가을에 근 2년간의 오랜 공사를 마치고 건물 준공을 보게 되었다. 이 건물은 웨딩홀로서 현재 도심에 예식장들이 편중되어 있어서 각종 공연과 교통난에 시달리지만 하는 예식 인구를 복잡한 도시를 떠나 좋은 환경에 새로운 예식공간을 제공 할 수 있도록 지었다. 장흥의 건물들 대부분은 도심의 건물과는 조금은 색다르다. 그 외형과 기능이 주위 경관에 어울리도록 애쓴 혼적들이 보인다.

이 건물은 기존 토탈미술관을 지나 300m 정도에 위치하여 전면에는 진입도로를 건너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고, 후면은 폐 가파른 산자락에 면하여 조망이 좋은 곳에 위치하여 있다. 건물배치는 기능상 본관과 별관으로 분리하였으며, 본관에는 예식부의 기능을, 별관에는 부속음식점과 관리 사무실 및 숙소가 배치되도록 하였다.

건물의 외부형태는 전체적으로 웨딩홀로서의 분위기를 장식적 효과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노력하였으며, 특히 5층의 정통레스토랑 부분은 선박모양을 형상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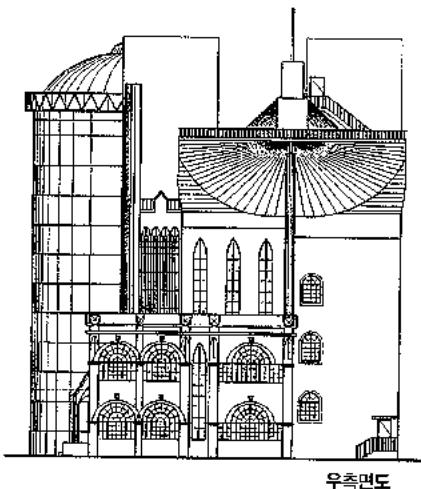
평면은 중앙에 Main홀을 배치하여 홀 좌우측에 있는 예식홀로의 진입동선이 수월하도록 하였고 홀에는 전망 Elev, 계단실, 화장실 등을 배치하였다. 본관의 3, 4층에는 150석, 300석 규모의 예식홀을 두었으며 1, 2층에는 하객을 위한 식당, 커피숍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였고 지하층에는 대형 한증막을 설치, 선큰가든을 통해 충분한 채광을 확보하였다. 5층의 선박형상의 내부에는 좋은 조망을 고려해 라이브 음악을 겸한 정통레스토랑을 배치하였으며 6층에는 전망대와 선박 갑판으로서의 옥상 휴게공간을 마련하였다. 본관 외벽은 드라이비트 처리로 인해서 건물의 외형상 다소 난이도가 있었으나,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서 시공이 마무리 되었다.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옥상의 선박모양의 장식탑이 설치될 경우 이 건물이 웨딩홀로서 장흥의 새로운 명소로 한층 더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건물에 대하여 계획에서부터 마무리 될때까지 다방면으로 적극 배려해주신 김종옥시장과 시공을 위해 힘쓰신 전유종소장 이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일영리 5-1
지역지구	준 농림지역
대지면적	6,743.00㎡
건축면적	1,176.55㎡
연 면 적	6,948.04㎡
건 폐 율	17.45%
용 적 률	81.68%
규 모	본관 - 지하1층, 지상6층 별관 - 지하1층, 지상4층

용 도	본관 - 웨딩홀 및 근린생활시설 별관 - 토속음식점 및 숙소
구 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외부마감	본관 - 드라이비트+컬러암마늄창호 별관 - 우드사이링+컬러알마늄창호
설계담당	박복길, 김순철
외벽시공	시스템 (주)
인테리어	에스디자인
시 공 자	동일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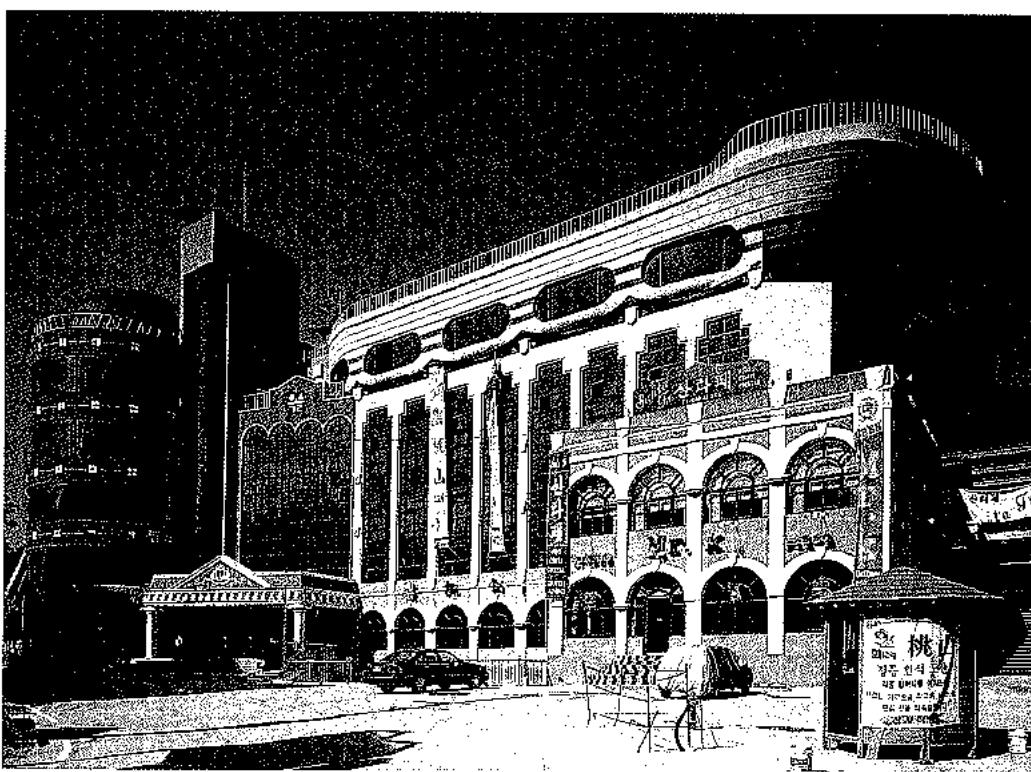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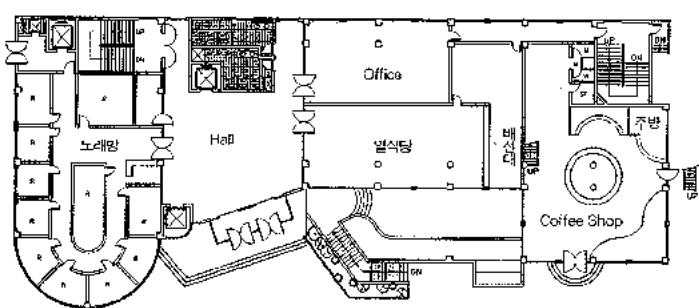
1층 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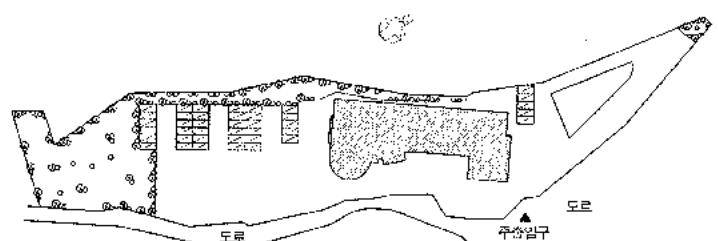
선근가든



전경



1층 평면도



배치도



복동축 밖면 상세

뜰네 집

House with a Courtyard

이영성 / 종합건축사사무소 회원

Designed by Lee Young-Sung

점포가 있는 주택…

흔히들 아래층에 점포가 있고 2층에 주거공간, 또는 같은 층이라도 특색 없는 점포 공간의 연출 - 주위에 많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점포 주택 - 에서 벗어난 디자인을 하고 싶었다.

하늘이 좋고, 나무가 좋고, 공기가 좋은, 앞이 높이터 공원으로 확트인 대전 외곽 지대의 신생 주거지라 그에 걸맞은 건물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새로운 점포 주택의 유형도 만들고 싶었고…

더구나 건축주는 꽃가꾸기를 좋아하고 하얀색의 건물을 원하였기에, 아예 꽃화분이 위치하여 건물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외관을 계획하였고, 후면 또한 파출소 건물이 뒤로 물려나 있어 어느 방향에서나 좋은 외양을 갖춘 건물을 만들어야 했다.

주택이라 담장도 있고 점포로서의 특색도 있어야 하겠기에, 예라! 점포건을 전면 벽을 연장시킨 날개 벽으로 담장을 대신하였고, 마당 잔디를 바깥으로 끌어내고 싶어 큰 바위 하나를 마당 출입구에 붙여 불규칙한 개구부 공간과 함께 어울리도록 하였는데, 시공자가 그만 조그마한 돌 하나를 붙여 놓았다.

내 땅 다 차지하겠다고 대지 경계에 바짝 붙여놓은 담보다 내 땅 조금 내주어 잔디 심고, 나무 심고, 돌 놓고, 담장 날개 펼치니 조금은 여유 있어 보인다.

점포는 Coffee전문점으로서의 공간 연출과 주택과의 분리를 위해 독립된 지붕 처리를 하여 천장 공간은 지붕 면까지 끌어올려 뜰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개방감을 연출시켰으며, 그 앞마당은 옥외 Cafe로서 영업공간을 구분짓기 위하여 주택 부분의 마당과 Level차이를 두어 분리시켰다.

주택 주출입은 후면에 대문 대신 3개의 파이프 구조물에 조명 처리하여 개방시켜 현관을 위치시켰으며, 점포는 그 현관을 통하여 주거부분을 연결시키므로써 주거부분과 완전 분리하면서, 동선은 상호 쉽게 연결되도록 처리하였다. 점포 전면도 사용 면적이 다소 줄지만 직선의 단조로움을 피하고, 외부시설을 끌어들이기 위해 유리를 곡면 처리하였다.

주거 부분은 도로에서 내측으로 후퇴시켜 배치하므로써 도로 소음에서 멀어지게 처리하였고, 따라서 이 배열은 도로 방향에서부터 외부마당, 담장과 점포, 주택의 순서로 여유있게 배치하고 Level도 점차 높아지는 형태로 처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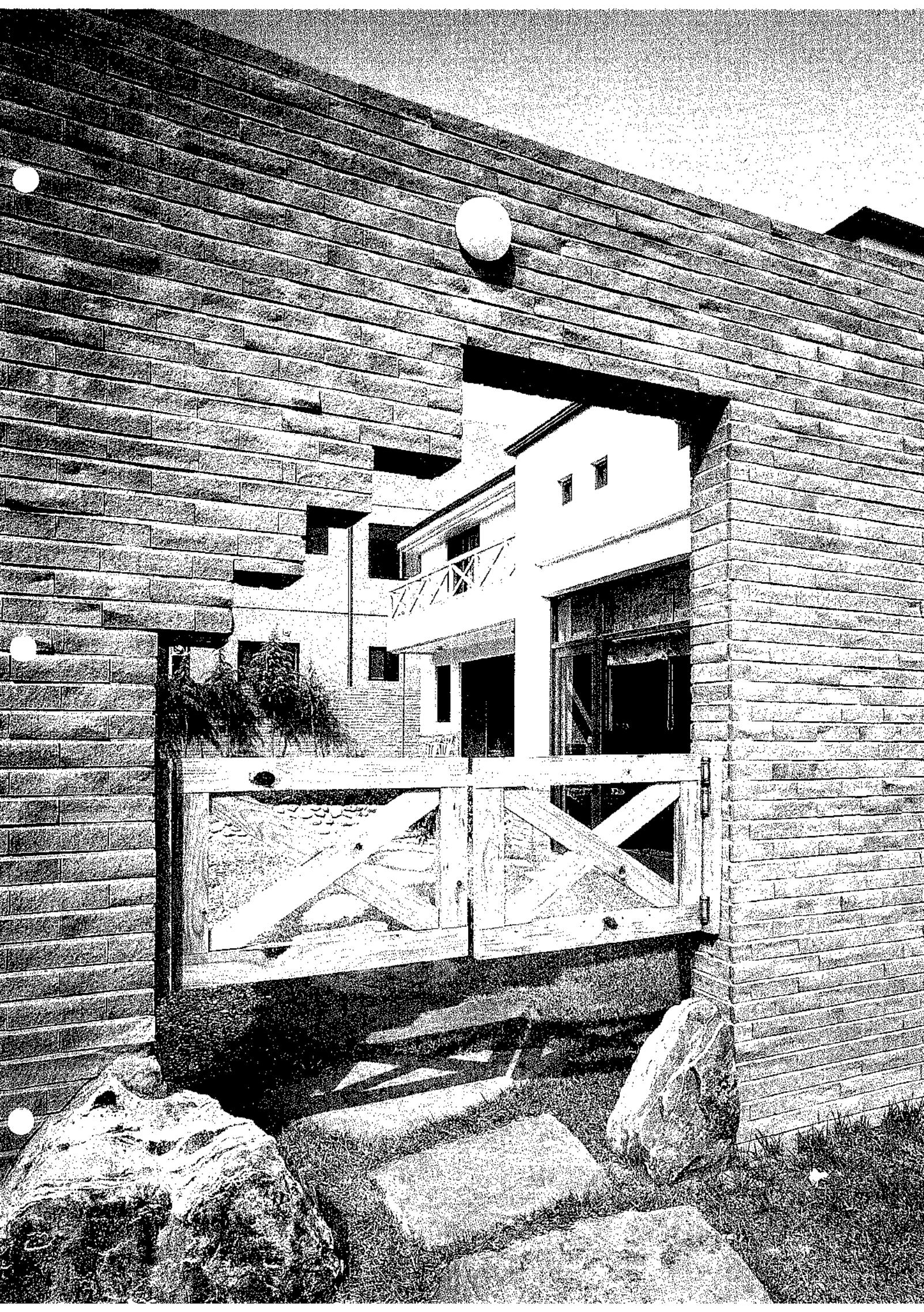
역시 여유가 있어야겠다는 것을 느낀다.

근간 아파트, 다가구 주택 등의 밀집속에서 모처럼 하늘의 공간을 연출해보고, 땅의 공간을 느껴본다. - 인근에도 꽉 찬 건물들이 많다 - 그러나 그러한 여유가 마음의 풍요와 함께 경제적인 수익성도 같이 따라 온다하니 참 좋다….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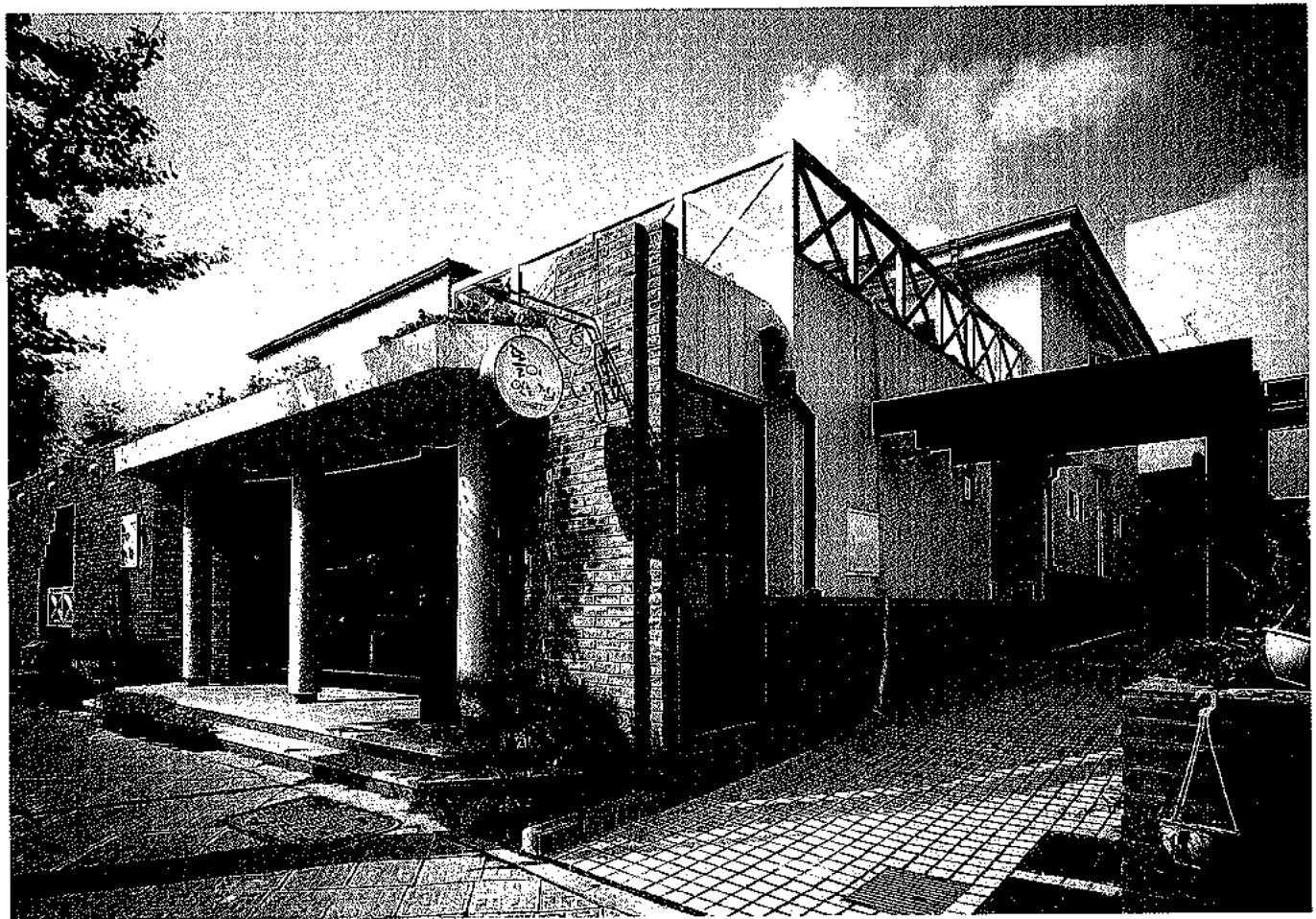
대지위치	대전시 유성구 신성동 141-3
지 역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359.5m ²
건축면적	130.84m ²
연 면 적	175.96m ²
	주택연면적 - 115.03m ²
	점포연면적 - 60.93m ²

건 폐 율	36.39%
용적률	48.95%
규 모	지상2층
구 조	조적조
주차대수	2대
외부마감	하겐 + 세라믹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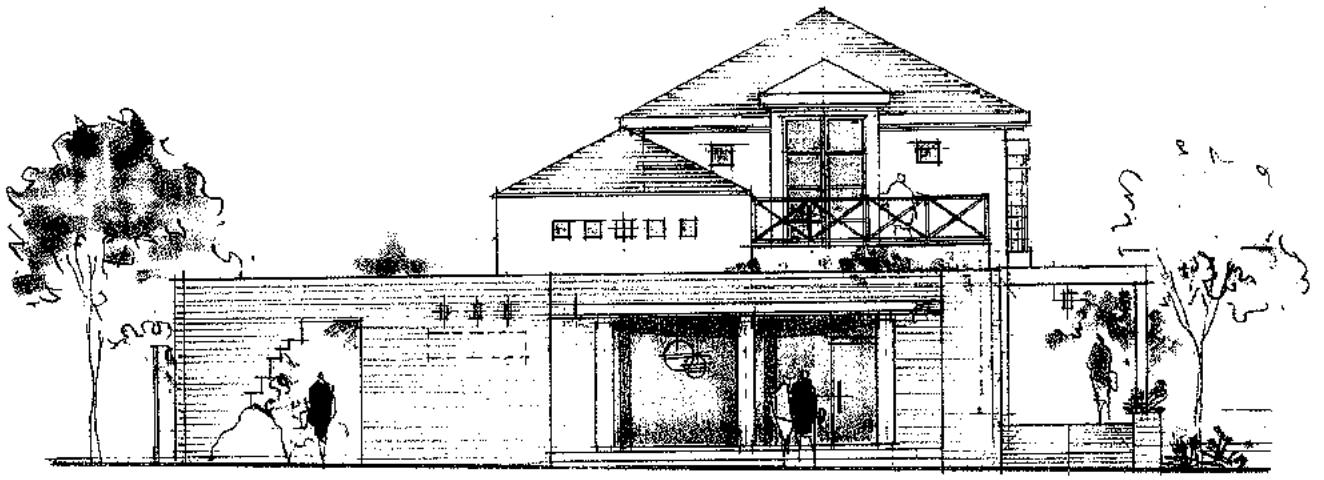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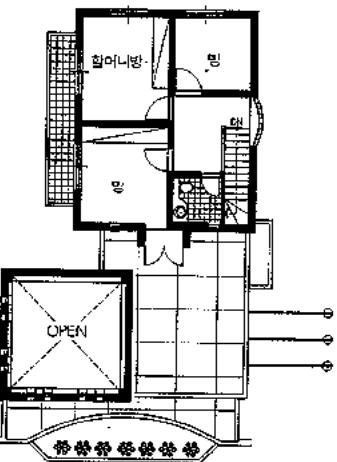
남측전경(정원 및 옥외카페)



동측 전경



동측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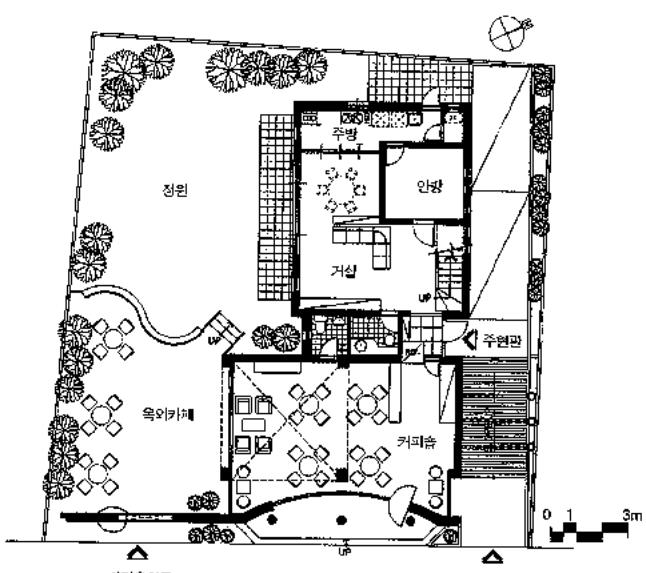
2층 평면도



서쪽전경



1층 커피숍



8m도로

배치도 및 1층 평면도



1층 거실

신성건설사옥

Shinsung Construction CO. Bldg.

유봉정 / 우립건축 + 소명식 / (주)그룹포럼건축
Designed by Yoo Bong-Jung & Soh Myung-Shik

건축주는 개방감이 있는 커튼월 입면과 곡선형태를 요구하였다.

계획설계를 진행하다보면 때로는 대지조건과 Project 성격에 맞지 않는 무리한 요구조건도 있으나, 어떤 요구들은 새로운 Design을 창출해 내는 자극이 되기도 한다. 다행히 건축주는 원론적인 제안외에는 설계자에게 일임하였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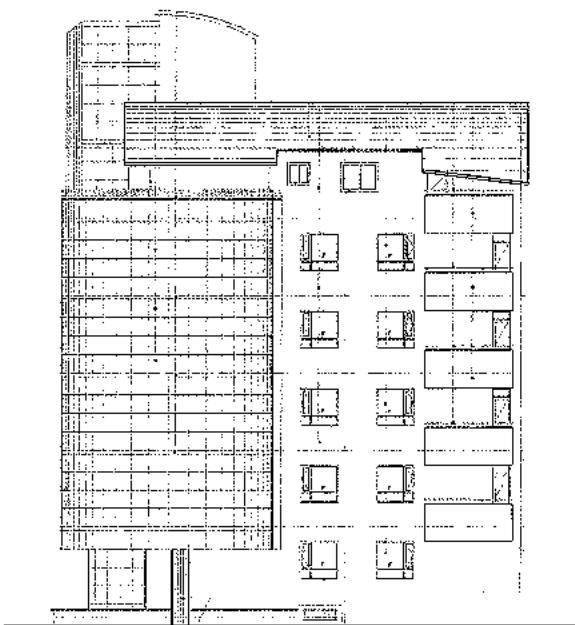
• 평면개념 - 부지가 1개도로에만 접해 있었기 때문에 Core위치와 주차진입로 확보관계로 주사무실의 남향배치가 약화되는 아쉬움이 있었고 기존층에서는 주차진입로 상부를 이용하여 남향배치와 개방성을 보완하였다. 부지협소로 지하주차시 원활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아쉬움이 남는다.

• 입면개념 - Soft한 느낌의 Glass와 Hard한 느낌의 석재를 이분화 하였으며, 재료와 높이에 따른 조절로 자칫 단순할 수 있는 Mass의 분절을 유도하여 활력을 주었으며, 최상층 주택 지붕을 곡면화 하여 Sky Line의 변화를 주었으며 시각적 인지도를 고려하였다.

평소의 지론대로 건축주만의 건물이 아닌 모든이가 기능적, 시각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건물이 되었으면 하였고 신성건설에서 Design 의도대로 시공되도록 노력해 주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올려다 본 북측벽면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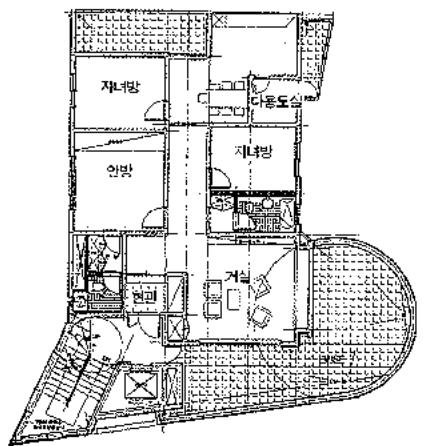
우측면도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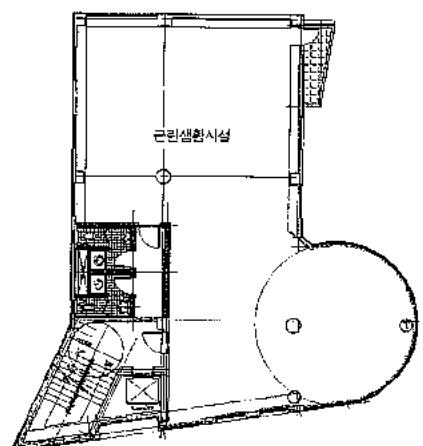
대지위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12-7
지 역	준공업지역
주 용 도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건축면적	214.53m ²
연 면 적	1,644.60m ²
건 폐 율	66.85%
용 적 율	385.15%
규 모	지하2층, 지상6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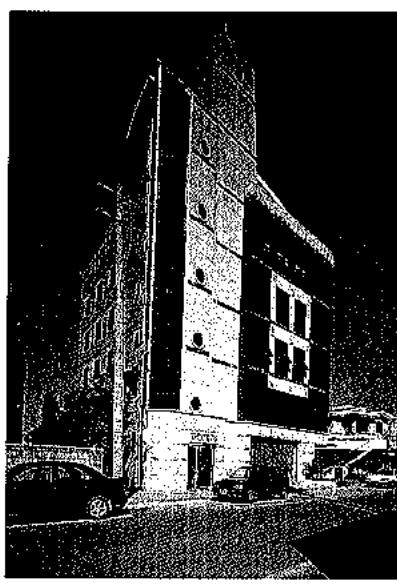
북동측 전경



6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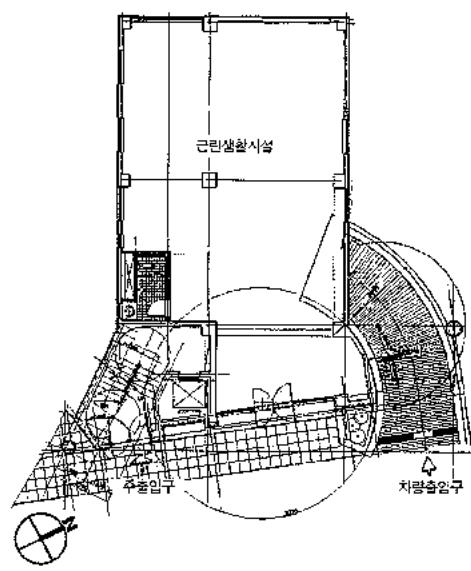
3~4층 평면도



남측전경



계단실



1층 평면도

Cool Tube 시스템 성능 연구

A Study on the Performance of Optimum Cool Tube System

박효순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건축환경연구팀 책임연구원, 공학박사
by Park Hyo-Soon

1. 개요

세계의 에너지파동 이후 여러 분야 중 건물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관련 연구소, 학교, 산업체와 정부의 노력으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지하에너지 이용한 건물의 자연냉방기술은 아직까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여 그 결과가 미미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때에 건물에너지 절약기술에 대한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에너지 절약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건물연구부에서는 4년간(1994.7~1998.8)에 걸쳐 초에너지절약형 건물(약 300평)연구 및 시범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초에너지절약형 건물에 적용되는 기술은 여러 가지 많지만 이중에서 Cool Tube 시스템을 이용한 지하에너지 이용분야는 특히 건물에 냉난방부하를 저감시키는데 필수요소 기술로 평가되고 있는 기술로써 일본의 경우에는 1983년에 오바야시 구미 기술연구소에서 초에너지절약형 건물에 적용되는 사례가 있고 교토대학은 물론이고 구마모토 대학 역시 지역 공동연구소 단지내에 실제 모델주택을 건설하여 Cool Tube를 설치하여 관련 실험시설을 갖추어 많은 연구결과를 도출하기도 하였으며 적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는 대우건설기술연구소에서 1993년에 초에너지절약형 건물을 건설, 이미 적용한 사례도 있으나 아직 이론적인 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스템의 개발과 보급에는 많은 시간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초에너지절약형 건물에 적용시키고자 하는 Cool Tube를 이용한 자연에너지 이용기술은 신선한 외기를 지하에 매설된 관에 유입시켜 지하의 열원과 열교환을 시키므로써 하절기에는 예냉된 공기를 공조기로 보내 공조부하(냉방)를 감소시켜 주고 동절기에는 예열된 공기를 이중외피의 하부에 공급하여 난방에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본 고에서는 초에너지절약형 건물의 Cool Tube시스템의 열적 성능을 최대로 극대화 시키기 위한 최적 Cool Tube시스템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Cool Tube를 이용한 지중열교환 시스템의 열적성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외기온도, Tube의 직경, 매설깊이, 흙의 열전도율, 공기의 유량, 지중의 수분함습률 등을 고려하여 Cool Tube의 성능을 분석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적용 가능한 시스템중 열성능이 우수한 최적 Cool Tube의 성능을 도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추출된 이론치들의 정확성을 파악하고 수정보완하기 위하여 실험을 하였다. 이론치와 실험치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장시간의 Cool Tube의 운용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에 의한 결과나 실험결과는 거의 일치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ool Tube의 성능에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므로써 실제 우리 연구소내에 건립 예정인 초에너지절약형 건물의 Cool Tube시스템 최적설계치(안) 및 지침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도출된 연구결과는 대상건물에 따라 Cool Tube 시스템의 열적 성능 평가기법과 최적 Cool Tube시스템의 설계치를 산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므로써 Cool Tube 시스템을 이용한 자연에너지 이용기술의 활성화를 유도하게 되었음은 물론 세계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키는데 크게 기여 할 수 있다고 본다.

2. 이론적해석의 개요

Cool Tube내의 응축 및 열전달을 위하여 Tube 내를 미소제어 체적에 대하여 Cool Tube의 단면이 길이방향을 변화가 없이 일정하고 공기의 밀도와 비열 등은 각각의 제어체적 내에서 일정하다고 보고 공기의 평균온도의 합수로 해석하므로써 열역학적 열균형을 고려하였으며, 이때 벽으로의 열전달은 공기의 평균온도와 벽온도와의 합수로 주어지며 물의 응축으로 인한 열

손실은 습도의 함수로 주어지게 된다.

또한 지하에 매설된 Tube로 유입되는 공기는 수분을 함유하고 있다. 그런데 하절기의 경우 유입된 공기는 전반적으로 지중온도보다 높아 Tube내에서 냉각되므로 각 위치에서 수분의 분압(Partial Pressure)이 그 온도에서의 포화온도보다 낮으면 응축하게 된다. 이 때 응축되는 수분은 응축열을 발생하게 되며 이것은 수분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보다 온도를 높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응축열에 의한 효과를 고려해야만 하는데 이에 대해 질량보존법칙과 열역학 제1법칙을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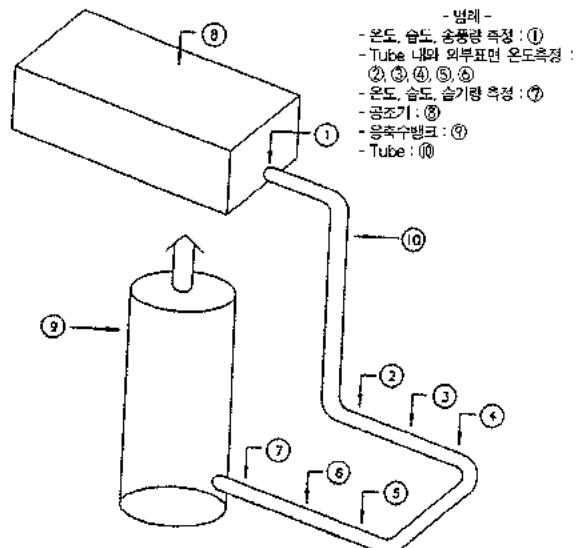
그리고 지중 열전도를 해석하기 위하여 지배방정식을 세우며 이를 전산해석하기 위하여 차분방정식을 도출하였으며 사용되는 해석프로그램을 간략화하기 위하여 비대각 성분을 나타내는 항들은 Explicit하게 처리하고 대각성분만을 Implicit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2차원의 경우 한점의 Node에 주변 9개의 Node에 대한 메모리를 5개로 절감할 수 있고 3차원의 경우에는 주변 27개의 메모리를 7개로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간에 대한 차분화는 시간간격을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 원전해법을 적용하고 격자간의 온도분포는 1차선형으로 기정하여 차분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초기조건은 외기조건으로 대전지역의 연중 기상자료를 이용하였으며 Cool Tube의 입구로 유입되는 공기의 상태는 외기와 같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지중의 온도분포는 6월 15일의 지중온도를 깊이에 따라 곡선맞춤하여 사용하였다.

3. 해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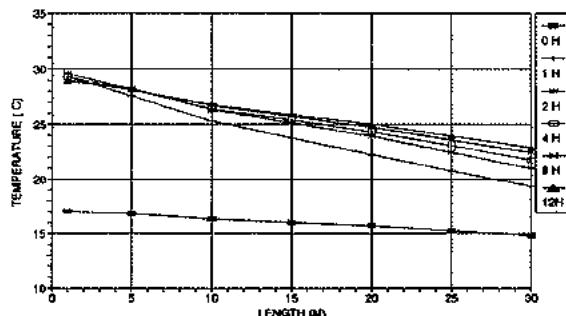
3.1 이론치와 실험치 비교

앞에서 제시한 방정식을 바탕으로 작성된 프로그램의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험치와 비교하도록 하였다. 본 실험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급온도와 송풍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공조기를 구입, 설치하였고 Cool Tube는 매설깊이를 3m로 정하였으며 관의 길이는 30m, 관경은 20cm, 관의 재료는 스테인레스를 선정하였다(그림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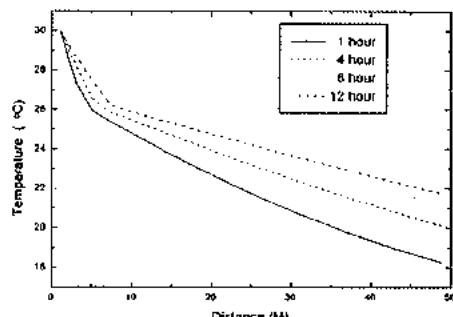
이와 같이 실험장치를 설치하여 실험을 한 결과 0.5~1시간까지는 공조기를 통과한 공기와 지중과의 온도차이로 인하여 극심한 온도변화를 보여주나 이후의 온도는 어느정도 안정이 되어 2시간이 경과한 후부터 12시간 경과할 때까지 출구온도는 약 1°C정도의 편차(그림2)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론적 결과(그림3)를 고찰해보면 마침가지로 4시간 이후부터 안정되기 시작하여 12시간이 경과한 후의 출구온도는 23.7°C로 나타났고 실험치는 23°C가 되어 0.7°C의 차이가 있으나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 운용을 하게 된다면 거의 일치하리라 판단되어 작성된 프로그램의 정확성이 평가되었다.



(그림1) Cool Tube 성능 실험 장치 개요도



(그림2) 실험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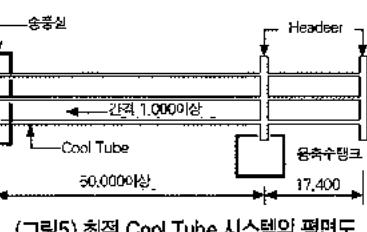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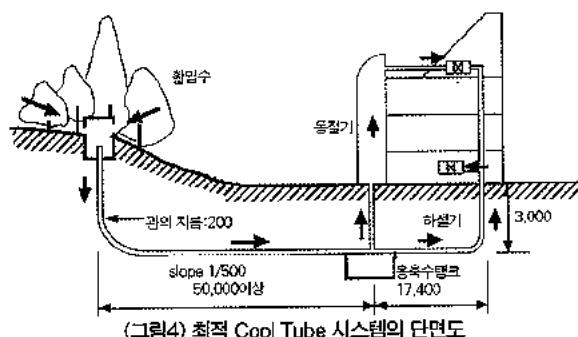


(그림3) 이론해석 결과

3.2 단기간 운전시 Cool Tube 성능

Cool Tube 성능을 분석하기 위하여 외기온 30°C, 상대습도 80%인 공기를 지중온도가 14°C인 지중에 매설깊이 3m로 유량 30CMH를 직경 20 cm, 관길이 50cm인 경우를 표준으로 잡고 12시간 연속 가열할 때의 관내 공기온도의 변화와 지중온도의 변화를 예측하여 고찰하였다. 그림2에서 가동시간이 1시간인 경우 관길이 2.5m 와 5m사이에서 온도구배가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2.5m~5m에서 공기온도가 강하하여 응축이 일어나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 응축개시점이 더 하류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관내 공기온도의 상승에 따른 응축개시점의 이동 때문이다. 관출구 온도는 1시간에서 18°C이었으나 12시간에서 22°C로 상승하여 4°C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흡기온도 30°C로 12시간 기동은 국내에서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국한 조건이므로 실제 Cool Tube 운전에서는 이보다 온도 상승이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응축이 전혀 없다고 가정한 해석도 해 보았는데 대체적으로 관출구 온도가 응축이 있는 경우보다 2°C 이상 더 강하하여 응축의 효과가 Cool Tube 성능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시험 운전에서는 응축효과가 이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되나 우천시는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유량이 300CMH에서 450CMH, 900CMH로 상승됨에 따라 관출구 온도가 300CMH에 비해 약 2°C, 4°C 증가하여 유량변화가 Cool Tube 성능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3 유량에 따른 Cool Tube의 성능변화

〈표1〉은 관길이 50m, 관경 20cm, 매설깊이 3m인 경우 유량을 Q=450CMH, Q=900CMH로 변화시켰을 때 3달동안의 결과를 나타낸다. 연구결과 Q=300CMH와 비교하면 Q=450CMH인 경우는 약 3°C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기 온도 20°C를 냉방시작온도로 보았을 때 관길이 50m인 경우는 300CMH가 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4 매설 깊이에 따른 Cool Tube의 성능 변화

〈표2〉는 Q=300CMH, 관경 20cm, 관길이 50m일 때 매설깊이를 2m, 3m, 4m로 한 경우 3달동안의 결과를 나타낸다. 매설깊이가 2m인 경우 3m인 경우보다 공기 출구온도가 1°C정도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4m로 한 경우에는 3m인 경우보다 약간의 온도강하가 있으므로 3m 이하로 매설하는 것은 Cool Tube성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음을

〈표1〉 유량변화에 따른 3개월간 총냉방열량 비교

유량(CMH)	현열(GJ)	잔열(GJ)	총열(GJ)	현열비	잔열비
300×3개	10.92	3.119	14.09	77.78%	22.22%
450×2개	9.364	1.308	10.67	87.74%	12.26%
900×1개	6.151	0.1607	97.45	97.45%	2.55%

관경=20cm, 관길이=50cm, 매설깊이=3m

〈표2〉 매설깊이의 변화에 따른 3개월간 총냉방열량

길이(m)	현열(GJ)	잔열(GJ)	총열(GJ)	현열비	잔열비
2	10.09	2.198	12.29	82.12%	17.89%
3	10.92	3.119	14.04	77.78%	22.22%
4	11.95	4.688	16.64	71.83%	28.17%

관경=20cm, 관길이=50cm, 유량=300CMH×3개

〈표3〉 관길이에 따른 3개월간 총냉방열량

거리(m)	현열(GJ)	잔열(GJ)	총열(GJ)	현열비	잔열비
30	8.733	0.9255	9.658	90.42%	9.58%
50	10.092	3.119	14.04	77.78%	22.22%
70	12.10	5.373	17.47	69.24%	30.76%
150	15.16	12.14	27.30	55.53%	44.47%
200	16.60	15.14	31.75	52.30%	47.70%

관경=20cm, 관길이=3m, 유량=300CMH×3개

알 수 있다.

3.5 관길이에 따른 Cool Tube의 성능 변화

〈표3〉은 Q=300CMH, 매설깊이 3m, 관경 20cm에서 관길이를 30m, 70m, 150m, 200m로 한 경우 3달동안의 결과를 나타낸다. 관길이를 30m로 한 경우는 50m인 경우보다 관출구온도가 약 2°C 상승하였고 70m로 한 경우는 1°C 강하하였다. 따라서 관길이가 길어질수록 온도강하율이 둔화됨을 알 수 있다.

3.6 오소별 냉방열량의 비교

각 변수의 변화에 따른 냉방열량의 변화를 계산하여 표로 제시하였다. 이는 6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3개월간 건열과 잡열의 모든 냉방열량을 하여 정리한 것으로 이 표가 Cool Tube의 성능을 정량적으로 잘 나타낸 것으로 이 결과는 앞에서 관출구 온도변화에서 설명한 경향과 일치한다.

4. Cool Tube시스템의 최적 설계치(안)

및 시공지침

4.1. 최적설계치(안)

초에너지절약형 건물에 적용시켜야 할 Cool Tube시스템의 송풍량을 900CMH로 기준할 때 최적설계치(안)는 다음과 같다.

- 1) Cool Tube의 관경 : 200mm, 2) Cool Tube의 갯수 : 3개, 3) Cool Tube의 길이 : 최소 50m이상, 그러나 가능하다면 70~100m가 적합함, 4) Cool Tube의 매설깊이 : 3m, 5) 매설관의 인접거리 : 1.0 m 이상, 6) Cool Tube의 사용자료 : 스테인레스 강관

4.2 Cool Tube 설계 및 시공지침

초에너지절약형 건물의 Cool Tube 시스템의

설계 및 시공지침은 다음에 따른다.

1) Cool Tube의 길이 및 위치 :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바와 같이 Cool Tube의 길이는 급기위치에서 동절기 출구부위까지의 길이가 최소 50m 이상 되어야 하나 70~100m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0] 이상의 길이가 충족되는 장소에 급기위치를 정하도록 한다.

2) Cool Tube의 매설깊이 : Cool Tube의 매설깊이는 3m으로 하되 깊이의 기준은 건립대상 건물의 바닥면으로 한다.

3) Cool Tube의 곡관부분 : Cool Tube가 곡관을 이루어 마찰저항이 크게 예상되는 곳의 반경은 최소 200mm 이상으로 한다.

4) 송풍실의 구조물 : 급기가 되는 부분에는 송풍기 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빗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될 수 있는 한 단열재를 설치하여 내외부의 직접일사나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며 충분한 급기가 되도록 Grill을 설치하도록 한다. 또한 송풍실은 송풍 Fan의 설치가 용이하고 작업자의 활동이 용이한 넓이와 천장고를 갖도록 한다.

5) 송풍실 구조물의 외부 도색 : 송풍실의 외부 도색은 주위 경관과 조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며 태양열의 영향을 덜 받는 색체를 사용도록 한다.

6) 송풍실 주위의 조경 : 송풍실 주변에 조경을 하되 통풍이 순조롭게 되도록 활엽수를 식수하므로써 하절기에는 그늘이 지게하여 급기온도가 상승되지 않게 하며 동절기에는 태양열의 영향으로 급기온도가 상승되도록 한다.

7) 송풍실의 Fan설치 : 송풍실의 급기용 Fan은 송풍량이 900CMH가 되도록 선정하여 설치도록 한다.

8) Cool Tube의 사용재료 및 설계 : 사용되는 Cool Tube는 내구성과 토양과의 열교환이 우수한 스테인레스 강관을 사용하므로 관과의 연결부분은 용접처리가 되어 습기가 침투되지 않도록 한다. 스테인레스 강관은 매설 깊이에 따른 하중이나 압력에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두께로 하고 관의 직경은 300mm로 한다.

9) 응축수 탱크 및 Sub-Pump의 설치 : 관내부에 온도차에 의한 결로가 발생하여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건물인접부분에 출입이 가능한 규모로 응축수 탱크를 설치하도록 하며 일정규모의 응축수가 발생되었을 때 이를 제거할 수 있도록 Sub-Pump를 설치한다. 아울러 응축수 탱크안으로 습기가 침투되지 않도록 방수가 철저히 되도록 한다.

10) Cool Tube의 침하방지 : Cool Tube의 길이가 최소 50m로 길기 때문에 부동침하로 인하여 관의 변형이 되지 않도록 지반디짐을 철저히 하도록 한다.

11) 헷다의 재료 및 설계 : 헷다의 재료는 Cool Tube와 같이 스테인레스로하고 Cool Tube의 갯수가

3개이므로 하절기와 동절기 출구 부위 2곳에 헷다를 설치하여 열분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헷다 내의 Slope를 두어 발생된 응축수가 고이지 않도록 한다.

12) Cool Tube의 매설 간격 : 설치된 3개의 Cool Tube는 각각의 간격이 1.5m 이상이면 열설능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러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13) Cool Tube의 댐퍼설치 : 하절기와 동절기의 열공급을 구분하기 위하여 또한 송풍량의 조절을 위하여 각 부위에 댐퍼를 설치하되 자동온도 감지기를 설치하여 감지기에 따라 댐퍼가 작동되도록 한다.

14) 응축수 탱크와 Cool Tube의 접합부위 : 응축수 탱크와 Cool Tube의 접합부위로 습기가 침투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시공하도록 한다.

15) Cool Tube의 Slope : Cool Tube의 Slope는 1/500으로 하여 설치된 응축수 탱크에 집수되도록 한다.

5. 결론

이 연구에서는 Cool Tube 성능을 이론적으로 예측하기 위해 Cool Tube의 곡률격자망을 그리고 자중 열전도 해석을 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관경은 Cool Tube 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며 $Q=900\text{CMH}$ 인 경우 직경 30 cm인 관 3개를 매설하여 각각의 관에 300CMH의 풍량을 분담하여 가동하는 경우가 가장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관길이의 성능에 대한 영향은 30m, 50m, 70m의 3경우에 대해서 해석해 본 결과 50m 이상에서 Cool Tube 성능향상이 성능이 서서히 둔화되어 70~100m 정도가 적합함을 알 수 있다. 3) 매설 깊이는 2m, 3m, 4m의 경우에 시험해 본 결과 2m인 경우 성능이 매우 떨어졌으나 4m인 경우는 3m인 경우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Cool Tube 입구부근과 출구부근의 자중온도 상승이 현격히 다르므로 매일 교대로 유동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설계가 된다면 성능이 향상되리라 본다. 5) 공기의 응축현상은 Cool Tube성능에 지대한 영향을 주며 응축현상의 존재는 공기출구온도를 약 2°C 상승시킨다. 6) Cool Tube에 유입되는 풍량이 300 CMH, 관길이 50m, 매설깊이 3m인 경우 관매설 간격을 1.5m 이상으로 하면 관사이의 간섭효과를 무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총 900CMH의 풍량이 300CMH의 풍량으로 지중 3m에 관경 30cm인 길이 50m의 관 3개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난간 $5.44 \times 10^7\text{kJ}$ 로 약 13 Mcal/m²year의 에너지가 지중열전달을 통하여 절감된다.

협회소식 / 80

건축계소식 / 84

현상설계경기 / 92

계획작품 / 96

해외잡지동향 / 100

인터넷 건축여행 / 106

통계(설계도서신고현황) / 108

신입회원 / 110

게시판 / 111

협회소식 KIRA news

제32회 정기총회 개최

98년도 회계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우리협회 제32회 정기총회가 지난 10월 14일 오전 11시 협회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9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등 9개 부의

안건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이루어졌다.

재적대의원 6백35명중 4백93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는 이항렬 건설교통부차관 보와 시라이시 세이찌 일본건축사연합회 부회장, 협회 자문위원 등 내·외빈이 함께 자리한 가운데 오전 11시에 개회돼 주요업무보고와 감사보고, 부의안건 처리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김영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변화와 도전에 직면한 오늘의 건축환경이지만 현실이 어려울수록 뛰어난 현실감각으로 이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자주적인 건축·자율적인 건축사·자립적인 건축사협회」를 모토로 이를 체계화·조직화할 수 있는 종장기발전계획을 ‘건축사백서’라는 이름으로 내년 총회에 제출하겠다”고 앞으로의 업무 계획을 밝혔다.

제32회 정기총회 / 개회사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 멀리 지방에서 오신 대의원 여러분! 노고
가 크셨습니다.

오늘따라 더욱 淸明한 기운하늘은 우리 건축사의 미래를 보다 높고 푸르게 축복하는 것 같습니다.
이 좋은 날, 건설교통부 李鄉烈 차관보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빛내주시기 위해 멀리 일본에서 참석해주신 「일본건축사회 연합회」의 시라이시 세이찌(白石靜一) 부회장님 일행,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협회 역대 회장님들과 만장하신 대의원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제3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의 우리 협회가 서른 두돌을 맞기까지 뜨거운 애정과 크나큰 협조를 해주신 전국의 6,700여 회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21세기를 눈앞에 둔 최근 몇 년동안 우리는 대내외적으로 수많은 變化와 挑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WTO·OECD 등으로 오약되는 國際開放의 물결이 도도히 밀려오고 있고, 안으로는 규제혁파·구조조정·국가경쟁력 제고 등으로 이어지는 國內開放의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二重苦의 현상입니다. 여기에다가 景氣不況에 따른 경제적 고통은 가히 三重苦를 겪어야 되는 최악의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볼 때, 이러한 고통은 우리 건축사만이 아닌 우리 국민 모두의 아픔인 동시에 오늘의 世紀末을 함께 살고 있는 온 인류의 시련임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건축사는 이러한 고통과 시련이 가중될수록 현명하게 대처할 지혜와 능력을 갖춘 「전문가 집단」입니다.

끌없는 創意와 創作을 기본으로 하는 「未來의 設計者」가 바로 우리 건축사가 아니겠습니까?

뛰어난 현실감각과 놀라운 미래감각은 기필코 이 轉換期의 고통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오히려 世紀末의 위기를 轉禍為福의 계기로 置華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오늘 총회의 관심사가 될 공정거래위원회의 「설계경업」 문제와 내년으로 연기된 「전국건축사대회」가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현안들입니다.

지난달 전국의 모든 회원님들에게 회장書信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만, 「설계경업」 문제는, 公正委가 끝까지 주장한 자기시공공사와 턴키공사는 우리의 주장대로 비토되고 말았고 다만, “2,000년도에 가서 그 확대여부를 재검토 하되 자가업무용 건축물에 대해서만 내년부터 허용” 하기로 결론이 났습니다.

물론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보이지 않는 숱한 우여곡절을 겪은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음 제기한 3 가지 엄청난 요구사항, 즉 첫째, 건축사사무소의 대표자를 임의화 하자 둘째, 건설회사가 설계와 감리업무까지도 하자 셋째, 건축사사무소의 명칭도 임의화 하자는 등 우리 건축사의 「代表牲과 고유업무」까지 말살시키려 했던 엄청난 核風을 상기해 볼 때 今昔之感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음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의원 여러분께서도 다소 아쉬움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시대적 추세가 우리에게 절대 불리한 상황에서 그나마 건교부가 끝까지 우리의 정당한 주장을 뒷받침해 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 상대는 재벌과 모든 경제단체로서 우리에게 충공세를 퍼부어 왔던 점을 감안할 때, 대국적인 이해와 아량이 지금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어 이항렬 차관보가 건설교통부 장관 치사를 대독하고 시라이 세이자 일본건축사연합회 부회장이 양국 건축사회가 우호관계를 더욱 돋구히 향후 국제간 제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공동협력해 나 가자는 내용의 축하메시지를 우리말로 전하자 대의원들은 큰 박수로 이에 화답 했다.

한편 이번 총회는 회의초반부터 지난 8 월말 정부의 규제개혁추진회의가 자작업 무용 건축물에 한해 건설업체에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여러 대의원들이 이 대책마련을 요구하자 이를 제1호의안 으로 상정, 열띤 논의를 펼쳤다. 특히 일부 대의원은 '자작업무용 건물'이라는 것이 건설회사의 자체 '사옥' 만을 의미 하도록 건축법과 건축사법 개정시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협회차원의 강력한 대처를 요구하기도 했다. 결국 이 안건은

논의 끝에 기존 협회발전위원회 비상대 책분과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건축사법 개정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법개정시까지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으로 결의되었다.

이밖에 올해 정기총회의 각 부의안건별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의안 : 건축사법 개정에 대한 대 책의 건



정기총회 광경

- 건축사법개정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함(위원은 협회발전위원회 비상대책 분과위원으로 함.)

- 제2호의안 :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 정부의 규제개혁추진회의의 결정에 따라 내년 상반기중 건축관련법이 개정될 것을 감안, 유보키로 함.

- 제3호의안 : 임원 선거관리규정 제정 승인의 건

- 본협회 및 시·도건축사회의 공정한 임원선거를 위해 새 규정을 제정코자 상정한 원안을 통과시킴.

- 제4호의안 : 98년도 전국공통운영비 결정의 건

- 97년도와 동일하게 적용키로한 원안 통과

- 제5호의안 : 회관재건립 추진계획(안) 승인의 건

- 현 회관의 사무공간 부족과 향후 협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히려 보다 중요한 것은 향후, 건설교통부와의 법개정 과정에서 '자작업무용' 이런 용어가 결코 왜곡되거나 확대 재생산 되지 않고 사무소(사옥)에만 국한되도록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일이며, 집행부는 앞으로 혼신의 힘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건설교통부 李鄭烈 차관보님께 初志一貫 아낌없는 지원을 다해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전국건축사대회」의 연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건축사대회와 관련해서 정해진 오늘의 총회장소가 협회강당으로 뒤늦게 변경된 것에 대하여 집행부의 험으로서 먼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건축사대회는 원래 오늘 개최하기로 예정되었았습니다만, 내년으로 연기한 것은 다음의 3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사회 전반에 걸친 경기불황으로 대규모 이벤트행사나 축제행사는 자제하시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둘째는, 공정위 관련문제가 일단락된 현 상황에서 대정부 압력이나 수단으로서의 효용가치는 상실되었다는 판단이었으며 세째는, 더욱이 의무적인 연수교육이 아닐 경우 대회 참가율을 보장할 수 없다는 시·도건축사회의 견의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사대회 집행위원회와 시·도회장회의 그리고 이사회와 결정에 따라 부득이 내년 5월경으로 연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년의 시기적 의미는 새정부 출범 이후와 지방자치선거를 앞둔 타이밍을 최대한 활용하고, 개방정책과 생업의 진로를 더욱 면밀히 연구검토하는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집행부의 고뇌 끝에 내려진 결정임을 심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98전국건축사대회」는 과거와는 달리 미국이나 일본의 건축사대회처럼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자주적인 교육프로그램에 의한 수준높은 행사를 계획함으로써, 대내외 개방시점에서 협업에 꼭 필요한 교육내용, 건축사문제와 건축계 이슈에 대한 대토론의場 마련 그리고 회원간의 공동체 의식과 안간적 유대강화를 위한 祀祭행사 등 보다 획기적이고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꼭 준비해 보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함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前進이나 後退나를 결정짓는 이런 중대한 시기에 우리는 그동안 「설계겸업」 문제라는 소모성 논쟁속에 휘말려 우리의 에너지를 끝없이 소진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협회는 "건축·건축사·건축사협회의 내일"을 위해 그야말로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이미 지난 7월「건축연구소」를 본격 출범시켰고, 모든 회원님들이 갈구하고 있는 「건축정보센터」 구축에도 심혈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건축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건설기술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이미 건설교통부에 신청해 두고 있으며, 우리의 국제교류 네트워크도 현재의 아시아권에서 미국, 유럽 등지로 계속 확대시켜 나가고 있으며, 오늘 총회에서도 「공제조합 설립 추진계획(안)」과 「회관 재건립 추진계획(안)」을 안건으로 상정시켜 놓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들과 우리들의 후배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건축문화의 장래를 결정짓는 역사적인 사업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건축사 모두는 하나가 되어 오늘의 현실을 과감히 떨치고 내일로 미래로 그리고 세계로, 힘차게 전진할 것을 강히 외치고 싶습니다.

대의원 여러분!

본협회는 앞으로 自主的인 建築, 自律의 建築土, 自立의 建築土協會라는 3가지 기본목표를 세우고 이를 체계화, 조직화 할 수 있는 「중장기발전계획」을 총정리하여 「건축사 白書」라는 이름으로 내년 총회에서 반드시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 建築이 전문분야로 높이 평가받는 풍토,
- 建築士가 전문인으로서 존경받는 사회,
- 建築士協會는 회원을 위한 무한봉사의 조직체 바로 이런 목표 아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반드시 수립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끌고로, 이런 모든 발전사업과 계획들은 대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적인 격려와 지원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가 무리 건축계의 미래를 담보할 「기대의 한마당」「가능성의 대공간」으로 승화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회장 또한 대한건축사협회를 위해 막중한 소명의식과 고귀한 책임감을 계속 완수해 나가는데 전력, 또 전력할 것을 거듭 다짐하면서 아무쪼록 오늘의 총회가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면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대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과 대의원님들의 가정에 언제나 안녕과 행복이 넘치고 직장에는 늘 행운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7. 10. 14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김영수

회 기능의 활성화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의 필요성에 따라 회관 재건립을 계획하였으나 현 협회의 실정을 감안, 유보기로 함.

• 제6호의안 : 공제조합 설립 추진계획
(안) 승인의 건

- 1단계로 97년 하반기까지 공제조합 설립근거 법령을 마련하고 정관과 제 규정을 정리해, 98년도에는 공제조합설립기구를 구성, 설립자금을 모집한 후 3단계인 98년도 하반기나 99년도 상반기까지 조합을 설립하기로 한 원안을 통과시킴.

• 제7호의안 : 97년도 건설기술자경력 관리회계 제2차 추가경정수지예산
(안) 추인의 건

- 원안통과(1,123,384,006원)

• 제8호의안 : 98년도 회계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정회비는 당초 월 35,000원에서 30,000원으로 하향조정하고 부족액은 임의적립금 이자로 대체키로 하며

사무비항(여비목)의 교통보조비는 복리후생비항의 종식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통과

• 제9호의안 : 임원 개선의 건

- 임기가 만료된 이사 7인에 대해서는 회장에 위임하고 감사1인에 대한 선임은 시·도건축사 회장 회의에 위임, 단 선임결과는 대의원에게 통보.

신임임원 명단

이사

(유임) 김무언(종합건축사사무소 하나그룹)

(신임) 김순명(신라건축사사무소)

김춘광(수도건축사사무소)

민경민(주·에그린건축사사무소)

박서홍(주·회산건축사사무소)

변종합(공간조형건축사사무소)

이건호(주·대도건축사사무소)

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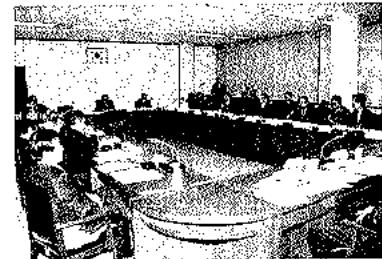
(신임) 송기준(주·무이 종합건축사사무소)

※ 대의원 통보에 길을 활

이사회 개최

제32회 정기총회 의제 결정

우리협회의 당면 주요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정기이사회가 지난 9월 14일(제14회)과 10월 8일(제15회) 협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업무보고에 이어 전회 회의록 승인과 부의안건 처리 순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의 주요 의결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다.



이사회 광경

제32회 정기총회 / 건설교통부장관 치사

오늘, 대한건축사협회 제32회 정기총회를 맞아하여 金榮洙 회장님을 비롯한 대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致辭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축문화창달의 중추적인 역할을 출중히 수행해 오신 회원 여러분과 임직원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노도와 같이 밀려오는 세계화, 개방화의 거센 물결에 우리 건축계도 예외지대가 아니며 선진국과 차별한 경쟁을 벌이지 않으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건축설계 용역업계가 국내시장을 거의 독점하였으나 이제 WTO나 OECD 체제하에서는 정부도 더 이상 우리나라 건축사만을 보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건축계가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설계기술을 향상시키고 감리의 질을 높여 High-Touch(高 디자인)과 High-Tech(高기술)로 승부를 걸어야 할 시대가 된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커다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제성과 합리성을 앞세운 개발개념은 1992년 리우환경회의와 1996년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세계주거대회를 기점으로 환경친화적 개념으로 개발 패러다임이 변화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끊임없는 노력의 소산이며 세계사의 필연적인 발전과정이라 하겠습니다.

이와관련하여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그동안 협회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건축정보센터」와 금년에 출발된 「건축연구소」가 활성화되면 첨단 설계기술의 개발·보급 등을 통하여 향후 우리 건축계의 경쟁력 확보에 초석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협회가 추진중인 공제조합 설립과 회관재건립사업 등을 통하여 건축계가 새로운 면모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천애하는 건축사 여러분!

그동안 정부는 우리 건축환경을 새롭게 다져서 세계화 추세에 신속하게 적응하는 동시에 개발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국내 시장 잡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령과 제도를 정비·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화, 자율화에 걸맞는 선진행정 체계 구축과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제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건축계도 정부의 이러한 정책의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건축설계 및 감리에 따른 부실착결은 물론, 한걸음 더 나아가 체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과 함께 고품질의 건축물을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국민과 함께하는 건축가로 거듭 태어나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축사 여러분께서는 우리나라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專門人으로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우리의 후손을 위해 건축문화의 百年大計를 훌륭하게 설계해 줄 것을 當付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미래지향적인 「도약의 마당」, 「희망의 마당」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대한건축사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건축사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997. 10. 14

건설교통부장관 이 환균

● 제14회

〈부의사항〉

- 제1호의안 : 98년도 전국공통운영회비 결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 (97년도와 동일하게 적용)
- 제2호의안 : 회관재건립 추진계획(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현 회관의 사무공간 부족과 협회 기능의 활성화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의 필요성에 따라 회관 재건립 계획을 총회승인을 거쳐 가급적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부지를 선정, 200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 제3호의안 : 공제조합설립 추진계획(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1단계로 97년 하반기까지 공제조합 설립근거 법령을 마련하고 정관과 제규정을 정리해, 98년도에는 공제조합설립기구를 구성, 설립자금을 모집한 후 3단계인 98년도 하반기나 99년도 상반기까지 조합을 설립)
- 제4호의안 : 98년도 회계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97년보다 3.7% 증액된 총 5,175,751,000원으로 편성. 특별회계는 건축연구소회계(신설) 440,074,000원, 입회비관리회계 3,448,604,000원, 건설기술자경력 관리회계 1,325,354,000원, 건축사시험관리회계 525,110,000원으로 편성)
- 제5호의안 : 제32회 정기총회 의제 결정의 건
 - 원안통과 (제1호의안 :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제2호의안 : 임원 선거관리규정 제정 승인의 건, 제3호의안 : 98년도 전국공통운영회비) 결정의 건, 제4호의안 : 회관재건립 추진계획(안) 승인의 건, 제5호의안 : 공제조합 설립 추진계획(안) 승인의 건, 제6호의안 : 97년도 건설기술자 경력관리회계 제2차 추가경정수지예산(안) 추인의 건, 제7호의안 : 98년도 회계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안) 승인의 건, 제8호의안 : 임원 개선의 건

- 제6호의안 : 추대회원 추대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제7호의안 : 연구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제8호의안 : 보조금 지원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한국여성건축가협회 행사보조금 200만원)

- 제9호의안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및 국토개발연구원 회원가입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본협회 건축연구소에서 도 타 기관 및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추진키로 함)

- 제10호의안 : 직원표창 수여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포창대상자 4명)

- 현재 시행하고 있는 표창심사기준 (근무년수, 수상경력 등)을 재검토해 조정키로 하고, 내년부터는 모범직원상 이외에 공로상 수여도 검토키로 함. 시·도건축사회 직원표창 문제는 시·도건축사회 사무국장회의에서 논의키로 함)

● 제15회

〈부의사항〉

- 제1호의안 : 예비비사용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97년도 건설기술자 경력관리회계 예비비사용 : 28,239,200원)
- 제2호의안 : 고문변호사 위촉의 건
 - 고문변호사 위촉 여부 및 위촉시 위촉자 선정을 회장에게 위임키로 함
- 제3호의안 : 제32회 정기총회 장소변경 승인의 건

제3회 부산건축사

회원작품전 성료

부산건축사회 회원작품 40점 전시



작품전개막식 광경

부산건축사회(회장 박종명)가 주관하고 부산광역시와 부산방송, 부산일보, 국제신문이 공동후원한 제3회 부산건축사 회원작품전이 지난 10월 4일부터 10월 9일까지 부산건축사회관 12층 '예당'에서 열렸다. 이번 작품전에는 권원형(건축사사무소 K-Project), 남진관(유진건축사사무소), 손욱(토탈건축사사무소), 이형재(동남종합건축사사무소), 추교준(환경건축사사무소) 등 부산건축사회 소속 회원 37인의 작품 40여점이 전시됐다. 한편 전시첫째날인 10월 4일에는 서울건축사회 이세훈 회장을 비롯, 박종대 부산광역시 주택국장, 류종우 대한건축학회 부산·경남지부 회장, 한병우 한국건축가협회 부산지회 회장 등 많은 내·외빈들이 참석해 전시개막을 축하하였다.

경기도건축사회,

회원 체육대회 개최

회원 친목과 단합다져

구분	당초	변경
일시	97.10.14(화) 11:00	(변경없음)
장소	올림픽 유스호스텔	본협회 강당

경기도건축사회(회장 윤영재)는 지난 10월 10일 수원 농민회관 운동장에서 회원 체육대회를 가졌다. 이날 체육대회에 참가한 경기도건축사회 소속 회원 370여명은 각 지역건축사회별로 팀을 이뤄 배구와 발야구, 줄다리기, 육중높이



등 종목별 대항전을 펼치며 회원간 친목과 유대를 다졌다. 이날 체육대회에서는 안양·시흥건축사회가 종합우승을 차지하였으며 수원·오산지역건축사회와 고양지역건축사회가 각각 준우승과 3위를 차지했다.

여성건축사회, 전통건축답사 실시

답사기간중 충화를 개최하고 적극적인 활동 다짐

여성건축사회(회장 문숙경, 예문건축)는 지난 10월 10일과 11일 이틀간 경주와 포항 인접지역을 대상으로 회원연수를 겸한 전통건축답사를 실시했다. 이번 전통건축답사에는 이유림(예도건축), 박영순(삼화건축)씨 등 여성건축사 40여명이 참가. 경주 남산의 마애불상과 포항방면에 위치한 앙동마을의 전통가옥을 찾아 한옥 등 우리 전통건축물을 주 의깊게 둘러보았다. 여성건축사들은 또 이번 답사기간중 매일경제신문사가 '살기좋은 아파트'로 선정한 부산의 해운대 대우아파트와 현대아파트를 견학했으며 홍대형(서울시립대), 이강근(경주대) 교수의 전통건축을 주제로한 강연회에도 참석했다.

한편 여성건축사회 회원들은 이번 답사 일정기간중 경주 힐튼호텔에서 충화를 개최하고 문숙경씨를 회장으로한 임원진을 새로 선출하는 한편 회칙을 새로 제정해 앞으로 여성건축사들의 활동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지난 10월초 연세재단빌딩 내 대우주택문화관에서 배효숙(건축공방), 류난형(주예건축), 박연심(장원건축)씨 등 9명의 여성건축사회 회원들이 '주거 및 보육 시설'을 주제로한 작품전시회를 가진 것을 비롯, 지난 5월부터는 대우주택문화관에서 시민과 건축주들을 상대로 주택과 균린생활시설에 관한 건축상담을 실시하는 등 최근들어 여성건축사회가 부쩍 바쁜 활동을 벌이고 있어 앞으로의 활동에도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통건축답사에 나선 여성건축사 회원들

97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예비합격자 발표

전체 응시인원의 32.9%인
총 1천3백19명 합격

지난 9월7일에 실시된 97년도 건축사자격시험의 예비합격자 명단이 발표되었다. 올해 시험에는 전체응시자 4천15명중 1천3백19명이 합격. 32.9%의 합격률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의 합격률 37.9%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이지만 실제 합격자수에 있어서는 작년보다 272명이 늘어난 것이다. 이번 시험의 최고득점자는 3백점만점에 2백68점을 얻은 이재호(동의대졸, 37세)씨로 밝혀졌으며, 최연소합격자는 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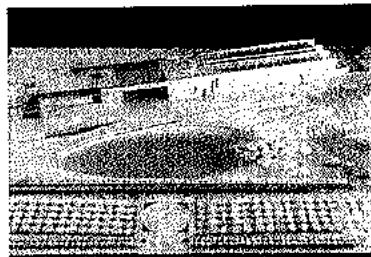
남대를 졸업한 유병숙(27세)씨로 알려졌다.

이들 합격예정자에 대해서는 학력과 경력 등의 서류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10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건축계소식 archi-net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기공

2002년말에 완공해 2003년 개관



국립중앙박물관 모형

새 국립중앙박물관 건립기공식이 지난 10월 31일 오전 서울 용산가족공원에서 있었다.

용산가족공원인의 9만3천평 부지에 지하1층 지상6층, 연건평 4만6백여평의 규모로 건립되는 새 국립중앙박물관은 총공사비만도 4천2백12억원이 이르는 대공사로 오는 2002년말에 완공해, 1년 간의 전시준비기간을 거쳐 2003년 개관될 예정이다.

규모면에서 대영박물관이나 파리 루브르 박물관 못지 않은 세계 최고수준을 자랑하게 될 새 박물관은 지난 94년말 국제 현상설계를 실시, 95년 10월에 (주)정립건축 설계안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해 올해 6월까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완성했다. 이 과정에서 용산공원 일대가



등 종목별 대항전을 펼치며 회원간 친목과 유대를 다졌다. 이날 체육대회에서는 안양·시흥건축사회가 종합우승을 차지하였으며 수원·오산지역건축사회와 고양지역건축사회가 각각 준우승과 3위를 차지했다.

여성건축사회, 전통건축답사 실시

답사기간중 충화를 개최하고 적극적인 활동 다짐

여성건축사회(회장 문숙경, 예문건축)는 지난 10월 10일과 11일 이틀간 경주와 포항 인접지역을 대상으로 회원연수를 겸한 전통건축답사를 실시했다. 이번 전통건축답사에는 이유림(예도건축), 박영순(삼화건축)씨 등 여성건축사 40여명이 참가. 경주 남산의 마애불상과 포항방면에 위치한 앙동마을의 전통가옥을 찾아 한옥 등 우리 전통건축물을 주 의깊게 둘러보았다. 여성건축사들은 또 이번 답사기간중 매일경제신문사가 '살기좋은 아파트'로 선정한 부산의 해운대 대우아파트와 현대아파트를 견학했으며 홍대형(서울시립대), 이강근(경주대) 교수의 전통건축을 주제로한 강연회에도 참석했다.

한편 여성건축사회 회원들은 이번 답사 일정기간중 경주 힐튼호텔에서 충화를 개최하고 문숙경씨를 회장으로한 임원진을 새로 선출하는 한편 회칙을 새로 제정해 앞으로 여성건축사들의 활동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지난 10월초 연세재단빌딩 내 대우주택문화관에서 배효숙(건축공방), 류난형(주예건축), 박연심(장원건축)씨 등 9명의 여성건축사회 회원들이 '주거 및 보육 시설'을 주제로한 작품전시회를 가진 것을 비롯, 지난 5월부터는 대우주택문화관에서 시민과 건축주들을 상대로 주택과 균린생활시설에 관한 건축상담을 실시하는 등 최근들어 여성건축사회가 부쩍 바쁜 활동을 벌이고 있어 앞으로의 활동에도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통건축답사에 나선 여성건축사 회원들

97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예비합격자 발표

전체 응시인원의 32.9%인
총 1천3백19명 합격

지난 9월7일에 실시된 97년도 건축사자격시험의 예비합격자 명단이 발표되었다. 올해 시험에는 전체응시자 4천15명중 1천3백19명이 합격. 32.9%의 합격률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의 합격률 37.9%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이지만 실제 합격자수에 있어서는 작년보다 272명이 늘어난 것이다. 이번 시험의 최고득점자는 3백점만점에 2백68점을 얻은 이재호(동의대졸, 37세)씨로 밝혀졌으며, 최연소합격자는 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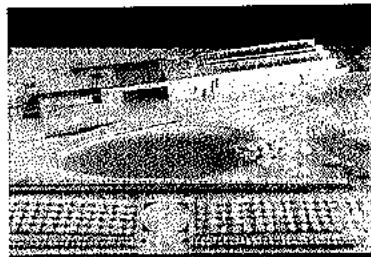
남대를 졸업한 유병숙(27세)씨로 알려졌다.

이들 합격예정자에 대해서는 학력과 경력 등의 서류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10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건축계소식 archi-net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기공

2002년말에 완공해 2003년 개관



국립중앙박물관 모형

새 국립중앙박물관 건립기공식이 지난 10월 31일 오전 서울 용산가족공원에서 있었다.

용산가족공원인의 9만3천평 부지에 지하1층 지상6층, 연건평 4만6백여평의 규모로 건립되는 새 국립중앙박물관은 총공사비만도 4천2백12억원이 이르는 대공사로 오는 2002년말에 완공해, 1년 간의 전시준비기간을 거쳐 2003년 개관될 예정이다.

규모면에서 대영박물관이나 파리 루브르 박물관 못지 않은 세계 최고수준을 자랑하게 될 새 박물관은 지난 94년말 국제 현상설계를 실시, 95년 10월에 (주)정립건축 설계안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해 올해 6월까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완성했다. 이 과정에서 용산공원 일대가

높지대여서 지반이 약한 관계로 지반높 이를 다시 조정하고 주차장과 거울못 등 옥외공간조성을 일부 변경해 최종 실시설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새 국립중앙박물관의 외관은 우리의 옛 성벽모양을 본 데 한국전통미를 표출해 낸 것은 물론 기능면에서도 첨단설비를 갖춰 미래지향형 박물관으로 다시 탄생 된다.

건축규제 대폭 완화될 듯

‘규제개혁공청회’ 개선안, 규제개혁 추진회의 상정 거쳐 내년 시행 계획

건축선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우도록한 공동주택간 이격거리 제한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월 31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건축분야 규제개혁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동주택 이격거리 제한 완화 등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건축규제개선안들을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개혁추진 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현재 1.5m로 제한돼 있는 밸코니 길이 제한을 풀고 또 일조권 침해를 막기위해 공동주택간 일정공간을 띄우도록한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등의 다양한 건축규제 개선안들이 제시됐다.

특히 이날 주제발표를 한 건설기술연구원 김수암 건축계획실장을 기로형 또는 타운하우스 형태의 주택의 경우에 있어 현재 건축선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통상 3m를 띄우도록한 공동주택이격거리 제한을 완화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현행 2.3m × 5m로 돼있는 자동차 대당 주차구획면적을 소형차와 중대형차량용으로 세분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한·불 건축 및 도시계획 세미나

11월 25, 26일 서울과 부산에서 개최

프랑스대사관과 프랑스대외기술협력청이 (CFME-ACTIM) 주최하고 우리협회와 프랑스건설교통부 등이 공동후원하는 프랑스건축 세미나가 오는 11월 25일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룸에서 개최된다. ‘Architecture : the French touch’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는 강석원 한국건축가협회 회장을 비롯해 프랑스건설교통부의 Paul Schwach국장, David-Pierre Jalicon, Jean-Marie Duthilleul, Ayrmeric Zublena 등 한·불 양국의 유명 건축가와 도시계획가 10여명이 참석해 양국의 도시계획과 실무 건축 등에 대해 발표한다. 또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되는 개막식에는 한국 건축계를 대표해 우리협회 김영수 회장이 한국건축의 현황과 한·불 협력에 관한 개막연설을 할 예정이어서 양국 건축계가 한층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서울에 이어 오는 11월 26일 오후 1시부터 부산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도 열린다.

문의 : 주한프랑스대사관 (02-564-9032)

도와 도시를 대표하는 예술인 70여명이 참가하는 ‘현대 아시아 예술 그룹전 (Group Exhibition of Contemporary Asian Art)’이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홍콩 영화계를 대표하는 왕가위 감독을 비롯해 램 쿠하아스 (네덜란드), 토요 이토(일본), 아라타 이소자키(일본) 등 아시아의 유명 건축가들과 리차드 호(싱가폴), 구정아(한국), 오스카 흐(홍콩), 천 첸(중국) 등 예술 각 분야의 전문인들이 대거 참여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김진애(서울포럼 대표), 승효상(이로재건축 대표), 민선주 (위기건축 대표)씨 등 3명의 건축가를 포함해 이불, 김윤태씨 등 모두 8명의 예술인들이 초청을 받아 참가하게 된다.

이번 전시회는 ‘역동하는 도시(Cities on the Move)’란 주제가 말해주듯 세 기말을 맞아 아시아 각국의 수도들이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 도시들이 자국의 문화적 전통을 고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동서양의 다양한 사고들을 복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전시회는 어갈은 특성을 지닌 아시아 예술의 현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돼 큰 관심이 모아진다.

「제2회 경기도 건축문화상」 수상작 발표

대상에 「레고코리아 이천사옥·공장」

현대 아시아예술展 ~ CITIES ON THE MOVE ~

아시아 각국 예술인 70인 작품전시
승효상·김진애·민선주씨등 건축가
3인 참가

아시아의 현대 예술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대규모 국제 예술전시회가 열린다. 오는 11월 26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 SECESSION에서는 서울·동경·방콕 등 아시아 각국의 수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건축사회와 한국건축가협회 경기도지부가 주관한 제2회 경기도건축문화상 심사결과, 김광성 (김광성건축사무소 대표)씨가 설계하고 성원건설(주)이 시공한 「레고코리아 이천사옥·공장」가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또 금상은 「신병원」(양가주망건축사사무소 최승원 설계, (주)삼호 시공)과

「학익재」(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재 김호만 설계, 김정민·김인국 시공) 등 두 작품이 수상했으며, 건축관련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작품부문에서는 「호흡 속의 만남」(성균관대 정동섭·이중규작)이 대상을 차지했다.

대상을 수상한 「레고코리아 이천사옥·공장」은 심사위원들로부터 “과학적인 계획방법이 적용된 세심한 건축물로 공장과 사무기능을 무리없이 조화시켰으며 전체적인 외형·기능·색채 등에서 유기적 연결이 돋보였다”는 평을 받았다. 이 건물은 지상3층, 연면적 19,614㎡ 규모로 공장동을 비롯해 사무동과 식당, 공용공간, 견학공간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특히 적절한 빛도입과 공기의 청정도 유지가 관건인 공장동의 경우 툴라이트를 이용해 중복도 공간에 자연채광이 공급되도록 한 것은 물론 적절한 개구부 배치에 의해 자연환기와 통풍의 원활성을 기하고 있다. 올해 건축상에는 총 30여작품이 응모해 1차 작품집 심사와 2차 현장답사 심사를 거쳐 지난 10월 20일 최종 수상작이 가려졌으며 심사는 장성준(심사위원장, 명지대 교수), 최재남(삼양건축사사무소 대표), 최민석(경기도청 주택과장)씨 등 각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맡아했다.

올해 경기도건축문화상의 각 부문별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작품명,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순)

대상

- 레고코리아 이천공장 / 김광성(김광성건축사사무소) / 성원건설(주) / 레고코리아(주)

금상

- 신병원 / 최승원(양가주망건축사사무소) / (주)삼호 / 신영순
- 학익재 / 김호만(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재) / 김정민·김인국 / 최성일

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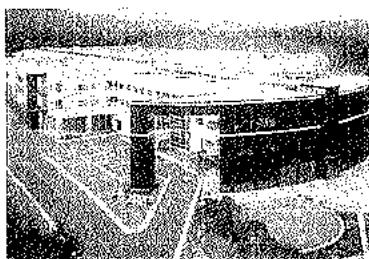
- 명스포렉스 / 이영희(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 금강종합건설(주) / (주)삼정
- 노정호씨 주택 / 이동신(건축사사무소 제일건축) / 노정호 / 노정호

동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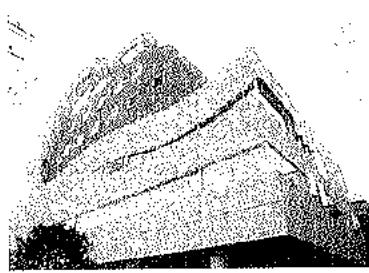
- 단오한마당 / 남상득(지에이원건축사사무소) / 대양건설(주) / 박옹수
- 분당 신동아빌라 / 문수길(기단종합건축사사무소) / 신동아건설(주) / (주)성제개발

임선

- 클래프광명점 / 윤세한, 남기홍, 김종권(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 캠퍼스플라자-1 / 김동훈(진우종합건축사사무소) / 건축주 : 김종환
- 목암미술관 / 이현수(우남건축사사무소) / 공립종합건설(주) / 김찬식
- 일산 K씨택 / 김진식(원당건축사사무소)
- 분당연립주택 / 유요안(건축사사무소 루비나)



레고코리아 이천공장(대상 수상작)



학익재(금상 수상작)



신병원(금상 수상작)

강동구건축상 금상에

「현대백화점」

(주)해안건축 남기홍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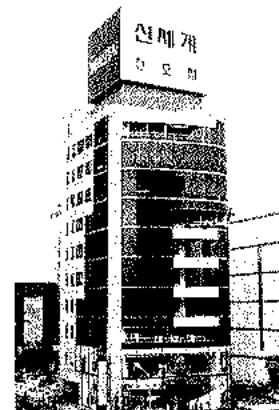
강동구가 매년 관내 우수건축물을 발굴해 시상함으로써 건축문화 창달과 도시미관증진을 도모코자 제정한 제2회 강동구건축상 심사결과 (주)해안건축 남기홍씨가 설계한 「현대백화점」이 금상을 수상했다. 또한 은상은 천호동 445번지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인 「성보빌딩」(주, 예건건축 강신관 설계)이, 동상은 성내동에 위치한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인 「진도 PARK VIEW」(주, 우리동인 노윤경 설계)이 차지했다.

금상을 받은 현대백화점은 지하 7층, 지상 14층, 연면적 72,676㎡ 규모의 판매시설로 천호동 중심가에 위치해 있다.

한편 강동구는 지난 10월 14일에 열린 시상식에서 이를 각 수상작의 설계자에게 상패와 상금, 건축주와 시공자에게는 상패 및 건물부착용 수상인식판을 각각 수여했다.



현대백화점(금상 수상작)



성보빌딩(은상 수상작)



진도 PARK VIEW(등상 수상작)

종합건축 이승우 회원, 문화훈장 수여 받아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제29회 문화의 날 맞아

이승우(종합건축건축사사무소)회원이 지난 10월 20일 국립극장에서 열린 '제29회 문화의 날' 기념식에서 옥관문화훈장을 수여받았다.

문화체육부가 '문화의 날'을 맞아 우리 문화예술발전에 공헌해온 각 분야의 공로자를 선정해 훈포장한 이날 기념식에서 이승우 회원은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수상자인 이상용(한국문원 대표이사)씨 등 문화계 각 분야의 공로자들과 함께 옥관훈장을 서훈받았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이승우 회원을 포함, 윤호진(단국대 교수), 강태성(조각가), 신호범(기수)씨 등 모두 39명이 문화훈장과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등을 수여받았다.

건국대 건축대학원

신입생 모집

건축학 석사 2년·3년 과정

건국대 건축대학원에서는 건축학석사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학과는 건축설계학과와 실내건축설계학과로 4년제대학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중 건축관련학과 졸업(예정)자는 2년과정에, 기타 학과 졸업자는 3년과정에 지원할 수 있다.

지원원서는 10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토·일요일 제외) 건국대 건축대학원 교학과에서 교부·접수하며 서류 및 작품집 심사와 11월 14일에 치뤄질 면접고사를 통해 신입생을 선발한다. 제출서류는 대학원 소정양식의 입학원서 1부와 대학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작품집, 사진 6매(반영함 4매, 증명사진 2매)이며 최종합격자는 오는 11월 21일 오후 2시 발표될 예정이다.
문의 : 건국대 건축대학원(주간) 교학과 / 02-450-3286, 3287

제41회 흥익건축전 열려

졸업작품·과제작품·동문 찬조작품 등 전시

흥익대학교 건축학과에서는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흥익대 현대미술관 4층에서 제41회 흥익건축전을 개최하였다.

이번 건축전에는 4학년생들의 졸업작품을 비롯, 3학년생들의 공동작품과 대학원 및 1, 2학년 과제작품, 동문 찬조작품 등이 함께 전시돼 오랜 전통의 흥익건축전 역사와 높은 창작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건축가협회,

「제16회 대한민국건축대전」 개최

11월 19일부터 예술의전당에서

한국건축가협회(회장 강석원)가 주최하는 제16회 대한민국건축대전 및 제2회 건축사전전이 오는 11월 19일부터 30일까지 예술의전당 미술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는 지난 9월에 실시된 건축사전전의 수상작품을 비롯, 지난 11월 14일 작품접수를 마감한 대한민국건축대전의 수상작들이 전시된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28일 오후 3시 예술의전당 미술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문의 : 한국건축가협회(02-744-8050)

건교위원장에 김종하 위원

기자출신 4선의원

국회는 지난 10월 20일에 열린 본회의에서 사임을 표명한 백남치 건설교통위원회 후임으로 김종하 신한국당 의원을 선출했다.

신임 김종하 건교위원장은 신문기자 출신의 4선의원으로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신아일보 정치부장과 국회의장 비서실장, 신한국당 경남지부장 등을 역임했다.

평소 서글서글한 인상에 폭넓은 교분으로 친화력이 강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신입생 모집

특차모집

창조적 소양과 과학적인 분석종합 능력을 갖춘 소수정예의 신입생을 선발해 실기위주의 교육으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건축가 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건축과에서 98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98년 2월 고교 졸업예정 이상의 학력자로 모집정원은 10명이내이다. 필답시험(40% / 영어, 수학)과 고교 생활기록부(60%) 성적으로 1차시험을 치룬후 2차에서는 주어진 소재와 재료를 이용해 출제된 주제에 맞게 조형작업을 한 결과물을 평가하는 실기시험(50%)과 시청각자료 감상후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논술하는 작문시험(50%)으로 치뤄진다. 또 3차에서는 면접을 통한 구두시험(100%)이 치뤄진다.

원서교부기간은 11월 11일부터 21일까지, 원서접수기간은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이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음악원, 연극원, 영상원, 무용원, 미술원, 전통예술원 등 6개 단과대학급의 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각의 원들은 독립된 교육기관의 위상을 갖고 상호 교류를 통해 문화예술전반의 창조성을 키워 나가고 있다. 또한 올해 개원된 미술원은 건축과를 비롯해 조형예술과, 디자인과, 미술이론과 등 4개 학과로 구성돼 있는데 이들 학과들은 저학년에 공통교과과정을 개설해 전공교육뿐 아니라 시각예술전반의 실기와 이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들 학과중 건축과는 설립 첫해인 올해에 6명의 1학년생을 선발해 교육중에 있는데 다른 일반대학 건축관련학과가 공과대학내에 소속돼 있어 건축가와 건설기술자를 모두 배출하는데 반해 이 학교 건축과의 경우는 건축 도시환경분야의 설계전문가, 즉 전문적인 건축가 양성에 목표를 두고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는 실무위주의 혁신적인 교과과정과 교육내용, 정상급의 실무건축기를 주축으로 한 교수진, 우수한 시설기자재를 갖추고 있어 새로운 건축가 양성 대학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문의 : 서울시 성북구 석관2동 한국예술 종합학교 미술원 행정실
(행정실 : 02-958-2765, 조교실 02-958-2768)
<http://www.knua.ac.kr>

• 기타 출품규정

- 서울시건축상, 한국건축문화대상, 한 국건축가협회상 입상작품은 출품대 상에서 제외

문의 : 강남구청 건축과 (02-510-1390~2)

「제3회 진주시 건축상」

작품공모

진주시내 사용승인 건축물 대상

진주시에서는 제2회 진주시 건축상의 출 품작을 공모한다. 진주시에 건축된 우수 건축물을 선정·시상함으로써 도시미관의 증진은 물론 건축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창의력 발휘를 유도해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실시되는 올해 진주시 건축상의 주요 응모요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작품 : 1996. 11. 1 ~ 1997. 10. 30 기간중 사용승인을 받은 진주시 소재 건축물

• 작품접수

- 응모자격 :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소유자

- 접수기간 : 1997. 10. 20 ~ 1997. 11. 20

- 접수처 : 진주시 건축과

• 제출자료

- 소정양식 신청서 1부

- 작품설명서 (A4용지 2매내외) 1부

- 설계도서 (규격: A3캐드 또는 청사진, 설계개요 및 기본도면 수록) 10부

- 패널(8" x 10" 규격의 2방향 일면사진 각 1매를 켄트지에 부착)

• 시상부문 및 내역

- 대상 1점, 우수상 3점(단독주택부문, 공동주택부문, 일반건축부문 각 1점)

- 건축주 : 상패 및 수상기념 동판, 설계자 : 상패 및 시상금

문의 : 진주시청 건축과 (0591-749-2455, 2456)

「제1회 강남구 건축상」

작품공모

구소재 사용승인 건축물 대상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관내 우수건축물을 찾아 포상함으로써 도시미관 조성과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코자 제정한 제1회 강남구 건축상의 출품작 공모오강이 발표되었다. 응모자격은 건축사업허를 소지하고 실제 작품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자의 작품으로 96년 1월 1일부터 97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에 강남구에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이면 응모할 수 있다. 작품보집분야는 주거용건축물부문 및 비주거용건축물부문 2개분야로 출품자는 아래의 출품규정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강남구청 건축과로 제출하면 된다.

• 제출서류 및 작품규격

- 소정양식의 응모원서

- 규격 90cm x 90cm 패널 2~4매

- 작품사진(5" x 7") 10매

- 모형은 필요시 제출 가능

• 시상내역

- 대상(1점), 금상(2점), 은상(2점),

장려상(6점)

- 설계자 : 상패 및 상금, 시공자·건

축주 : 상패

서울건축학교 98년도 2학기 신입생 모집

11월 10일부터 원서교부

미래의 한국건축을 이끌어갈 건축가 양성을 위해 설립된 서울건축학교에서는 98년도 제2학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2학기 신입생 선발인원은 20명으로, 내년 2월 15일에 개강해 설계스튜디오 및 세미나, 설계지원스튜디오(건축이론일반, 역사, 예술론, 기술강좌 등), 금요 정기강좌, 건축기행, 전시회 등 실무중심의 교육을 펼쳐나가게 된다.

응시자격은 ▶설계사무소 경력 3년이상자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자 ▶국내외 대학원 건축관련 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자이며 원서교부기간은 오는 11월 10일부터 29일까지이다.

현재 지난 9월 18일부터 시작된 제1학기 정규과정이 진행중인 서울건축학교는 각 스튜디오 퓨터들에 의해 작성된 자율적 교육프로그램에 의해 연간 3학기제의 설계스튜디오체제로 운영되며 졸업시까지 총 6학기의 소정 스튜디오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응시희망자는 아래의 서류를 갖춰 12월 1일부터 6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 제출서류

- 입학지원서(소정양식)
- 자기소개서(A4규격 2매이내)
- 4년제 대학졸업증명서 또는 학사학위 등록증 사본

대학원 수료 또는 졸업증명서

석사학위 등록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작품집(포트폴리오) 규격 A4사이즈 표지포함 20장 이내)

문의 : 서울 종로구 원서동 219

김수근 문화재단 서울건축학교
(02-763-0471)

인터넷 건축정보매체

「INDIWORLD」 창간

건축 · 인테리어 · 디자인분야
종합정보네트워크

인터넷을 통해 건축, 인테리어, 디자인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새로운 웹진이 탄생했다.

웹호스팅과 멀티미디어, 온라인 쇼핑 등의 다양한 인터넷 컨텐트 서비스사업을 펼쳐온 ISM이 개설한 INDIWORLD는 기존의 잡지나 매체와는 달리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건축 및 디자인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언제 어디서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토록해 모든 회원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News', 'Space', 'Market', 'Library', 'Group', 'Directory' 등 다양한 서브 페이지를 통해 신속하게 국내외 뉴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건축관련 전문지의 블리핑이나 건축자재 및 건축도서 정보를 제공 받을 수도 있고 건축·인테리어 관련 세미나와 논문 내용을 찾아 볼 수도 있다.

이밖에 각종 전시회나 건축강좌 중계를 시청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회원간 동아리 방을 개설해 전용 홈페이지를 꾸밀 수도 있다. 특히 'Directory' 서브페이지에서는 국내외 관련분야별 웹사이트가 분류되어 있어 관련단체나 업체, 사무소 등의 활동 상황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했다.

인디월드의 인터넷 주소는 www.indiworld.com이다.

회원가입문의 : 02-3460-1661

건축신간 안내

알기 쉬운 건축여행2

◇ 알기 쉬운 건축여행 2 - 건축진정 매듭 풀기

이 책은 올해초 발간된 '알기 쉬운 건축여행1 - 건축법 바로알기'에 이어지는 시리즈로 20여년간 일선 행정기관에서 건축직 공무원을 지낸 저자가 그동안 겪어온 건축관련 진정에 관한 사례들이 소개돼 있다.

저자는 대개의 진정이 서가심이나 보복에 따르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라면서 진정의 해결은 법을 앞세우기 보다 이웃간의 양보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이 책은 건축과 관련된 여러 유형의 진정 사례를 통해 진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어 글치아픈 건축진정 해결에 큰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건물을 짓고자 하는 건축주들에게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본다.

이 책 부록편에는 저자인 윤혁경씨가 본지에 기고했던 건축진정과 관련 글들도 수록돼 있다.

윤혁경, 박안섭著 / 도서출판 기문당(02-295-6171~5) 펴냄 / 신국판 / 290쪽 / 1만원



「제6회 건축가미술전」 열려

건축가 25인의 미술작품 전시

미술을 사랑하고 아끼는 건축가들의 모임인 건축가미술동호회(회장 한창진/ (주) 한정건축 대표)가 여섯 번째 회원작 품전을 가졌다. 지난 10월 10일부터 18 일까지 서울 대치동 PLUS갤러리에서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김인배, 최상체, 김영배, 최영집씨 등 건축가 25명이 건 축활동 중에 틈틈이 그린 수채화와 유화, 사진, 조형 등의 미술작품을 선보였다.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건축가미술전은 건축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미술이란 또다른 영역에서 건축가들의 높은 예술적 감성을 엿볼 수 있는 기회로 화제가 되어 왔다.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건축가들은 다음 과 같다.

한창진(동우회 회장 / 한정건축 대표)

김인배(세대건축사사무소 대표)

손석진(대한전문건설협회 이사)

최상체(최상체건축사사무소 대표)

김영태(영남대 건축공과 교수)

임팔암(대구 동인건축사사무소 대표)

류춘수(종합건축사사무소 이공 대표)

김낙중(증원건축 대표)

김석환(티·울건축사사무소 대표)

김선양(한종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김호경(종합건축사사무소 가림나라 대표)

박승운(삼지건축사사무소 대표)

이용한(희영건축사사무소 대표)

이관직(종합건축사사무소 이공 소장)

안호협(조달청 강원지청장)

윤상국(관건축사사무소 대표)

최영권(건축사사무소 21 대표)

최한호(중원엔지니어링 대표)

정영호(맥건축 실장)

김홍주(코아종합건축사사무소)

강성의(한라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조성렬(큐빅 디자인연구소 소장)

최영집(건축연구소 탑 대표)

원대연(플러스건축 대표)

양광명(도성건축사사무소 대표)



고목(古屋)/최영권
종이위에 수채 46×36cm 1997



소금창고/최한호/Oil on Canvas 10P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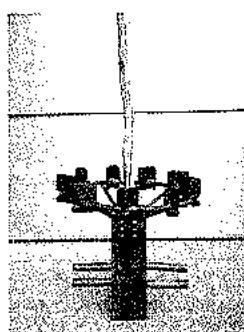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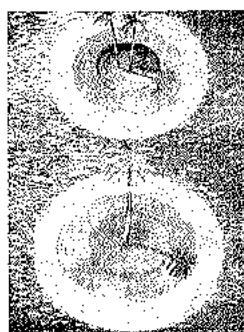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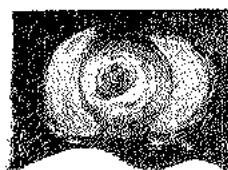
IMAGE 97-091(STEEL+
BLOCK+WOOD)/최영집
800×800×1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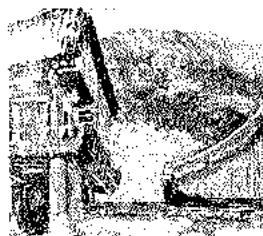
성 모으기 I /원대연/종이위
oil 파스텔 10F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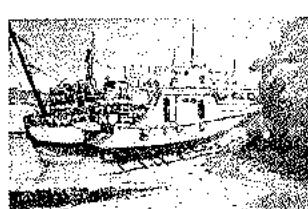
무제/정영호/Oil on Canvas
72×49cm 1997



자아원/김홍주/Oil on Canvas 1996



영천 은혜사 일경/김영태/Oil Painting
45.5×53.0cm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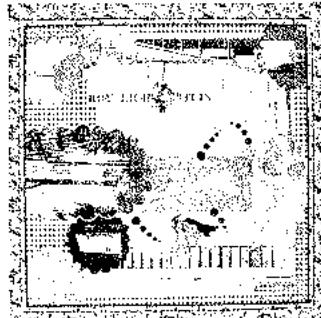
록포항/임팔암/Oil on Canvas 8m 1997



Human's Relation-II /김호경
/종이 위 수채 50×75cm 1997



동상과 비실리성당/김인배/
종이위에 수채 17.8×26cm
1995



LICHENSTEIN[幻想]/김낙중
/아크릴 및 복합재료 900×900cm 1997



'96 Paris/류춘수/종이위에
수채 9×16cm 1996



백두산 天池/최상재/170×75cm 1995



꽃/한창진/종이위에 수채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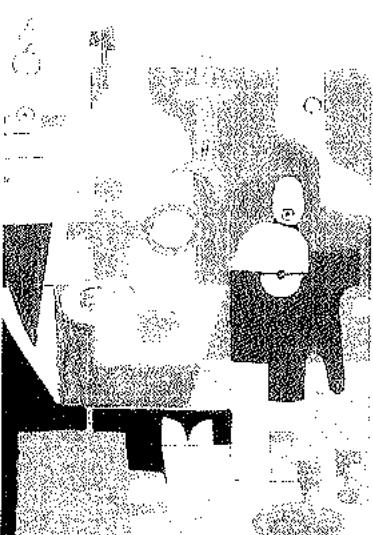
통경/손석진/Oil on Canvas 20F 1997



방글이야기/이용환/종이위에 수채 56×74cm 1997



덕소계곡/김선양/Oil on Canvas 15F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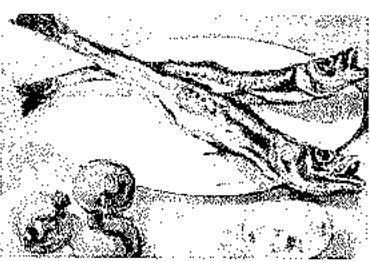
작은바퀴가 있는 정물/김석현/Oil on Canvas 30F 1997



야경/이완직/종이위에 수채 26cm×38cm 1997



설경/안호길/Oil on Canvas 15F 1997



정률/윤상국/1+2+3 유화 8F 1995



갯마을 여름풍경/박승운/Oil on the Canvas 15P 1997



총신자 죽산국제무용제/조성원/40×60cm



初春/강성익/종이위에 수채 50F 1997



누드/양광명/Oil on Canvas 6F 1995

현상설계경기 competition

한국전통문화학교

한국담배인삼공사 청주지점

대전시 도시개발공사 사옥

한국전통문화학교

School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s

문화체육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한국전통문화학교에 대한 설계경기를 실시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연구실의 주관하에 실시된 이번 현상설계에서는 총 9개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건축사사무소 기오현(이은식)안을 당선작, 건축사사무소 아끼반(김석철)안을 우수작으로 각각 선정하여 9월 3일에 그 결과를 발표했다.

심사위원으로는 김진균(서울대), 안영배(서울시립대), 양병이(서울대학원), 양윤재(서울대학원), 윤승중(원도시건축), 조성룡(조성룡 도시건축), 주남철(고려대)씨가 참여했다.

▶ 당선작 / 기오현(이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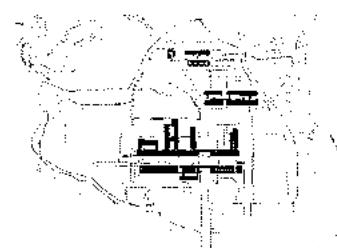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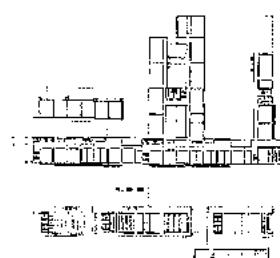
부 지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일대
부지면적	약 5만평
연 면 적	약 9,680평
규 모	지하1층, 지상3층

주거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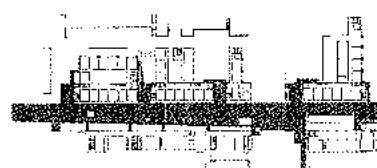
주거시설은 학생기숙사, 교직원 아파트 및 교장공관으로 구성된다. 기존의 합정마을과 인접시킴으로써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공생관계의 활기있는 새로운 커뮤니티를 형성한다.



배치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기존 지형의 건축화 · 대형(帶形)의 경사진 광장

기존의 지형은 전형적인 우리나라 전원의 랜드스케이프를 보여준다. 이 중앙에 대형(帶形)의 광장을 동서로 길게 놓는다. 폭 23m의 광장은 기존 지형의 고저차를 쫓아 평판과 경사판이 이어져서 상하에 놓여질 병렬된 기능들을 기능적, 공간적으로 통합시킨다.

프로그램의 해석 및 건축화

주어진 소요시설 프로그램은 마스터플랜 기본개념의 대형체계에 따라 부지에 정확히 놓이도록 하기 위해 해체 · 분석되어 새롭게 통합되고 교육의 체계에 따라 공간적으로 배분되어 건축화 한다.

교육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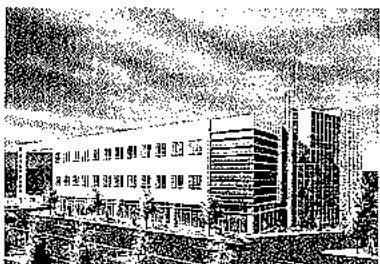
일반강의실의 기동률 제고 및 3층 정도의 일정 매스의 유지를 위하여 서로 관련이 깊은 두 개 과를 묶고, 광장층(1층)에 6개의 일반 강의실, 2층과 3층에 과단위 별실들을 배열하고 이 기능실들을 공간적으로 묶는 종속기능을 덧붙인 대형막대(linear bar)의 매스를 만든다. 과별 특성에 따른 실험 실습시설은 이 일반 교육시설에 연결고리로 칙교되고 그 사이의 공간은 작업을 위한 마당과 자연을 향하여 열리는 마당이 교호되며 반복되어 자연과 손을 벌리듯 접속된다.

한국담배인삼공사 청주지점

Korea Tobacco and Ginseng Corp. Chungju Office

한국담배인삼공사는 청주시 전매사업업무의 활성화와 선진화를 위해 청주지점 사옥 설계경기를 실시, 총 6개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당선작에 회립건축(이영희+민병훈+이석문)안, 우수작에 동우건축(김태인)안, 가작에 일건건축(황일인)안과, 고려건축(류명옥)안을 각각 선정 그 결과를 지난 8월 12일에 발표했다.

▶ 당선작 / 회립건축(이영희+민병훈+이석문)



조감도1



조감도2

위치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306-3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6m 이상), 집단방화지구

대지면적 12,598.0m²

건축면적 1,169.53m²

연면적 2,990.50m²

건폐율 14.17%

용적률 307.46%

규모 지하1층, 지상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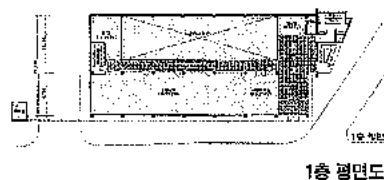
최고높이 16.2m

구조 철근콘크리트

건축계획 황의표, 정재호, 김태환, 송재호, 김수정, 이태호, 정진환, 박해주, 강경진

3D프리젠테이션 홍관선, 김동춘, 이행숙, 전준원, 김선주, 김회호, 변미경, 권락현

계획시 주안점은 담배창고의 효과적인 형태와 각 동선의 분리, 가로변에서의 건물 정면성과 인지성을 높이는 것이었다. 대지와 도로의 레벨차이를 이용하여 가로변에 1층의 임대상가와 시범판매실을 명하게 하여 방문객들의 자연스러운 접근을 유도하였으며, 건물의 뒤편면에서 2층의 담배창고로 직접 진입이 가능하게 계획하여 창고공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창고 관리문제를 고려하여 2층에 후면 출입구를 따로 두었으며, 데크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운반거리를 최소화하였으며 데크상부에 차양을 설치하여 기상조건에 구애받지 않는 전천후 작업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입면계획에서는 내구성과 유지관리에 적합한 화강석재료를 외장재료로 채택하고 컬러알미늄 프레임, 착색 복층유리를 사용해 현대미를 표출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외장요소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통일성과 리듬감을 부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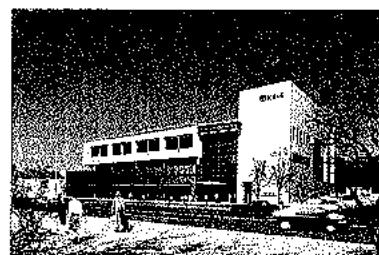


1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 우수작 / 동우건축(김태인)



조감도

대지위치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306-3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6m 이상), 집단방화지구

용도 공공업무시설

대지면적 12,598.0m²

건축면적 1,096.4m²

연면적 2,973.4m²

규모 지하1층, 지상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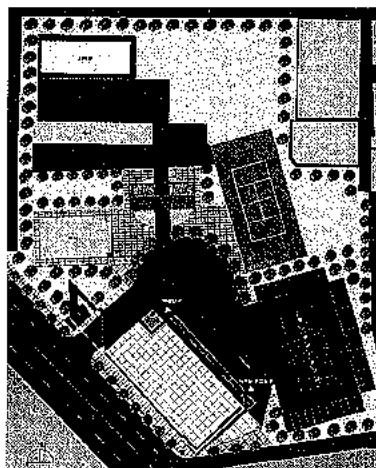
구조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외부마감 화강석, 컬러복층유리

주차대수 32대(법정주차대수 30대)

설비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

설계담당 우성숙, 우동우, 이승훈, 박상미, 이종목, 황원일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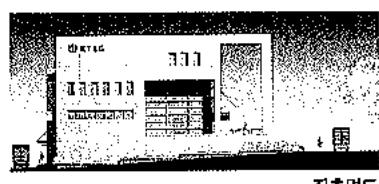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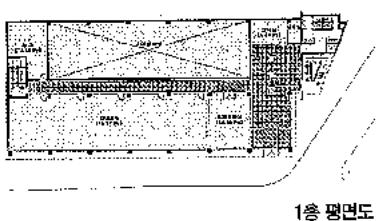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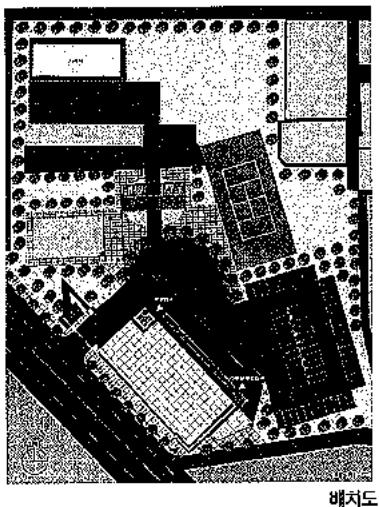


3층 평면도

이 계획안은 청주시 전매사업 업무의 활성화와 선진화를 위한 한국담배인삼공사 청주지점사옥으로서 청주지점의 이미지 고양을 위한 조형적인 설계와 주도로 측에서 전면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증축에 대한 여유있는 구조계획과 설비의 현대화 등으로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창고의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홍보성을 고려하였으며, 실기능에 부합되는 창

형태와 외벽재의 색채, 질감 등으로 차별화를 두어 상호조화되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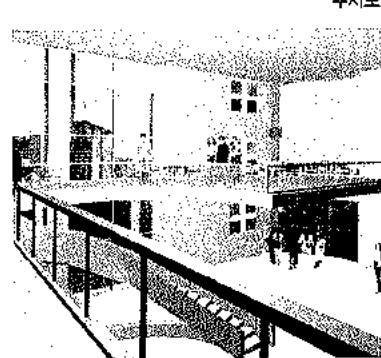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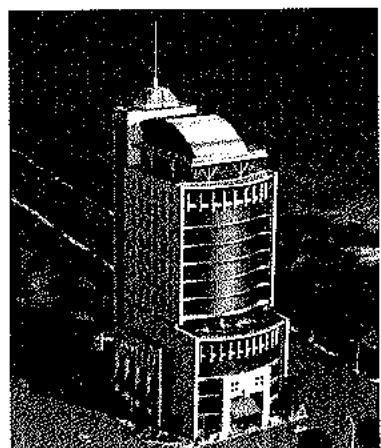
대전시 도시개발공사 사옥

Taejon Metropolitan Development Corp.

대전시도시개발공사는 대전광

역시의 공기업으로서 시민에 대한 신뢰성 구축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 사옥 건립을 위한 설계경기를 실시, 당선작에 신화엔지니어링(김인수)안, 우수작에 우빈건축(박영준)안을 선정, 그 결과를 지난 9월 10일 발표했다.

▶ 당선작 / 신화엔지니어링(김인수)



지역지구 송촌 택지개발사업지구 근린 상업지역

건축면적 1,013.15m²(306.47 PY)

연 면 적 16,570.70m²(5,012.64 PY)

건 폐 율 68.57%

용 적 률 743.81%

조경면적 236.1m²

주차대수 135대

구 조 철골철근콘크리트

규 모 지하4층, 지상15층

최고높이 63.7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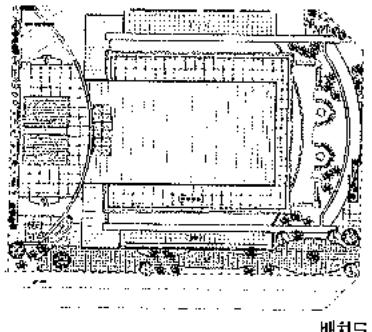
계획의 기본방향

- 효율적인 토지의 활용 및 배치계획
- 계획부지 주변의 향후발전 및 주변도로 와의 연결을 고려한 배치계획
- 민원 이용자의 편리한 시설 이용을 고려한 동선 및 배치계획
- 코아의 후면 배치로 토지이용 효율화
- 전면 공개공지의 휴게시설 확보로 유입 동선의 극대화
- 상징성
 - 송촌지구의 개발을 선도할 Land Mark적인 건축물 창조
 - 백제 문화권 전통건축과 현대건축을 접목한 지역 특유의 건축적 디자인 개념 및 문양 적용
- 공공성
 - 지방 자치제의 중추적 역할 및 지역 주민의 이용편의 도모
 - 공기업의 신뢰성과 상업건물이 필요로 하는 실용성 및 개방성이 조합, 충족되도록 계획 수립
- 기능성
 - 업무동선과 임대공간이 상호 중복되지 않는 유기적인 동선 구축
 - 차량 동선과 보행 동선의 분리
 - 업무 Zone과 서비스 Zone의 분리로 각 Zone의 기능 극대화
 - 충분한 주차시설 및 면적 확보
 - 기능별 특성을 고려한 내부 외장 설계
- 쾌적성
 - 기본 모듈에 의한 가변성, 합리성으로 내부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
 - 구조물에 방수, 결로 및 배수 고려
 - 진동 및 소음에 대한 고려
 - 외벽의 단열 및 기능실에 대한 습도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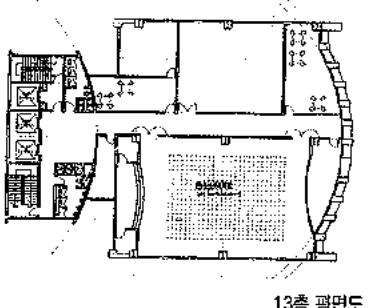
온도 고려

- 경제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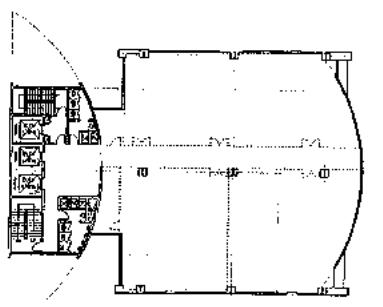
- 건축 : 적정 층고 및 공간계획으로
냉·난방 부하 절감
- 전기 : 동일 부하별로 변압기를 설치,
운전 효율을 극대화
- 설비 : 에너지 절약형의 설계추구로 경제
성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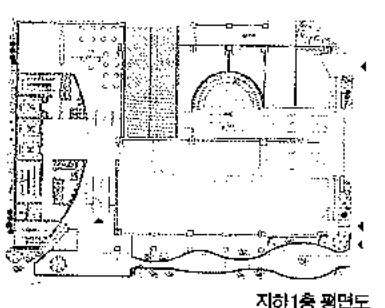
배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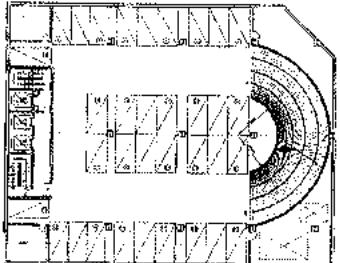
1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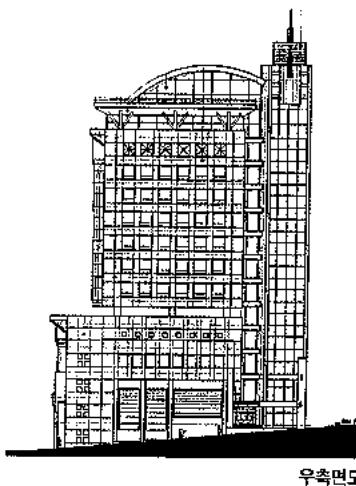
7.8층 평면도



지하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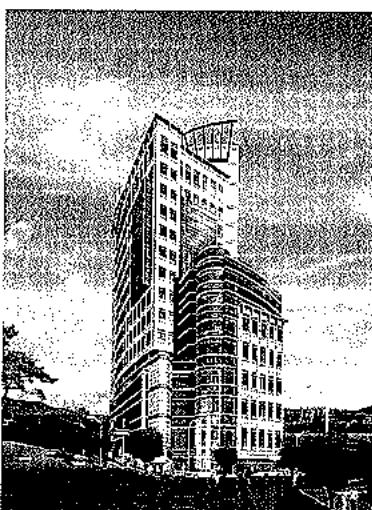


지하2,3층 평면도



우측면도

▶ 우수작 / 우반건축(박영준)



조감도

대지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445-4(택지개발지구내)

지역지구 송촌 택지개발사업지구 근린
상업지역

대지면적 1477.7m²

건축면적 975.84m²

연 면 적 16561.00m²

규 모 지하4층, 지상15층, 옥탑2층

구 조 철골+SRC조

건 폐 율 66%

용적률 788.6%

도로현황 전면 25m, 우측면 20m, 후면
20m

주차대수 132대(법정주차대수-130대)

외 장 재 30회강석물갈기, 베니구이 24
컬러+투명복층유리

계획의 목표

- 상징성

- 대전도시개발공사 사옥의 설립 이념인
시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개발에 이바지
하는 공기업 사옥으로서의 미래 지향적
인 이미지 및 상업적 임대 건물로서의
효율성 확보

- 송촌지구 상업지역내의 중심성 및 장소
성을 확보하도록 계획

- 기능성

- 균형상업시설 임대 공간과 업무용 공간
의 상호 유기적이고 혼선되지 않는 동
선 구분 및 각종 설비계획 수립

- 편리한 근무환경과 쇼핑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평면적, 단면적, 공간적 기능
성 확보

- 주변 상업건물 및 집단주거단지의 유동
인구 유입을 위한 내·외부 동선계획
수립

- 경제성

- 공익성과 상업성이 조화된 임대부분 공
간계획

- 기능과 구조가 조화된 경제성이 있는
공간계획

- 임대수익을 고려하여 적정 주차대수 설
치로 임대면적 확보

- 관리 및 운용의 편리성 및 용이성 확보
- 에너지 절약을 위한 건축, 기계, 전기
설비계획

- 관리 및 운용의 편리성 및 용이성 확보
- 에너지 절약을 위한 건축, 기계, 전기
설비계획

- 안정성

- Maintenance의 안전 대책 및 경제적
이고 안전한 구조 방식채택과 비상시
안전하고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수
평, 수직 동선을 명쾌하게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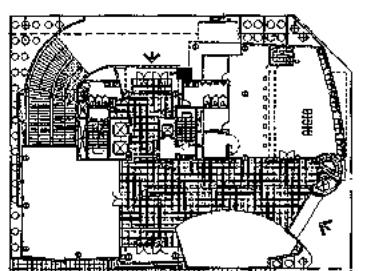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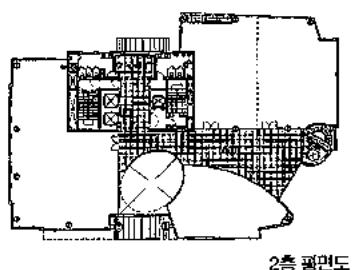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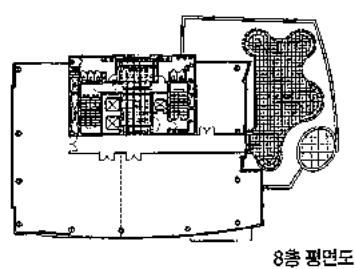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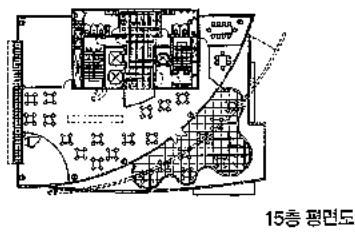
- 보안성(Security)

- 감시, 경보설비 확보 및 집중 중앙 감

시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I.B.S

System 채택

- 신뢰성
- 대전시 개발을 선도하게 될 도시개발
공사의 신뢰받는 공기업으로서의 위
상을 제고하기 위한 건축계획



계획작품 blueprint

성북구립도서관

동작소방서

경남산림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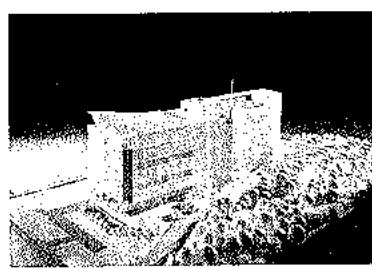
고양시 덕양구청사

전국비구니회관

성북구립도서관

Seongbuk Communal Library

노형래 / 건정건축



대지위치 서울시 성북구 상월곡동 24-
52호외 3필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2,104m²(637평)

지상총연면적 3,864.95m²(1,169.15평)

전체연면적 5,500.83m²(1,664평)

건축면적 934.49m²(282.68평)

건폐율 44.41%

용적률 183.70%

규모 지하2층, 지상5층

성북구립도서관은 1997. 7월 성북구청의 발주로 이루어진 현상설계의 계획안으로 대지의 효율적이용, 주위환경과의 융합,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계획반영, 장래증축에 대비한 배치계획 등을 기본계획개념으로 하였다.

배치계획에 있어서 대지의 고저차(5m)를 적극 활용하여 정면 및 배면 2개의 도로 모두에서의 접근성 및 인자성을 극대화하여 계획고를 결정하고 이용자와 차량의 진입이 고저차에 의해 자연스럽게 입체적 진입을 이루도록 하였다. 외부공간의 분리된 동측 투명 계단탑을 중심으로 맞은편 체육공원과 본 도서관의 앞, 뒷면 고저차 진입, 야외 휴게공간 등으로 분산 및 집합될 수 있도록 하여 주변 동네의 골목길들과 유사한 개념을 도입하여 불리한 지형의 여건을 적극 활용하였다.

평면계획에 있어 서가 배치 및 주차에 유리한 합리적 모듈선정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도서관의 기능상 꼭 필요하리라 판단되는 증축에 대비하여 피난계단을 건물 동측 외연부에 계획하므로써 수평증축시에 대비하였다.(법규적 제한으로 수직증축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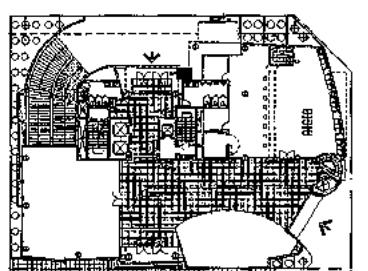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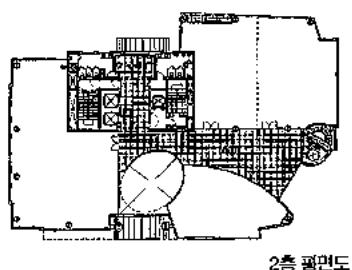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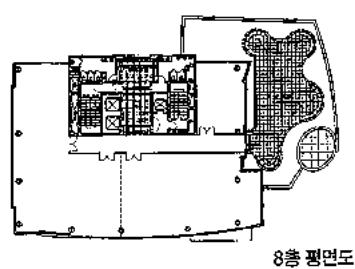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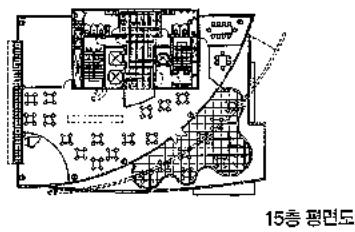
매스(Mass)는 대지조건에 순응하여 장방형의 형태를 계획하였고 곡선의 지붕을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뒷동산의 산세를 의식하여 입면의 변화요소로 친근감 있는 조형을 의도하였다.

주위의 체육공원과 수립대를 조망하고 외부를 내부로 수용하도록 투명한 커를 설치, 수평·수직루버를 통해 시선과 일사의 영향을 적절히 조절하도록 계획하였다.〈글 : 건정건축〉

시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I.B.S

System 채택

- 신뢰성
- 대전시 개발을 선도하게 될 도시개발
공사의 신뢰받는 공기업으로서의 위
상을 제고하기 위한 건축계획



계획작품 blueprint

성북구립도서관

동작소방서

경남산림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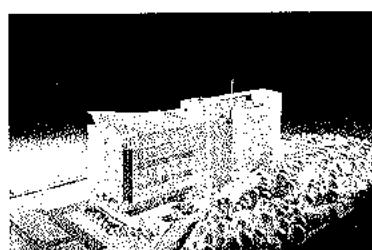
고양시 덕양구청사

전국비구니회관

성북구립도서관

Seongbuk Communal Library

노형래 / 건정건축



대지위치 서울시 성북구 상월곡동 24-52호외 3필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2,104m²(637평)

지상총연면적 3,864.95m²(1,169.15평)

전체연면적 5,500.83m²(1,664평)

건축면적 934.49m²(282.68평)

건폐율 44.41%

용적률 183.70%

규모 지하2층, 지상5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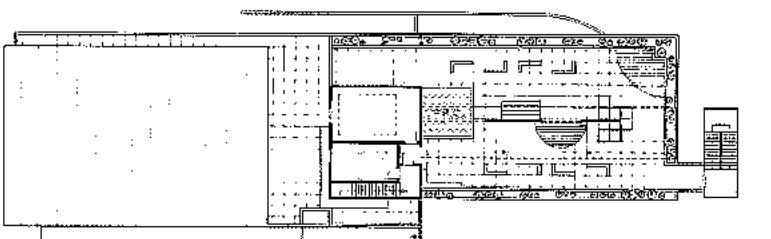
성북구립도서관은 1997. 7월 성북구청의 발주로 이루어진 현상설계의 계획안으로 대지의 효율적이용, 주위환경과의 융합,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계획반영, 장래증축에 대비한 배치계획 등을 기본계획개념으로 하였다.

배치계획에 있어서 대지의 고저차(5m)를 적극 활용하여 정면 및 배면 2개의 도로 모두에서의 접근성 및 인자성을 극대화하여 계획고를 결정하고 이용자와 차량의 진입이 고저차에 의해 자연스럽게 입체적 진입을 이루도록 하였다. 외부공간의 분리된 동측 투명 계단탑을 중심으로 맞은편 체육공원과 본 도서관의 앞, 뒷면 고저차 진입, 야외 휴게공간 등으로 분산 및 집합될 수 있도록 하여 주변 동네의 골목길들과 유사한 개념을 도입하여 불리한 지형의 여건을 적극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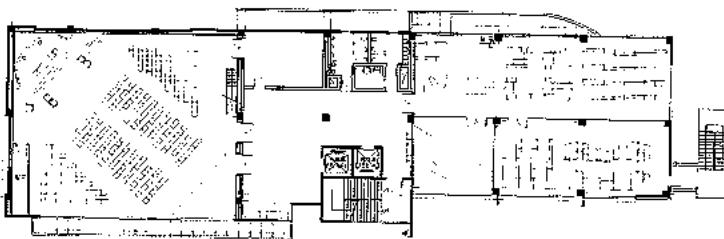
평면계획에 있어 서가 배치 및 주차에 유리한 합리적 모듈선정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도서관의 기능상 꼭 필요하리라 판단되는 증축에 대비하여 피난계단을 건물 동측 외연부에 계획하므로써 수평증축시에 대비하였다.(법규적 제한으로 수직증축불가)

매스(Mass)는 대지조건에 순응하여 장방형의 형태를 계획하였고 곡선의 지붕을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뒷동산의 산세를 의식하여 입면의 변화요소로 친근감 있는 조형을 의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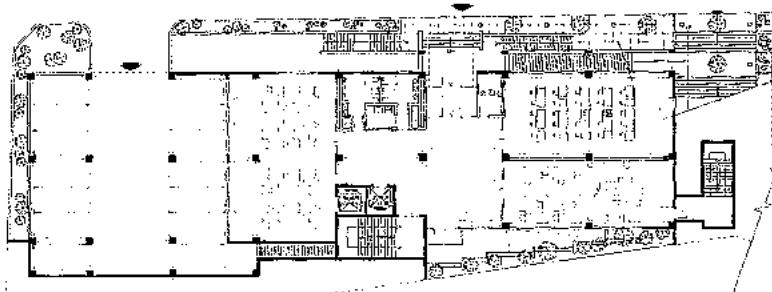
주위의 체육공원과 수립대를 조망하고 외부를 내부로 수용하도록 투명한 커를 설치, 수평·수직루버를 통해 시선과 일사의 영향을 적절히 조절하도록 계획하였다.〈글 : 건정건축〉



옥탑층 평면도



5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동작소방서

Dongjak Fire Station

노형래 / 건정건축



조감도

대지위치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460-1 외 4필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주차장 정비지구

대지면적 4,902.50m²(1,483평)

지상총연면적 6,630.39m²(2,005.69평)

전체연면적 9,187.34m²(2,779.17평)

건축면적 2,203.9m²(666.68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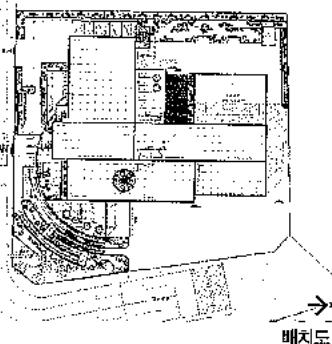
건폐율 44.95%

용적률 135.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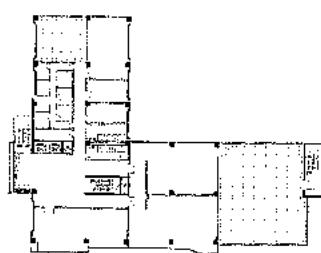
규모 지하1층, 지상5층

이 계획안은 소방파출소와 일반인을 위한 방재체험관을 복원시킨 건물로 2개의 상이한 기능을 분리 또는 연결시켜 조화롭게 계획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배치 계획에 있어 대지의 고저차를 이용하여 Deck를 설치, 지형을 입체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소방파출소 출입구와 방재체험관의 진출입을 자연스럽게 분리하였다. 건물의 특성상 동선계획에 있어 소방차량의 진출입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고 그외 민원인, 직원, 방재체험관 이용동선을 적절히 분리 계획하였다. 평면계획에 있어 기능군을 명확히 파악하여 층별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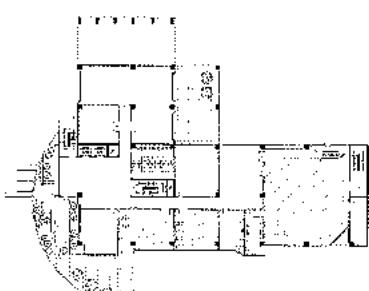
닝에 의해 분리 계획하였으므로 모듈계획은 소방차량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8.1m, 9.6m 등의 모듈을 선정 사용하였다. Mass는 도로측에 순응하는 장방향 Mass에 방재체험관 및 파출소 민원 이용객들의 적극적 유입을 위한 원형 Mass의 조합으로 구성하였다. 입면계획에 있어 접근에 따라 변화감 있는 구성에 주안점을 두고 거대마스를 입면요소로써 사각적 분절을 이루어 심리적 지루함을 해소하고 유리와 화강석, 메탈의 대비적 재료 사용으로 미래지향적 외관을 표현하였다. 단면계획에 있어서는 장비의 현대화에 대비하여 여유 충고를 확보하고 지형을 이용한 Deck 계획으로 접근성을 극대화하였다. (글 : 건정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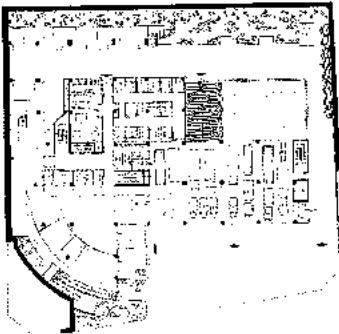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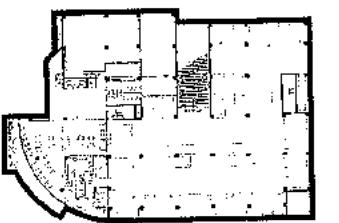
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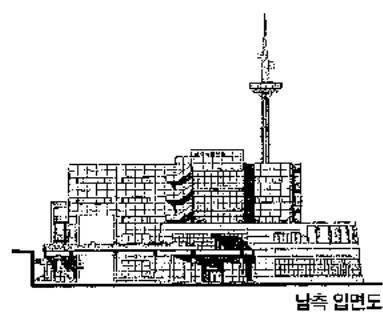
3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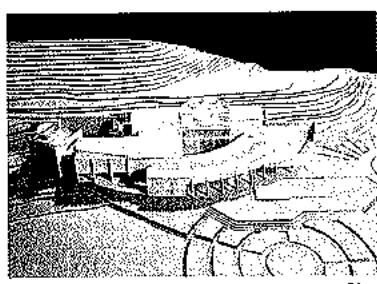


남측 입면도

경남산림박물관

Kyungnam Forests Museum

최삼영 / 가와건축



모형도

대지위치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대천리
(경남 산림환경연구원 내)

대지면적 46,6800m²

건축면적 2,746.30m²

연 면 적 45,469.29m²
건 폐 율 5.88%
용 적 률 10.05%
구 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규 모 지하1층, 지상3층

배치개념

산림박물관은 위치적으로 관람객의 접근이 용이해야 하면서도 지형과의 조화를 전제로 하는 배치계획을 수립하였다.

산자락을 따르는 지형축과 도로축의 자연스러운 조화를 위하여 곡선형 로비공간을 매개로 삼았으며 외부로부터의 진입에는 외부공간→전이공간→내부공간 순으로 점진적인 깊이를 연출하였다.

평면계획

평면계획에서는 전시 및 교육부분과 관리부분의 유기적인 결합에 중점을 두었으며 로비와 브릿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중정을 통해서 박물관 내에서도 또 다른 자연을 관람객이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공간의 균일성과 실용성 및 가변성과 전시공간의 융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System을 채택하였다.

단면계획

경사지형에 순응하는 단면을 형성함으로써 토공사량을 절감시키고 원거리에서의 인지도를 증가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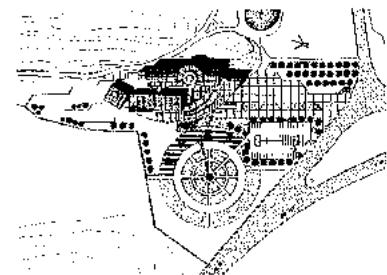
로비는 동일 공간내 체적을 달리하여 단조로움을 탈피하여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였고 자연으로의 개방감 확보를 위해 대형 개구부와 Top Light를 설치하였다.

조형 및 입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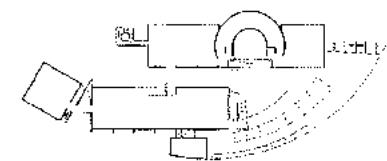
지형과 지역적 특성에 잘 어울리며 산림박물관의 상징적 이미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친근감 있는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2개의 정적인 장방형 Mass를 상승감 있는 곡선형 Mass로 연결하였으며 경사지형에 순응하는 독립된 Mass의 중첩과 외부공간과의 유기적 연결을 이루는 상승감 넘치는 조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주재료는 화강석이나 부분적으로 목재

를 혼용함으로써 건물에 액센트를 부가하였다.



배치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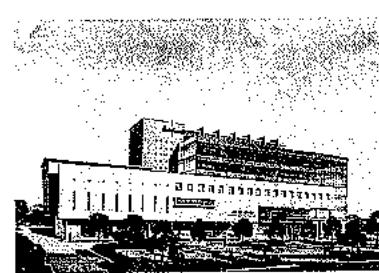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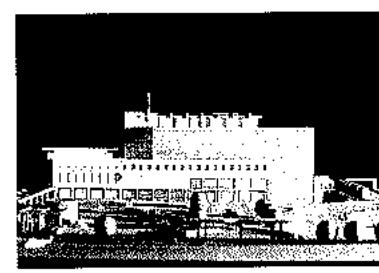
고양시 덕양구청사

Dukyang-gu Public Office

최삼영 / 가와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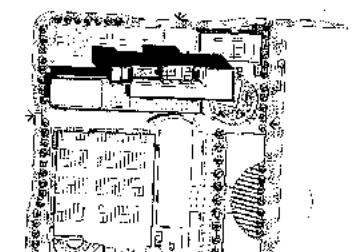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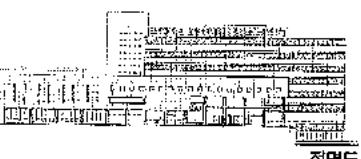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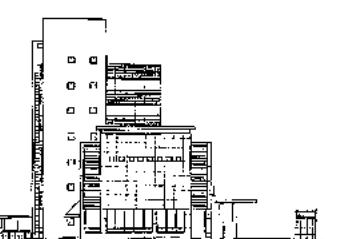
대지위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55
대지면적	19,832m ²
건축면적	2,531.68m ²
연 면 적	17,126.18m ²
건 폐 율	12.77%
용 적 률	48.56%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지하1층, 지상6층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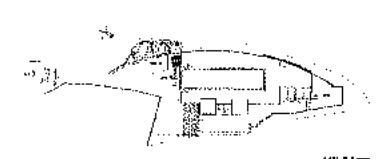


정면도



좌측면도

대지위치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635(수 서택지사업지구 종교용지)
대지면적	4,099.1m ²
건축면적	1,336.23m ²
연 면 적	8,364.68m ²
건 폐 율	32.59%
용 적 률	204.06%
구 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규 모	지하2층, 지상3층



배치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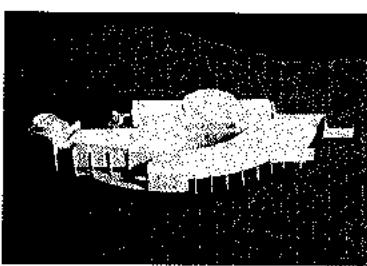


1층 평면도

전국 비구니회관

Institute of Buddhist Priestess

최삼영 / 가와건축



모형도

이 계획의 가장 큰 목표는 지역사회와 중심기구로서의 행정기능과 그 지역 역사와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로서의 복합적 기능을 도시 맥락에 순응케 하여 균형과 조화를 이룬 구민의 청사를 건립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단지 내에서 강하게 인지되는 화정역 광장에서 남북간 주축을 도시의 삼진축으로 수용하여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육외공간을 대지 내로 끌어들여 구민화합의 광장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민원동과 행정동의 비례를 조정하여 비대칭적인 규제미가 느껴지는 새로운 구청사건축을 의도하였다.

주진입 전면부의 입면구성은 점진적 접근의 강한 인지성과 긴 벽, 희망에 의한 수평선과 접지성을 강조하면서 보행의 진입동선을 유도하였다. 접지성과 안정성을 표현한 저층부의 친밀한 형태감과 도시성장에 대한 의지의 상승효과를 표현한 고층부의 투명성을 정직한 행정의 지로 표현하여 입체적 효과를 연출했다. 내부동선의 단축을 고려한 효율적 동선 체계로, 밝고 쾌적한 실내공간을 확보하고 OA화나 조직변경에 대한 융통성과 확장성을 고려했다.

향후 행정동의 수직증축과 민원 및 구민을 위한 공간들이 주차장 상부에 수평으로 증축될 예정된 이 구청사는 사용자 위주의 건물이 아닌 구민을 위한 건물로서의 계획의지가 잘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글 : 최삼영)

l'ARCA

97년 9월호

l'ARCA
ARCHITECTURE
ARCHITECTURAL RECORD
建築文化
a+u
新建築
NIKKEI ARCHITECTURE

본 호에는 Massimiliano Fuksas, Shohei Yoh, Architecture Studio, Coop Himmelb(l)au, Richard Rogers 등의 새로운 작품과 계획안들이 소개되어 있으며, 공중 원격탐사를 통한 도시 연구, 하이텍 기술의 현실침투에 대한 에세이가 실려있다.



■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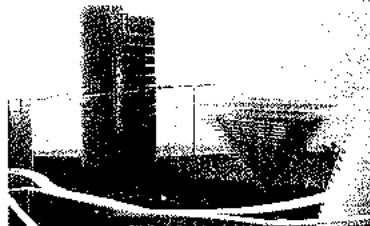
▶ Massimiliano Fuksas의 Limoges 법학대학



옛 건축물에 대한 증축에 있어서 Fuksas는 기존의 구조체를 텁구하는 동시에, 명확한 대조성을 띠는 급진적인 형태를 도입하였다. 이는 고대와 현대, 옛 것과 새 것 사이의 예워지지 않는 틈을 과감하게 삭제해버리는 것이다. 기존의

강한 석조 매스가 보존된 가운데, 투명한 철재 구조물을 덧붙여 실내공간을 만들고, 여기에 아연 도금된 패널로 이루어진 2개의 자유로운 구형의 매스를 삽입하고 있다. 이 매스에는 회의실과 강의실이 포함되어 있다. 표현주의를 “울부짖음”과 “기하학”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언급했던 Ladislao Mittner의 정의를 우리는 이 작품에 적용할 수가 있다.

▶ Shohei Yoh의 2050 공중도시



1992년 요코하마 도시링 전시회의 일환으로 제시된 Yoh의 초고층 도시계획은, 3차원의 공중도로로 요코하마항 다리, 다이고쿠항, 하네다 공항을 잇는 것으로, 대지를 교통체증으로부터 해방시키면서 그 건축물들에 있어서는 표준화된 수직 수평 격자체계를 파기하고 있다. 피라미드를 뒤집은 형태의 호텔, Le Corbusier의 Unit d'habitation을 개념화한 주거건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하부는 보행자와 자연 환경을 위해 개방되어 있다.

그 외에 ▶Architecture Studio의 프랑스 파리 양로원, ▶Jean-Philippe Pargade의 Strasbourg 대학교 기술관, ▶RoTo Architects의 일본 나가사키 C 창고, ▶Coop Himmelb(l)au의 Dresden 영화관, ▶Nicholas Grimshaw & Partners의 에덴 식물원, ▶Richard Rogers의 밀레니움 둠, ▶Odile Decq et Benot Cornette의 럭비 체육관, ▶Kiyonori Kikutake의 리버사이드 박물관, ▶Alsop & Störmer의 Blackfriars 현대미술 협회 계획안, ▶Gain Paolo Mar의 베니스 주차장 건물, ▶Miguel Arruda Arquitectos Associados의 '98 Lisbon 엑스포 전시장 등의 신작이 소개되어 있다.

■ 상상에서 일상적인 현실로

Frank O. Gehry나 디즈니 테마공원의 건축물들은 머리 속 상상의 퍼즐들을 현실에 구체화시킨 예들이다. 이들에서 테크놀로지는 섬세하고 치밀하게 조정된 이미지의 세계를 제시함으로써 외부 현실보다 더욱 진실되고 구체적인 현실감을 제공한다. 산업, 연구, 오락계에 한정되던 이러한 테크놀로지가 이제 주택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Gabor and Popper에 의해 수행된 카나다 Montgomery Village 계획은 각 주호가 디지털 네트워크로 연결됨으로써 상호 작용하는 영상, 음성신호, 팩스, TV를 즐길 수가 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도시라는 공동체의 의미를 재정의하게 할 것이며, 극단적인 경우 현실의 물질세계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가상적 체험이 생활속으로 침투할 수도 있다.

■ 기타

▶'98 Lisbon 엑스포 평가, ▶Dirk Schumann-Büro für industrielle Formentwicklung의 미래 지향적인 수중 주거공간 모델, ▶공중 원격탐사를 통한 도시연구, ▶건축 디자인, 미술계의 전시회 및 박람회 일정이 지역별로 소개되어 있다.

ARCHITECTURE

97년 8월호

오늘날의 주택 건축 현황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본 호에서는 최근 미국의 공동주택 정책의 변화와 그 모범적 사례들에 소개되어 있으며, 테크놀로지 난에서는 혁신 CAD 프로그램들의 소개와 성능을

비교하고 있다.

■ 주택 건축

미국의 주택건축은 그 수요시장의 보수성으로 인하여 그리 큰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다. 건축주들은 건축가의 독창적인 디자인보다는 기능성을 중시하고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요구한다. 건축가들의 자발적인 참여 역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계획이 상대적으로 비중을 갖는 집합주거의 변화된 경향, 그리고 그 극단적인 경우인 디즈니의 집합주거 단지 등을 살펴보았다. ▶이전에는 건축가들이 주택설계에도 큰 관심을 보였으나, 근래에는 주택에 대한 건축가들의 참여가 저조해지면서 건축가가 개입하지 않는 정형화된 투기성 주택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1990년 단독주택의 건축은 전체 건설비용의 30%에 달할 정도로 큰 규모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규정된 디자인의 반복이 아닌, 각 대지의 맥락에 적합한 건축가의 창조적인 작업이 요구되는 것이다.

▶미국 California에서는 아직 건축가들에 의해 집합주거 계획이 모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HUD(미국 주택 및 도시 개발부)의 보조금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건축가들과 비영리 단체간의 협력을 통해 양질의 집합주거를 생산하고 있으며, 선별된 사례들이 소개되어 있다. ▶HUD는 또한 이전의 고층 집합주거 계획에서 정원을 갖는 저밀도의 티운 하우스로 기본방침을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집값의 상승을 초래하였으며, 계층간의 경제적 분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역효과를 거두고 있다. ▶디즈니가 계획한 집합 주거 단지인 Celebration은 가상화, 극화된 공동체를 통해서 예전의 소도시적인 마을을 부활시키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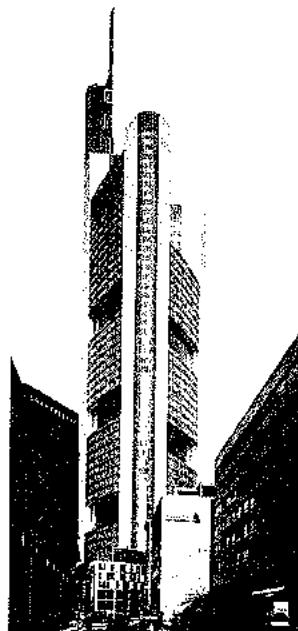


하고 있다. 여기에 관련된 다양한 비판과 더불어 주민과의 인터뷰가 게재되어 있다.

■ 테크놀로지와 시공

▶자리를 옮겨 지어진 Frank Lloyd Wright의 Pope-Leighey House에 관련된 공법, ▶Electric Café Model Shop 2.5, Graphisoft ArchiCAD for TeamWork, AutoDESSYS form Z 2.9 등 3개의 새로운 CAD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성능평가, ▶경제적, 교육적 뒷받침을 통해 고학력의 인력을 활용하는 설계사무소 동향, ▶비단관 하부 설비에 대한 소개 등이 실려있다.

■ 기타



Frankfurt Commerzbank 본부

▶환경설계 계획이 돋보이는 Foster and Partners의 유럽 최고층 타워 Frankfurt Commerzbank 본부 ▶Richard Gluckman이 기존 교회 건물을 증개축하여 만든 미국 New Mexico O'Keefe 미술관, ▶Williams/Tsien의 미국 Baltimore Johns Hopkins 대학교 학생회관, 예술관, 본부 복합건물 당선안, ▶대지에 빈 의자들이 배열될 미국 Oklahoma 참사 기념관 계획안, ▶미국 Houston의 도시발전 근황 등이 소개되어 있다.

ARCHITECTURE

97년 9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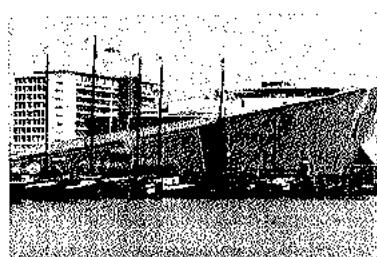
본 호는 '기억'을 중시하는 문화계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편승하여 놀라고 있는 기념관 건축의 문제점들과 근작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서울의 새로운 건축물, 건축과 광고, 건축사무소의 직원 교육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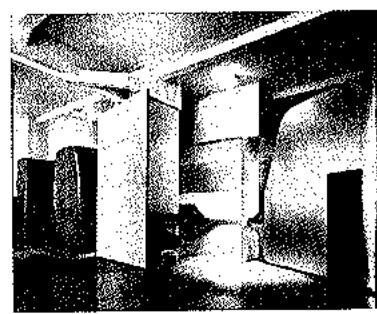
■ 기념관 건축

대중적인 이상주의의 산물이었던 기념관 건축은 과거에 대한 기억의 정리, 그 복원 등 다양한 사회적인 기능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관광 명소로 떠오르면서, 과거에 대한 회상보다는 오락과 여가 활용의 대상자로 변모해가고 있기도 하다. 수많은 기념관의 건축이 줄을 잇고 기념이라는 행위가 행사로 전환되어 가는 시점에서, 기념의 대상이 되는 인물, 장소, 사건 등을 보다 냉정하게 규정해나가는 자세가 요청되고 있다.

▶ 전쟁 참가자들의 편지가 새겨진 수많은



암스테르담의 박물관



뉴욕시 아파트

대리석 기둥들로 구성된 Thompson and Rose Architects의 미국 Indiana Columbus 신 전쟁기념관, ▶네덜란드 Amsterdam의 부두가에 세워진 선박 형태의 유선형을 차용한 Renzo Piano의 박물관 ▶지역의 농장 형태를 상징적으로 차용하고 있는 Will Bruder의 미국 Wyoming Jackson 사무실 겸 주택들, ▶과거 전통을 새로운 형태로 복원하고 있는 Gwathmey Siegel & Associates의 미국 Washington대학교 미술관과 Kolatan/McDonald Studio의 뉴욕시 아파트 등이 사례로 소개되어 있다.

■ 테크놀로지와 시공

▶건축에 대한 철거와 신축보다는 복원 작업, 리노베이션이 증가하면서 그 중요성을 더해가는 건축가와 보전 전문가의 협력 관계, ▶건축 사무소의 효과적인 직원 교육 방식, ▶조적조의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한 벽돌쌓기 디테일, ▶다양한 형태의 파일로 입수되는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방법과 그 한계.

■ 건축과 광고

건축가, 건축 사무소의 신문 및 TV 방송을 통한 광고에 대한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일부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건축은 일용품과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쉽게 구입되는 일반적인 상품이 아니며, 건축을 의뢰할 의향이 있는 사람으면 이미 선정한 건축가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은 광고가 오직 불필요한 지출을 늘일 뿐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이러한 가운데, 건축 이외의 상품 광고에 출연하여 간접적인 홍보를 노리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 기타

▶Richard Clarke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문화회관 디자인, ▶국내, 국외 건축가들의 독창적인 작품들을 수용함으로써 도시의 투자 가치를 높여가고 있는 서울의 근황, ▶Frank O. Gehry의 삼성 현대미술관 계획안 ▶Planet Hollywood 등 오락적인 건축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David Rockwell과의 인터뷰 등이 게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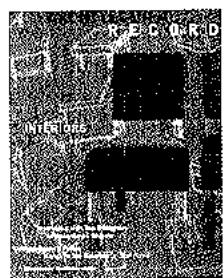


삼성 현대미술관 계획안

ARCHITECTURAL RECORD

97년 9월호

기능에 따른 건물 분류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연속기획에서는 건축물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다루고 있으며, Chicago의 Cabrini-Green 집합주거에 대한 보고, 건축 사무소의 인터넷 이용 등이 소개되어 있다.



■ 연속기획 - 인테리어 디자인

근래 인테리어 디자인의 경향은 '유희'라는 표현으로 암축될 수가 있다. 이탈리아 밀라노의 건축가 출신인 Achille Castiglioni에서부터 미술가로 성장한 Roy McMakin에 이르기까지, 8명의 건축가와 디자이너들의 인테리어 작품과 인터뷰가 게재되어 있다. ▶나무라는 자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Ultimo 상점

연적인 재료를 이용한 조각적인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David Woodhouse의 미국 Illinois 교회, ▶붉은 원색, 나무결, 천 등이 강한 대조를 보이는 미니멀리즘 디자인을 보여주는 Michael Gabellini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Ultimo 상점 ▶최근 MoMA에서 디자인 작품전을 갖는 Achille Castiglioni의 작품 세계와 인터뷰, ▶목재와 철재의 접합이나 설비 등이 노출되어 시공과 재생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Randy Brown의 미국 Nebraska 주택 겸 스튜디오, ▶미술과 과학의 전면적인 충돌이 보여지고 있는 Samuel Anderson의 미국 Harvard 대학 미술관 Straus Center, ▶고밀도의 Manhattan 내에서 하늘을 향해 개방된 중정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 시공에 건축가가 깊이 개입함으로써 그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던 Dean/Wolf의 옥상 아파트 계획 ▶Valerio Dewalt Train Associates의 WMA Consulting Engineers 사무소 설계, ▶부드럽고 따뜻한 점서가 베어있는 Roy McMakin의 가구 디자인과 인터뷰 등이 소개되어 있다.



Dean/Wolf의 옥상 아파트 계획

■ 테크놀로지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한 설계의 진행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각 분야의 전문가, 고객, 다른 설계사무소, 시공자 등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극복하고 직접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 AutoDesk나 Bentley가 도면 파일을 인터넷에 띄우는 원칙과 프로그램을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수단은 더욱 급속하게 전파되었다.

■ 기타

▶미국 Chicago의 가장 악명높은 집합

주거 단지인 Cabrini-Green에 대한 에세이, ▶미국 San Francisco 도서관의 아시아 미술관으로의 용도 변경을 둘러싼 대립, ▶프랑스의 두 번째 규모의 미술관인 Lille Palais des Beaux-Arts의 재개발 소식, ▶Wolfgang Wagener의 중국 상해 주거 마스터플랜 등 아시아에서 계획안으로 체택될 뿐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는 경향에 대한 비판, ▶조명 아티스트 John David Mooney에 의해 장식된 미국 Chicago Tribune Tower, ▶얼마전 작고한 뉴욕 건축가 Paul Rudolph에 대한 간략한 소개, ▶미국 Illinois 공과대학(IIT) 대학본부 국제설계경기 1차심사 결과, ▶문예 관계된 다양한 신상품 소개가 실려있다.

建築文化

97년 10월호

이번 호에서는 특집으로 '마시밀리아노 흑사스(Massimiliano Fuksas)-도시의 시나리오'라는 제목으로 흑사



스의 도시에 대한 입장을 내용으로 한 논고와 그의 최신 작품들이 소개되고 있다. 그의 작품소개로 가와즈 히로시의 '자혜원', S. N House와 다케하라 묘지지의 東히로시마의 주택 등이 소개되었다.

■ 특집

파리와 로마의 사무실에서 일하며 이탈리아의 건축가 마시밀리아노 흑사는 많은 국제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5개의 그의 최근 작품에서 건축을 도시의 컨텍스트와 도시계획에 연결시키는 수법을 알아보고 그의 도시계

획에 대한 에세이 2편을 실었다.

▶논고 - 「흑사스가 지향하는 도시」, 西森達雄

흑사스는 도시계획과 건축의 프로젝트를 50대 50의 비율로 진행하고 있다. 그가 최근 큼직한 도시계획 프로젝트를 맡게 된 이유는 그의 수법이 도시계획과 건축에서 동일하다는 것으로, 기대되는 성과를 구체적으로 충실히 실현시켜 줄 것으로 믿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그의 건축에 대한 이미지는 극히 동물적이고 경험적인 것으로 이는 그가 데 클리에의 제자로서 오랜 기간 회화를 공부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의 사무실은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하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공간에서 그의 작업들은 이루어진다. 이러한 비현실성은 그의 작품이 갖는 에너지기도 하다.

그의 공간 컨셉은 매우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것으로 그것은 영화의 한 장면이 되거나 조각가의 작품이 되었거나 혹은 구겨진 종이조각이 되기도 한다. 그의 스타일들은 이러한 컨셉을 스케일을 갖춘 구체화된 계획으로 변화시킨다. 흑사스의 건축이나 도시 디자인은 예정조작적인 계획목표를 특징으로 진행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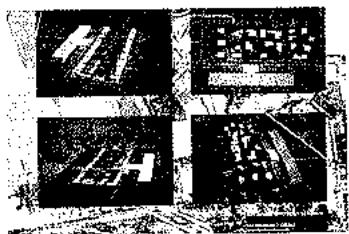
이미지 소스는 상당히 심상적인 시네마토그래피적인 풍경이다. 그에게 있어서 도시의 구조는 여러 가지 시점에서 얻어지는 영상의 집적이다. 이는 도시 혹은 건축을 영화의 세트처럼 가정하고 그 자신이 카메라가 되어 공간을 부유하는 듯한 스탠스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작품

소개된 5개의 작품들은 Plaza of Nations(제네바, 스위스, 1995-1999), Tremblay-en-France지구 재개발 계획(세느-센-드니, 프랑스, 1993-), Wienerberger Street 지구 재개발 계획



Plaza of N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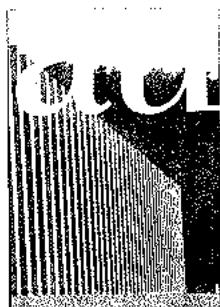
Tremblayen France지구 재개발계획

(비엔나, 오스트리아, 1995-2000), Tiburtina역과 Tuscolana역 주변 재개발 계획, Termini역 재개발 계획(로마, 이탈리아, 1995/1996-), Europark(팔초부르크, 오스트리아, 1994-1997)이다. 이중 Plaza of Nation은 1994년 제네바 시와 ONUG, OMPI, UIT 및 제네바 대학이 공동으로 금후 건설될 건물들을 포함하는 지역 일대의 마스터 플랜을 제안하는 설계 경기였다. 여기서 흑사스는 1등으로 당선 되었다. 그의 안은 레만호의 물을 끌어들여 작은 호수를 만들고 그 위에 장방형의 광장을 만든 후 이를 중심으로 각 건물과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a+u

97년 10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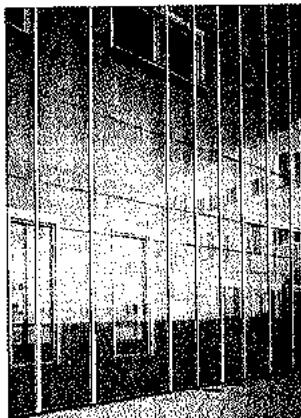
이번 호에서는 Erick van Egeraat의 3개 주요작품과 그의 예세이가 실려 가장 비중 있게 소개되었으며, 그 외 Beat Consoni의 3개 작품을 비롯, Szyszko-Kowalsky, Livio Vacchini, Herzog & de Meuron 등의 작품이 소개되었다. 예세이로는 Detlef Mertins의 "Transparencies Yet to Come: Sigfried Giedion and Adolf Behne"이 소개되었다.



이 세이의 작품은 Szyszko-Kowalsky, Livio Vacchini, Herzog & de Meuron 등의 작품이 소개되었다. 예세이로는 Detlef Mertins의 "Transparencies Yet to Come: Sigfried Giedion and Adolf Behne"이 소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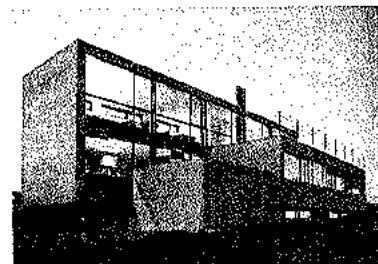
■ 작품

▶Erick van Egeraat의 패션·그래픽 전문학교 (Utrecht, 네덜란드, 1994-1997)



공업과 상업을 위한 새로운 전문학교이나 그 평면계획은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파사드에 있어서는 흉터나 조인트의 제거없이 이루어진 평범하고 전부한 디자인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이 필요했다. 마치 프링겐슈타인의 전설처럼 눈에는 그 대부분이 보이지 않는 육체에 새로운 불어넣는 것이 설계의 의도이다. 이 학교의 교육과목이기도 한 패션이나 공업을 설계상의 컨셉트로 하기로 하였다. 건물 전체는 거즈의 베일이라고 할 수 있는 유리의 외피로 감싸져 있다. 유리의 피막 배후에는 원전히 다른 것이 놓여져 있다. 그것은 건물의 테크니컬한 부분으로, 구조부재, 조직의 벽 등 건물의 핵심부가 투과되어 비춰지고 있다.

▶Beat Consoni의 Sonderegger 주택(Fransacht, Switzerland, 1994)



이 주택은 Fransacht 개발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도시 주변의 거보트 구역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부근 민가 및 채에 상당하는 길이의 장방형의 형태로, 약간 구배가 있는 지형에 대하여 수직 방

향으로 대응하는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 여러 개의 장방형을 종횡으로 구성한 듯한 외관으로 지하층도 갖추고 있다. 두 개 층을 덮는 유리의 파사드는 외부의 풍경이나 호수 모두를 조망할 수 있다. 두 개층 높이의 현관 홀은 횡방향의 입방체와 종방향의 입방체 모두에 감싸져 있다. 단순한 입방체에 의한 구성이 지면에서 떨어져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지면과 유기적 관계를 가지며 관계를 맺는 것이 그의 주택작품들에서 보여지는 특징이다.

新建築

97년 10월호

이번 호에서는 최근 작품으로 후쿠시마潟(湖) 박물관(아오카 준 설계), 도카가와村 문화체육 센터(스



즈끼 마코도 설계), 와요(和洋)여자대학 사꾸라 세미나 하우스(Factor N Associates 설계), 시가 코오겐 로만 미술관(쿠로카와 키쇼 설계), 요쓰야 구민센터(현대건축연구소 설계) 등이 소개되었다.

■ 작품

▶후쿠시마潟 박물관 - 아오카 준 설계



新潟은 그 지명에서 알 수 있듯이 개펄이 많았던 지역이다. 지금은 그 대부분이 논

으로 변하였는데, 이러한 가운데 豊榮市는 新潟에 남아있는 '후쿠시마潟'을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으로 보고 있었다. 개펄에 공공성을 갖게 하려는 계획으로 작가가 제안한 것은 다음의 4가지이다. 개펄을 배경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일, 水辺林의 일부를 실내화하여 북풍으로부터 보호되도록 하는 것, 장래를 내다보았을 때 교통량이 증가하게 될 縣道를 개펄로 끌어들이는 일, 개펄을 다양한 각도와 고도에서 조망할 수 있게 하는 일이다.

▶와요(和洋)여자대학 사구라 세미나 하우스 - Factor N Associates



전체 시설은 크게 연구동, 식당동, 숙박동으로 나뉜다. 평소에 몇 일에 걸친 공동생활을 체험할 기회가 적은 학생들에게 공공적인 영역과 개인적인 영역을 어떻게 설정하는가, 그리고 자연을 어떻게 이곳에서의 생활에 포함시키느냐가 주요한 테마였다.

▶요쓰야 隨民센터 - 현대건축 연구소



건물의 대지는 구도심에서 신도심인 신주꾸로 들어서는 입구에 위치한다. 따라서 건물은 게이트웨이의 성격을 가진다. 또한 대지는 玉川上水의 종점으로 건물은 武藏野(숲이 있는 지역임)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도시와 자연이 만나는 접점이기도 하다. 건물은 도시 가로의 암박감으로부터 자연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여러 가지 형태의 개구부를 두고 있으며

각 가로의 성격에 맞추어 입면의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연재 - TOKIO 계획 1997

▶PROJECT-10, Binary Towers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러지의 발달에 의하여 오피스 주거의 구별은 없어져 갈 것이다. 그 때 오피스 빌딩이라는 20세기의 빌딩 타입은 사라지고 Binary Tower라고 불리는 주거와 오피스가 혼성된 새로운 도시건축이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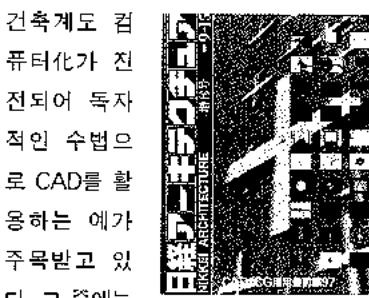
감을 갖고 건축주와 문제를 풀어가는 사무소들의 사례를 들어 건축주의 요구를 만족시킬 뿐 아니라 자신의 건물의 질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각 사례들은 검증, 어드바이스, 관리, 상담 등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10월 6일자 - 특집: 丹下健三(단케 겐조)로 부터의 출업

단케 겐조는 1938년 동경 대를 출업하고 동경대 교수를 역임한 우리 나라에도 잘 알려진 일본의 근대 건축가이다.

근대 일본건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일본의 건축가상을 만들어 내기도 했던 그의 영향을 알아본다. 아울러 시대가 많이 변한 지금 그의 영향을 극복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9월 15일자 - 특집: 젊은 건축가들의 디자인 프로세스



건축계도 컴퓨터화가 진전되어 독자적인 수법으로 CAD를 활용하는 예가 주목받고 있다. 그 중에는 손으로 제작한 도면과 혼합하여 쓰는 경우도 있으며, 학원으로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한 가상설계사무소도 출현하였다. 이번 특집에서는 디종다양화 하는 디지털 디자인을 젊은 건축가들의 설계프로세스를 살펴 알아본다.

■9월 22일자 - 특집: 건설후 도망 가지 않는 설계자

건설 후에도 자신이 설계한 건물에 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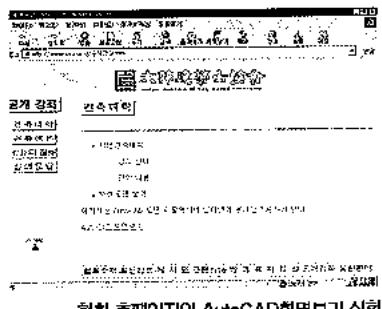
단케 겐조는 1938년 동경 대를 출업하고 동경대 교수를 역임한 우리 나라에도 잘 알려진 일본의 근대 건축가이다.

근대 일본건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일본의 건축가상을 만들어 내기도 했던 그의 영향을 알아본다. 아울러 시대가 많이 변한 지금 그의 영향을 극복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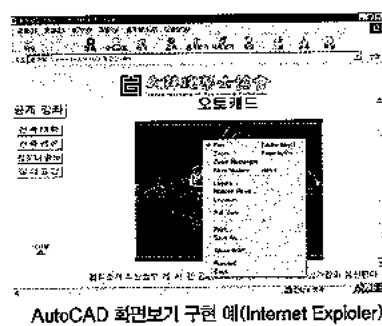
특집 외에 램 콜하스, 자하 하디드, 도미니크 뼈로의 사무실을 탐방해 그들이 작업하는 모습을 살펴보고 있다.



건축설계에서의 인터넷 활용 (인터넷에서 CAD도면 정보의 활용)



협회 홈페이지의 AutoCAD 화면보기 실험



AutoCAD 화면보기 구현 예(Internet Explorer)

최근 인터넷이라는 말이 매우 친숙한 단어가 되었고 인터넷에 대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념 정도는 알고 있을 정도로 이제 인터넷은 우리 생활 속의 일부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가 현재 종사하고 있는 건축설계 업무에서 과연 인터넷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가능성을 가질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보다 큰 발전 가능성을 안식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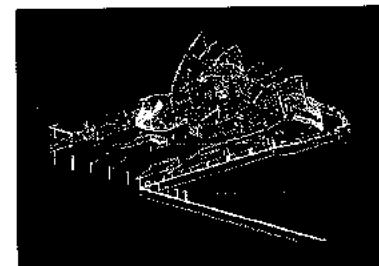
우리가 건축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로 일어나는 일들 중의 하나로 협력회사와의 도면교환을 들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종전의 PC통신(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을 이용하여 해왔던 부분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도면 File을 주고 받는 정도이거나 의견을 주고 받는 가능으

로 만족해야만 했다. 그러나 인터넷의 경우는 이것에 구애받지 않고 그림정보와 도면정보, 음성정보 등을 글자정보와 함께 주고 받을 수 있을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는 물론 외국의 자료도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주고 받을 수 있다.

최근 들어 발표된 AutoCAD R14의 경우 인터넷 상의 정보를 보면서 도면을 그리고 인터넷상의 도면자료를 간단히 찍어 붙일(Drag & Drop) 수 있다. 이것은 AutoCAD의 기능 중 하나인 DWF Format이 인터넷의 Plug-in으로 제공되면서 가능해졌고, 이것의 활용으로 인터넷의 활용분야가 훨씬 더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 실제로 건축설계 현장에서 인터넷을 활용한 예를 들어 보자.

이번 기사에서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가지고 인터넷 BROWSER와 AutoCAD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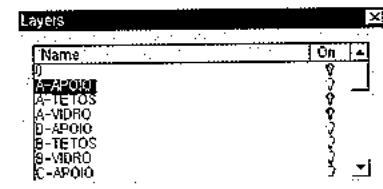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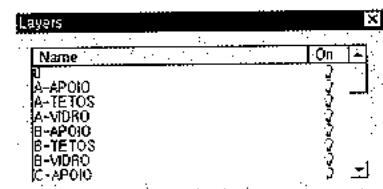
원본 화면

먼저 Autodesk 홈페이지(www.autodesk.com)를 방문하여 WHIP이라는 인터넷 및 autocad용 display driver를 선택하여 들어가면 Demo site의 실제 사용한 정보를 직접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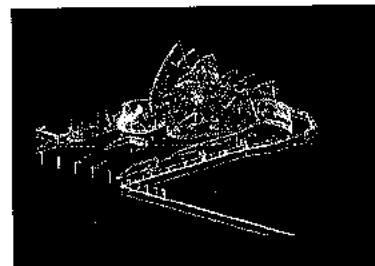
몇 일전에 필자는 미국의 어느 설계사무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우리의 주목

을 끌었던 한국에서 발주한 LG-Dome에 대한 설계도면 및 이미지가 올라온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때 그 도면자료는 필자가 필요에 따라서 확대 축소가 가능하고 Layer별로 선택하여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이것을 발전 시킨다면 다른 인가된 사용자가 해당 도면을 받아서 수정하여 등록도 가능하고 도면을 그리기 위한 자재 정보도 필요에 따라서 공유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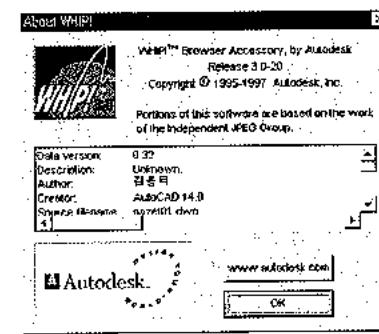
여기서 올라온 도면정보는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고 zoom, pan, layer의 on/off가 가능한 형태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필요에 의하여 세부적인 검토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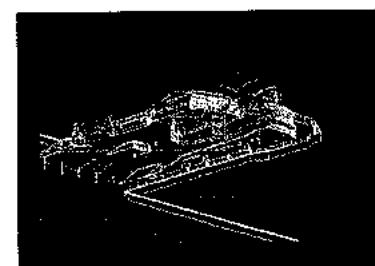
Layer Off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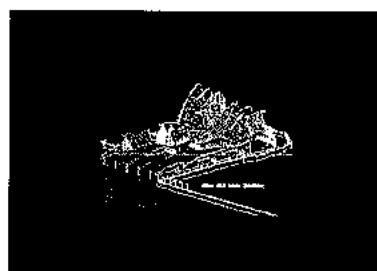
Layer Off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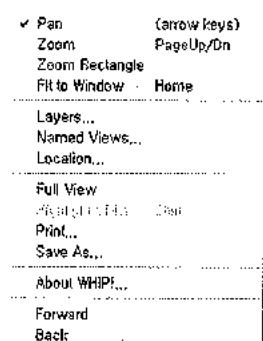
WHIP 3.0 LOGO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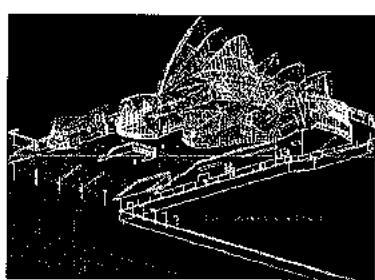
Layer Off 이후



Zoom Out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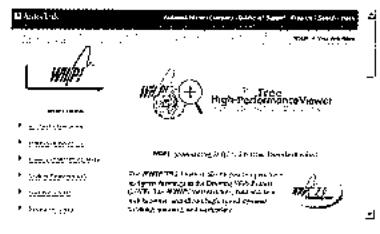
Zoom Control DCL



Zoom In 화면

따라서 이러한 방법은 우리 설계사무소에서 실제 프로젝트 진행시 관련 회사간의 도면 교환 및 자재 신청을 위한 전자 카탈로그 제작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Autodesk 홈페이지에서 건축설계 관련 홈페이지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자료를 통하여 설명을 할까 한다. 자, 그러면 인터넷 상에서 AutoCAD도 면을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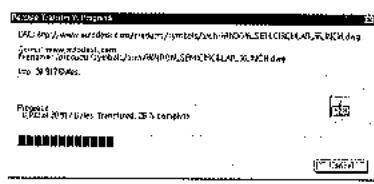
먼저 인터넷의 Autodesk site에서

WHIP Plug-in(WHIP3.EXE)을 Download 받아 설치한다. 설치방법은 의외로 간단하여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주는 정도로 Setup이 된다.

그런 다음 Web Browser를 가동시키기만 하면 인터넷에서 AutoCAD Data File을 볼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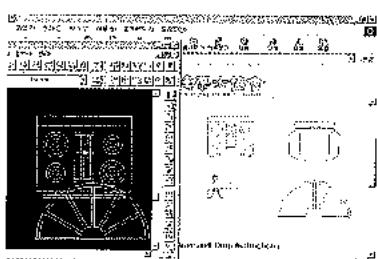
그리고 필요에 의하여 인터넷상의 DATA를 받아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Server에 필요한 Data를 가지고 있고 제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을 경우 인터넷 Browser상에서 CTRL+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동시에 누르고 AutoCAD Windows상에 Drop하게되면 AutoCAD의 Insert 명령어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AutoCAD Data를 만드는 방법은 R13버전 이후부터 제공되는 AIU(AutoCAD Internet Utility)를 통하여 인터넷에서 인식이 가



WEB에서 Auto CAD로 Data 전송화면

능한 File(DWF Format)로 변환을 해주면 된다. 특히 AutoCAD R14의 경우 프로그램 안에서 인터넷 File형태로 Export 할 수 있는 명령어를 가지고 있어서 편리하고 인터넷에서 AutoCAD로 Data를 가져다 사용할 수도 있다.



인터넷과 AutoCAD 화면의 비교



Modem(MODulator/DEModulator) 컴퓨터가 다른 컴퓨터와 전화선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디바이스 모뎀은 컴퓨터의 디지털 신호를 전화선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시킨다. 모뎀 속도는 초당 비트수(bps)나 키클로 바이트(Kbps)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28.8 Kbps 와 28,800 bps는 같은 것이다.

Multitasking 컴퓨터가 같은 시간에 한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동작의 모드. 각 프로그램은 다음 프로그램이 프로세스로 적재되기 전에 작은 시간동안만 실행된다. 프로그램들이 재빨리 프로세스의 안이나 밖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컴퓨터가 동시에 그들을 모두 실행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멀티테스킹 시스템의 안정성은 여러 프로그램들이 다른 것과 얼마나 잘 관리되어 있는지가 관건이다.

Multithreading 한 개의 프로그램안에 여러 프로세스를(쓰레드라고 알려진)을 동시에 실행시킬 수 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여러개의 쓰레드가 병렬로 처리될 수 있고, 한 개의 쓰레드는 다른 쓰레드가 시작되기 전에 꼭 끝내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Named pipe 한 개의 프로세스가 다른 프

로세스에게 원격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프로세스간 통신

Name resolution 연관된 주소로 이름을 매핑시키는 것.

NetBIOS Extended User Interface(NetBEUI) 리우트는 안되지만 작은 메모리를 필요로 하는 작고 빠른 네트워크 프로토콜 라우터로 연결된 원격위치들과 통신하기 위해서 NetBEUI를 사용할 수 없다.

Netlogon service 어느 클라이언트로 부터 로그인 요청을 받아들이고 시큐리티 계정 관리자의 개인정보베이스에서 확인과정을 거치는 것.

Network 자원을 공유하기 위해서 통신 링크로 연결된 한 개 이상의 컴퓨터들.

Network News Transfer Protocol(NNTP) 인터넷상의 뉴스, 기사들을 배포, 조회, 수정과 우송을 하기 위해서 설계된 프로토콜.

Newsgroup 인터넷에서, 특별한 주제에 대한 분산된 전자 게시판시스템. Usenet News(또는 Netnews라고 부른다.)는 인터넷의 모든곳에 있는 수천개의 뉴스그룹을 배포하는 시스템이다.

설계도서신고현황

97년도 9월분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9월분 9백6십3만9천7백56㎡ 보다 0.0%(4천8백59㎡) 감소한 9백6십3만4천8백97㎡의 실적을 보임.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9월 누계 8천6백8십2만2천4백23㎡ 보다 3.1%(2백6십9만7천6백77㎡) 증가한 8천9백5십2만71㎡의 실적을 보임.

다. 전월비

전월 8월분 7백9십7만5천3백71㎡보다 20.8%(1백6십5만9천5백26㎡) 증가한 9백6십3만4천8백97㎡의 실적을 보임.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증감현황

		(단위/m ²)			
		1996년도	1997년도	증 감	비율(%)
증기지역	대 구	711,487	748,098	36,611	5.1%
	대 전	94,067	138,499	44,432	47.2%
	울 산	0	66,528	66,528	
	경 기	782,166	1,381,057	598,891	76.6%
	강 원	126,912	206,269	79,357	62.5%
	충 북	286,797	329,757	42,960	15.0%
	충 남	139,314	340,158	200,844	144.2%
	경 북	140,355	166,675	25,320	18.0%
감소지역	서 울	5,212,510	4,446,221	(766,289)	-14.7%
	부 산	875,691	835,053	(40,638)	-4.6%
	인 천	357,558	318,574	(38,984)	-10.9%
	광 주	170,847	69,883	(100,964)	-59.1%
	전 북	96,024	79,121	(16,903)	-17.6%
	전 남	108,458	95,961	(12,497)	-11.5%
	경 남	475,178	359,882	(115,296)	-24.3%
	제 주	62,392	54,161	(8,231)	-13.2%
합 계		9,639,756	9,634,897	(4,859)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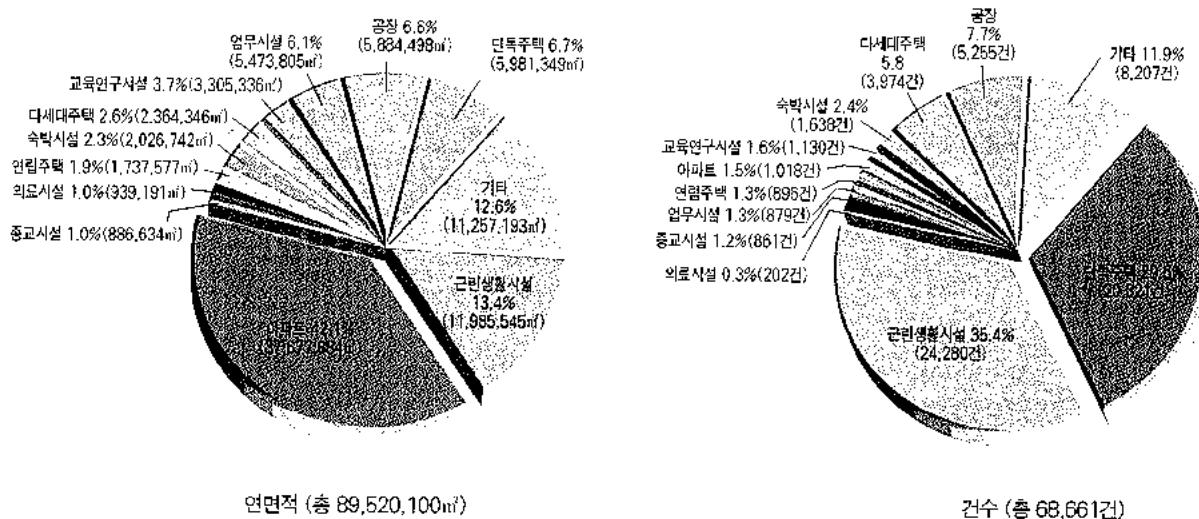
용도별 전월대비 증감현황(연면적 기준)

(용도)	(단위)	(연면적 기준)
단 독 주 택	543,531 527,488	(-3.0%)
다 세 대 주 택	252,336 243,021	(-3.7%)
연 립 주 택	291,230 235,812	(-19.0%)
아 파 트		
근린생활시설	1,097,525 1,172,242	(6.8%)
종 교 시 설	106,398 72,388	(-30.1%)
의 료 시 설	249,250 97,119	(-61.0%)
교육연구시설	327,522 352,854	(7.7%)
업 무 시 설	367,025 1,288,796	(251.1%)
숙박 시 설	216,149 238,572	(10.4%)
공 장	675,843 463,409	(-31.4%)
기 타	1,123,100 1,076,868	(-4.1%)
	0	1,000
		2,000
		3,000 (연면적/연평 전)

용도별 전년동월대비 현황(9월분)

구 분	1996년			1997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용 도											
단 독 주 택	2,428	2,487	711,576	1,793	1,883	527,488	(635)	(604)	(184,088)	-25.9	
다 세 대 주 택	490	536	293,200	379	405	243,021	(111)	(131)	(50,179)	-17.1	
연 립 주 택	79	81	101,810	146	153	235,812	67	72	134,002	131.6	
아 파 트	97	213	3,919,905	116	281	3,864,330	19	68	(55,575)	-1.4	
근린생활시설	2,509	2,599	1,093,698	2,389	2,443	1,172,242	(120)	(156)	78,544	7.2	
종 교 시 설	82	94	62,424	84	91	74,388	2	(3)	11,964	19.2	
의 료 시 설	20	23	38,817	19	20	97,119	(1)	(3)	58,302	150.2	
교육연구시설	149	159	342,969	150	186	352,854	1	27	9,885	2.9	
업 무 시 설	86	89	1,015,169	105	109	1,288,796	19	20	273,627	27.0	
숙 박 시 설	129	138	112,400	241	246	238,572	112	108	126,172	112.3	
공 장	615	836	800,512	453	630	463,409	(162)	(206)	(337,103)	-42.1	
기 타	918	1,086	1,147,276	948	1,093	1,076,866	30	7	(70,410)	-6.1	
합 계	7,602	8,341	9,639,756	6,823	7,540	9,634,897	(779)	(801)	(4,859)	-0.1	(=미너스)

용도별 구성비(1997년 9월 누계)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현황(9월분)

구분	1996년			1997년			대비			연면적 비율(%)	비고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서울	1,676	1,687	5,212,510	1,158	1,159	4,446,221	(518)	(528)	(766,289)	-14.7	
부산	615	842	875,691	508	780	835,053	(107)	(62)	(40,638)	-4.6	
대구	477	477	711,487	386	387	748,098	(91)	(90)	36,611	5.1	
인천	242	263	357,558	203	206	318,574	(39)	(47)	(38,984)	-10.9	
광주	250	286	170,847	125	130	69,883	(125)	(156)	(100,964)	-59.1	
대전	187	187	94,067	196	197	138,499	9	10	44,432	47.2	
울산	0	0	0	150	150	66,528	150	150	66,528	-	
경기	1,448	1,606	782,166	1,671	1,859	1,381,057	223	253	598,891	76.6	
강원	414	460	126,912	375	414	206,269	(39)	(46)	79,357	62.5	
충북	335	369	286,797	337	425	329,757	2	56	42,960	15.0	
충남	298	254	139,314	350	285	340,158	52	31	200,844	144.2	
전북	203	203	96,024	191	191	79,121	(12)	(12)	(16,903)	-17.6	
전남	243	271	108,458	183	205	95,961	(60)	(66)	(12,497)	-11.5	
경북	309	392	140,355	334	358	165,675	25	(34)	25,320	18.0	
경남	779	899	475,178	527	657	359,882	(252)	(242)	(115,296)	-24.3	
제주	126	155	62,392	129	137	54,161	3	(18)	(8,231)	-13.2	
합계	7,602	8,341	9,639,756	6,823	7,540	9,634,897	(779)	(801)	(4,859)	-0.1	()=마이너스

지역별 전년동기대비 현황(9월 누계)

구분	1996년			1997년			대비			연면적 비율(%)	비고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서울	21,330	21,383	41,111,177	11,795	11,842	38,920,751	(9,535)	(9,541)	(2,190,426)	-5.3	
부산	6,179	8,279	7,981,717	4,194	6,484	10,476,335	(1,985)	(1,795)	2,494,618	31.3	
대구	6,835	6,879	5,763,074	4,269	4,273	5,467,883	(2,566)	(2,606)	(295,191)	-5.1	
인천	3,119	3,161	3,284,313	2,514	2,561	4,232,969	(605)	(600)	948,656	28.9	
광주	2,596	3,067	2,027,560	2,979	3,357	1,895,866	383	290	(131,684)	-6.5	
대전	2,615	2,652	1,488,396	2,332	2,363	1,529,289	(283)	(289)	40,893	2.7	
울산	0	0	0	314	323	183,592	314	323	183,592	-	
경기	15,490	16,946	9,519,880	13,490	15,180	9,584,257	(2,000)	(1,766)	64,377	0.7	
강원	3,873	4,219	1,562,877	4,023	4,387	1,746,786	150	168	183,909	11.8	
충북	3,388	3,770	1,911,274	3,723	4,427	2,831,371	335	657	920,097	48.1	
충남	2,707	2,381	1,633,489	2,958	2,377	1,895,581	251	(4)	262,092	16.0	
전북	1,943	1,945	1,390,817	1,887	1,887	1,448,529	(56)	(58)	57,712	4.1	
전남	2,667	2,959	1,278,595	2,679	2,886	1,467,376	12	(73)	188,781	14.8	
경북	3,826	4,693	1,993,785	3,529	3,894	1,806,299	(297)	(799)	(187,486)	-9.4	
경남	8,240	9,428	5,244,614	6,611	7,710	5,434,065	(1,629)	(1,718)	189,451	3.6	
제주	1,323	1,454	630,865	1,364	1,509	599,151	41	55	(31,714)	-5.0	
합계	86,131	93,216	86,822,423	68,661	75,460	89,520,100	(17,470)	(17,756)	2,697,677	3.1	()=마이너스